




장수 백화산 고분군 학술대회 자료집



2022.07.15(금) 13:00~18:00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2bpO_rAFaw

주최·주관:  장수군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학술대회 일정

일정	내용		발표 및 토론
13:00~13:10	접수 및 등록		사회: 이문형(원광대)
13:10~13:20	개회사 및 환영사		최훈식(장수군수) 장정복(장수군의회 의장)
13:20~13:50	기조강연 : 장수지역 가야의 역사와 문화		곽장근(군산대)
13:50~14:20	1발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와 가치	발표 :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 : 김낙중(전북대)
14:20~14:50	2발표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철기류의 가치와 의미	발표 : 유영춘(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토론 : 김상민(목포대)
14:50~15:20	3발표	토기로 본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표 : 박성배(순천대박물관) 토론 : 오재진(경남연구원)
15:20~15:30	휴 식		
15:30~16:00	4발표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발표 : 정해민(함안군청) 토론 : 신웅주(조선대)
16:00~16:30	5발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발표 : 김기홍(고령군청) 토론 : 신웅주(조선대)
16:30~17:00	6발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정비와 활용 방안	발표 : 안선호(원광대) 토론 :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17:00~17:10	장내 정리 및 휴식		
17:10~18:00	종합토론		좌장 : 이재운(전주대)

목 차

1.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조사성과와 가치	p.7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토론문 김낙중(전북대)	p.26
2.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철기류의 가치와 의미	p.29
유영춘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토론문 김상민(목포대)	p.49
3. 토기로 본 장수 백화산 고분군	p.53
박성배 순천대학교박물관	
토론문 오재진(경남연구원)	p.70
4.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p.73
정해민 함안군청	
토론문 신용주(조선대)	p.92
5.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p.95
김기흥 고령군청	
토론문 신용주(조선대)	p.121
6.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p.123
안선호 원광대학교	
토론문 유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p.146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조사성과와 가치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 목 차 -

I. 머리말

II. 장수 백화산 고분군

1. 백화산 2. 일제강점기의 백화산 고분군 3. 2000년대 이전

III. 조사현황

IV. 조사성과

1. 입지 및 분포 2. 봉토 3. 매장시설 4. 출토유물

V. 맺음말

I. 머리말

호남 동부지역은 삼국시대에 백제 문화뿐만 아니라 가야, 신라 문화도 확인되어 여러 나라의 문화가 중첩된 점이지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곽장근 1999). 대체로 5세기대에 가야 문화, 6세기 전반에 백제 문화,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 문화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을 아울러서 하나의 문화 성격으로 규정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준다(김재홍 2012).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삼국시대 금강 상류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세력이 남긴 분묘유적이다. 이 글에서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그간의 조사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고분군의 존재와 가치가 드러났으나 이제야 우리 앞에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백화산 고분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사성과와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반적인 고분군의 검토는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분군 입지 및 분포, 봉토, 매장시설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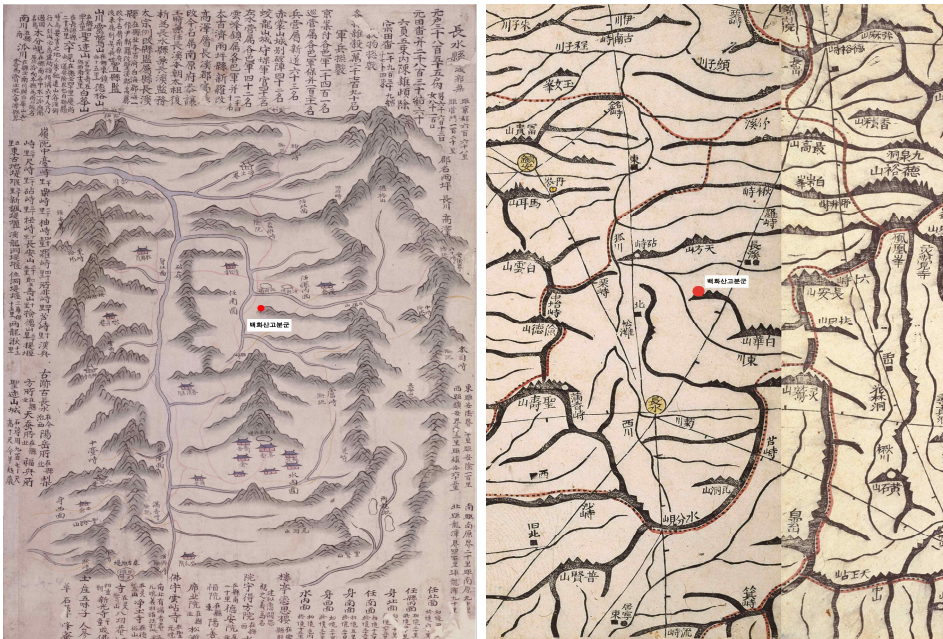
Ⅱ. 장수 백화산 고분군

1. 백화산(白華山)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서북쪽으로 갈려나온 금남호남정맥 무릉봉에서 북쪽으로 갈려나온 백화지맥은 갈미봉, 매봉 등을 지나 백화산으로 이어진다. 백화산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금강 최상류인 장계천과 유천이 흐르며,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확인된 가야고분군 중 최대 규모와 밀집도를 보여주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금강 상류지역 가야세력의 지배층 묘역’이라 할 수 있다. 백화산[白華山; 849.5m]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여러 갈래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를 따라 고대한 봉분을 갖춘 무덤 130여 기가 분포하고 있다. 종래에 행정구역으로 구분된 장수 장계면 삼봉리와 장계리, 계남면 호덕리 고분군을 포함하여 ‘장수 백화산 고분군’으로 명명하였다.

백화산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후 여지도서와 해동지도에 위치와 지명이 확인된다. 백화산과 장계분지 일원에는 장안산, 법화산, 수락봉 등 불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산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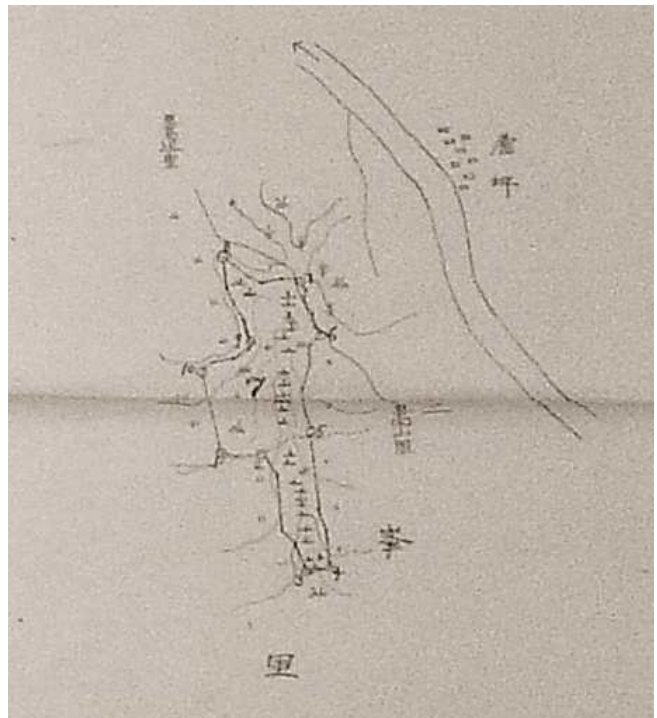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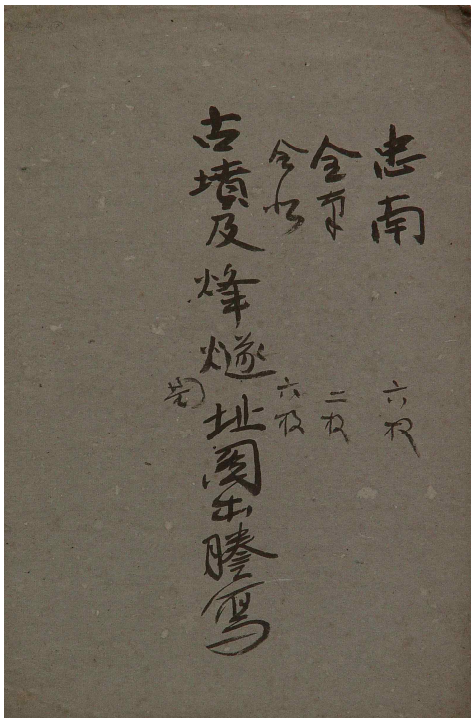
도면 1. 해동지도[左]와 대동여지도[右] 속의 백화산

1) 백화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경우, 별도의 주제발표가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만 소략 기술하였다.

2. 일제강점기의 백화산 고분군

일제강점기 식민지 문화정책에 있어 ‘조선고적조사사업’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대한 후속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선총독부 자료 정리와 식민지 시기의 유적발굴보고서 발간사업 등이 있으며, 일부 연구자에 의한 지역별, 시기별, 유적별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리된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전모(全貌)를 파악할 수 있는 측량도면이 확인되었다. 이 자료는 문화재와 기념물 관계 구역도 - 충남 전남 전북 고분 및 봉수(烽燧) 기지(基址) 도면에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남산리(南山里) 고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915년에서 192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에 유적의 존재와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측량도면에 분포한 25기의 고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도꾸라세이지에 의해 철저한 도굴과 파괴가 이루어졌다.



도면 2. 장수군 계내면 삼봉리 남산리고분(국립중앙박물관)

도면에는 고분의 위치가 토(土)로 표기되었는데, 고분의 규모는 글씨 크기로 표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능선을 따라 고분이 자리하며, 북동쪽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에 2기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동쪽의 남산마을에서 서쪽의 갈평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고분군의 중앙을 통과하는데 길을 기준으로 북쪽에 12기, 남쪽으로 13기가 확인된다. 해방이후 194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고분군 내 고분의 분포와 범위를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



사진 1. 장수 백화산 고분군 일원 항공사진(1948년)

3. 2000년대 이전

해방 이후의 백화산 고분군은 다음 기록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1970년에 발간된 《문화유적총람》에는 이 지역에 “토만두형고분(土饅頭形古墳)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발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²⁾. 조선총독부 측량도면 내 고분을 토(土)로 표기한 것과 표기된 기수와 동일하다. 발굴된 9기는 일제강점기 도굴로 인해 드러난 도굴구덩이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장방형 호석은 이후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1988년에는 발간된 《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는 고분군이 모두 파괴되었는지 그 흔적마저 확인할 수 없으며 더구나 잡목이 우거져 있어 그 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³⁾. 아마도 민묘와 개간으로 인해 지형이 훼손되고 방치되면서 고분군은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듯하다.

1993년 군산대학교박물관 주관으로 문화재연구소의 학술용역을 의뢰받아 《문화유적총람》에 보고되어 있는 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새로운 유적을 찾는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조사에서는 고분군의 범위와 잔존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유적의 성격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의 도면과 사진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군 중 1995년 장수 삼고리고분군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장수군 일원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정치체의 존재가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Ⅲ. 조사현황

1. 지표조사

2000년에는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고고분야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장수군 일원에 자리한 고분군별로 고총의 분포도를 처음으로 작성하였다. 당시 조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된 동촌리고분군은 이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52호[2019.10.1.]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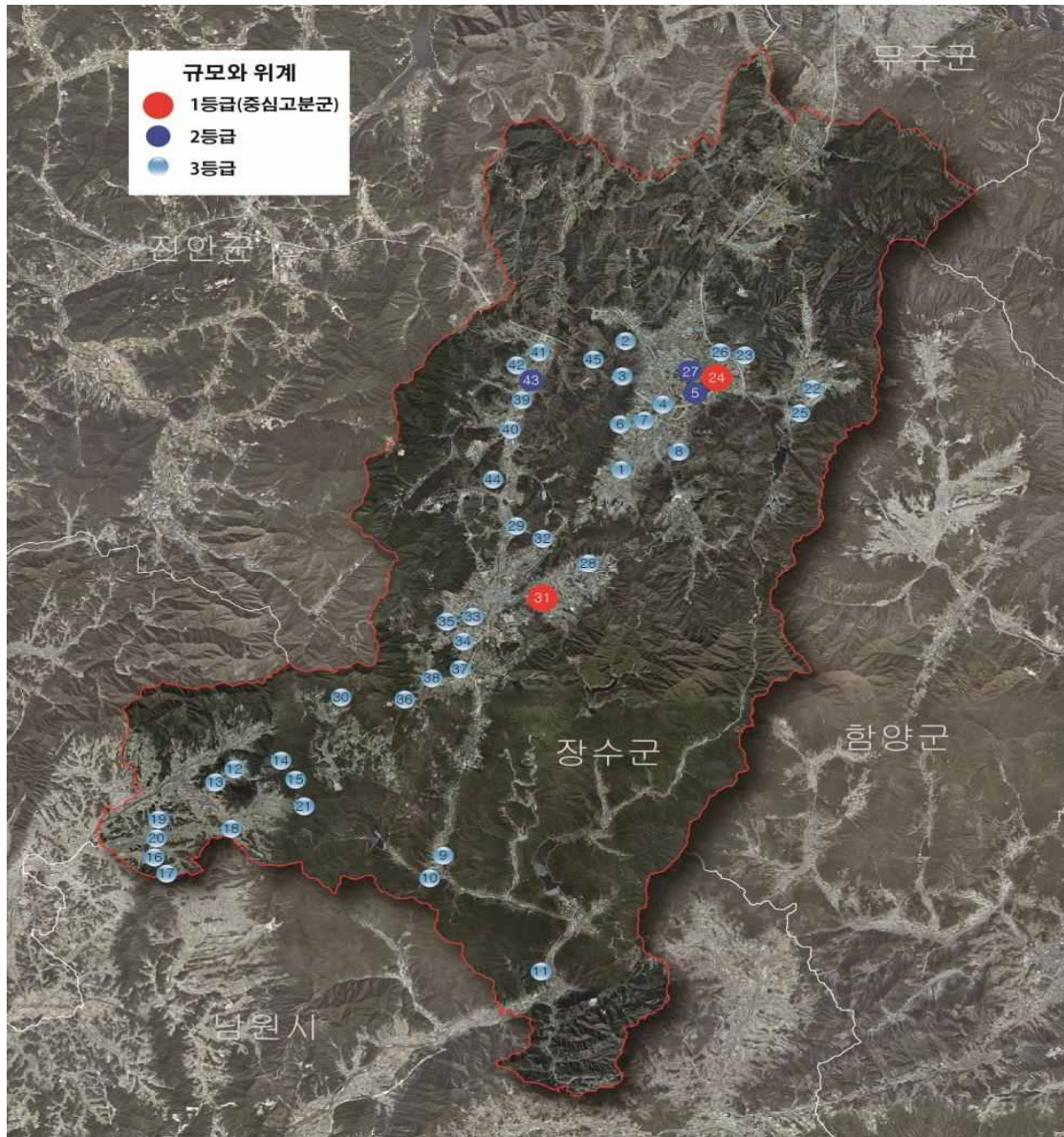
지표조사를 통해 백화산 고분군은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월강리 고분군, 장계리 고분군과 계남면 호덕리 고분군으로 보고되었다⁵⁾.

2)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88, 『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전라북도·장수군.

4)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장수 삼고리 고분군』.

5)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 『장수군의 문화유적』, 전라북도·장수군.



1. 신전리고분군	10. 국포리고분군B	19. 사상리고분군A	28. 노곡리 말무덤	37. 용계리고분군B
2. 침곡리고분군A	11. 대론리고분군A	20. 사상리고분군B	29. 노하리고분군A	38. 용계리고분군C
3. 침곡리고분군C	12. 건지리고분군A	21. 오성리고분군B	30. 대성리고분군A	39. 남양리고분군A
4. 침곡리 마무산유적	13. 건지리고분군B	22. 명덕리고분군B	31. 동촌리고분군	40. 남양리고분군E
5. 호덕리고분군	14. 마하리고분군A	23. 삼봉리고분군A	32. 선창리고분군A	41. 봉덕리고분군A
6. 화양리고분군B	15. 마하리고분군B	24. 삼봉리고분군	33. 송천리고분군A	42. 삼고리고분군A
7. 화양리고분군	16. 봉서리고분군B	25. 오동리고분군	34. 송천리고분군B	43. 삼고리고분군B
8. 화음리고분군	17. 봉서리고분군C	26. 월강리고분군B	35. 송천리고분군C	44. 장판리고분군A
9. 교동리고분군A	18. 사계리고분군	27. 장계리고분군	36. 식천리고분군	45. 춘송리고분군B

사진 2. 장수군 가야고분군 현황(전상학 2021)

2003년에는 군산대학교박물관과 장수문화원에 의해 《장수군의 고분문화》가 발간되어 그동안 장수군에서 조사된 고분과 지표조사를 통해 새롭게 찾아낸 고분뿐만 아니라 장수 주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까지 모두 정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장수군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⁶⁾.

장수군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발간을 위한 지표조사⁷⁾와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사⁸⁾도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군산대학교박물관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장수군 일원 가야고총군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장계면 삼봉리에 41기, 월강리 23기, 계남면 호덕리 41기, 화양리 1기, 장수읍 동촌리 80기, 대성리 2기 등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⁹⁾.

2017년에는 장수군에 산재되어있는 가야 고분의 수량, 규모, 위치, 분포범위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수군 일원에서 확인된 가야 고분군은 45개소이며, 도면 3)과 같이 분포한다. 가야계 고총은 250여 기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수분지에 80여 기, 장계분지에 120여 기 등이 자리한다¹⁰⁾.

2. 발굴조사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 대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는 개발행위에 의한 구제발굴이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로 인해 도로부지에 대한 포함된 삼봉리 고분군과 호덕리 고분군 일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¹¹⁾. 2003년에는 장수군과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삼봉리 고분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확보되었다¹²⁾.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삼봉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장계리와 호덕리 고분군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봉리 고분군은 고고·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기념물 제128호[2013.11.15.]로 지정되었다.

6) 광장근, 2003, 『장수군의 고분문화』, 장수문화원.

7) 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 - 장수군』, 장수군.

8) 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제10공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주)서영기술단.

9)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43』, 호남고고학회.

1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11) 전북대학교박물관·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도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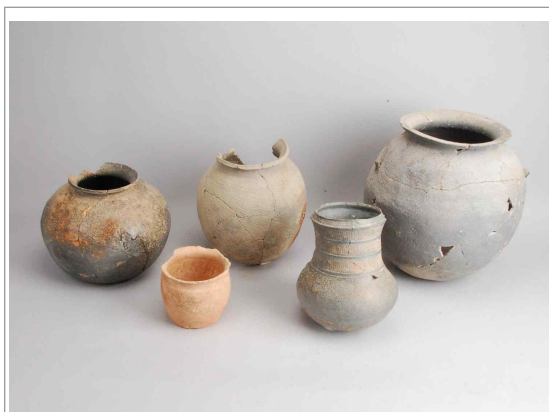
12)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표 1. 장수 백화산 고분군 조사현황

연번	조사 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비고
1	1997 ~ 1999	호덕리 : 석곽묘 11기 삼봉리 : 석곽묘 2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 박물관 군산대학교 박물관	
2	2003	삼봉리 7호분 발굴조사 - 봉토 : 타원형 - 주석곽, 석곽묘 2기, 옹관묘 1기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군산대학교 박물관	군산대 1호분
3	2013	삼봉리 8호분 발굴조사 - 봉토 : 타원형 - 주석곽, 석곽묘 2기, 토광묘 2기 - 수혈식 석곽묘 3기 시굴 : 석곽묘 6기	『장수 삼봉리 고분군』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전주연 2호분
4	2015	삼봉리 9호분 발굴조사 - 봉토 : 타원형 - 주석곽, 석곽묘 2기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전주연 3호분
5	2017	호덕리 고분군 4·5·6호분 시굴조사 - 봉토 : 타원형 - 주석곽 확인	『장수 호덕리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6	2018	삼봉리 16호분 발굴조사 - 타원형봉토 - 매장시설 : 수혈식석곽묘 3기 삼봉리 19호분 시굴조사 - 봉토유실, 석곽묘 4기 확인	『장수 삼봉리고분군 -16·19호분-』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7	2018	삼봉리 1·24·25호분 발굴조사 - 봉토 및 매장시설 유실	『장수 삼봉리고분군 -1·24·25호분-』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8	2018	호덕리 4호분 발굴조사 - 타원형 봉토, 석곽묘 1기 호덕리 9호분 시굴조사 - 석곽묘 1기 호덕리 14호분 시굴조사 - 석곽묘 6기	『장수 호덕리고분군B』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9	2020	장계리 8·9호분 발굴조사 - 8호분 : 주곽, 석곽묘4, 단야구 세트 - 9호분 : 석곽1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북문화재 연구원	
10	2021	삼봉리고분군 시굴조사 - 석곽묘 26기, 토광묘 2기 확인	『장수 삼봉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11	2021	삼봉리 5호분 발굴조사 - 봉토분 2기(5-1·2호분) 주변 시굴조사 - 석곽묘 5기, 토광묘 2기	『장수 삼봉리고분군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12	2022	삼봉리 5호분 서쪽구역 발굴조사	『장수 삼봉리고분군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13	2022	삼봉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조 사	조사 중	전주문화 유산연구원	



사진 3. 7호분(上左), 8호분(上右), 9호분(中左), 16호분(中右), 5호분과 주변(下)



토기류
(삼봉리 8호분)



마구류
(삼봉리 8호분)



꺾쇠
(삼봉리 7호분)



토기류
(삼봉리 5호분)



금동제 고리
(삼봉리 9호분)



단야구, 환두도
(장계리 8호분)

사진 4. 백화산 고분군 출토유물

VI. 조사성과

1. 입지 및 분포

장수군 일원에서 확인된 가야 고분군은 45개소이며, 사진 3)과 같이 분포한다. 가야계 고총은 250여 기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장수분지에 80여 기·장계분지에 120여 기 등이 자리한다¹³⁾.



도면 3. 장수 백화산 고분군 현황도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쪽과 서쪽으로 뻗은 지류에 자리하며, 장계분지와 주변이 한눈에 조망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고분군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금강의 최상류인 유천과 장계천이 흐르며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가야 고분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된 지형으로, 무덤이 자리한 지역은 주변

13)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자리한다. 고총¹⁴⁾이 밀집 분포하는 금강 상류지역에 동촌리 고분군과 삼봉리 고분군에서 이러한 입지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의 입지와 관련성을 보이는데,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고분군 내 고총은 지류의 정상부에 입지하며, 주능선에는 대형분[20m 내외]과 중형분[10~15m]이 자리한다. 규모가 큰 고분 주변이나 가지능선의 정상부에 소형분[10m 내외]이 분포한다.

백화산 고분군 주변에는 가야산성의 특징¹⁶⁾을 확인된 삼봉리산성¹⁷⁾이 자리하며, 산성 내부에서는 고분군에서 주로 출토되는 가야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최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종래 보고된 백화산 고분군의 남쪽 상단부[고속도로 건너편]에 봉토가 남아있거나 벽석이 노출된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¹⁸⁾. 향후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5. 백화산 고분군[호덕리]

14) 김용성, 1998, 『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 춘추각.

이희준, 1997, 「신라 고총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 20, 영남고고학회.

고총은 신라 및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수장층이 조영하였던 분묘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토의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의미한다.

15)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16) 안성현, 2020, 『慶南地域 古代 城郭의 考古學的 研究』,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8~373쪽.

가야산성은 주로 길고 좁은 능선에 축조되어 내부공간이 좁고 평면형태가 세장하며, 성벽은 할석으로 허튼 층쌓기된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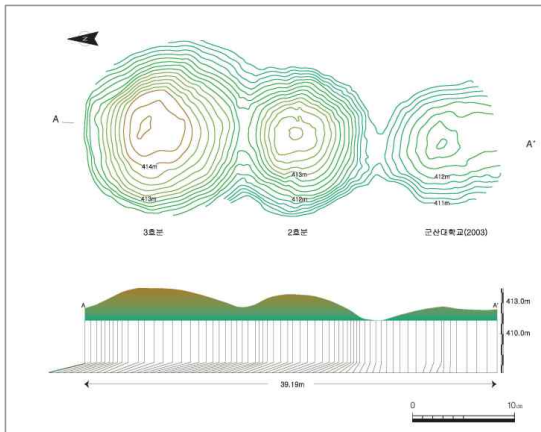
17) 조명일, 2022, 「장수 삼봉리산성(봉화) 조사성과」, 『남원시·장수군 주요 유적 조사성과』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18) 장계면 장계리 성문복님의 귀중한 제보로 고분군의 범위와 잔존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봉토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에서는 봉토가 연접된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 삼봉리 6·7호분과 8·9호분과 남원 월산리 M1~3호분은 동-서로 긴 타원형의 봉토를 맞닿게 하여 고대하게 조성한 연접분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의 봉토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0~20m 내외이다. 고분군 내에서 대형분은 삼봉리고분군에 자리하고 있으며, 호덕리와 장계리고분군은 중·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다. 고분군 내에서 봉토 규모가 가장 큰 삼봉리 9호분은 주석곽이 길이 525cm, 너비 120cm, 잔존높이 174cm이다. 일제강점기에 극심한 도굴피해로 인해 봉토와 매장시설의 규모에 비해 출토유물이 빈약하다.



도면 4. 장수 삼봉리고분군 봉토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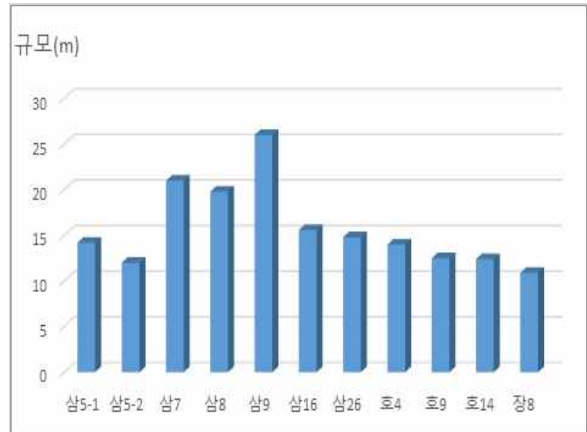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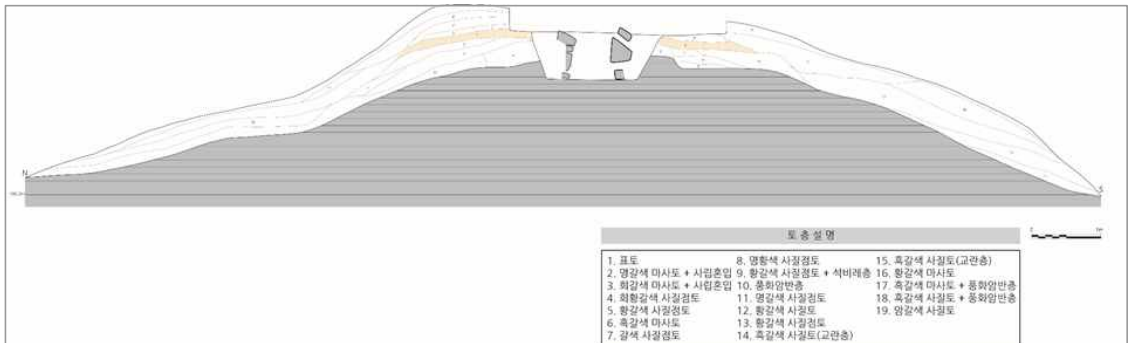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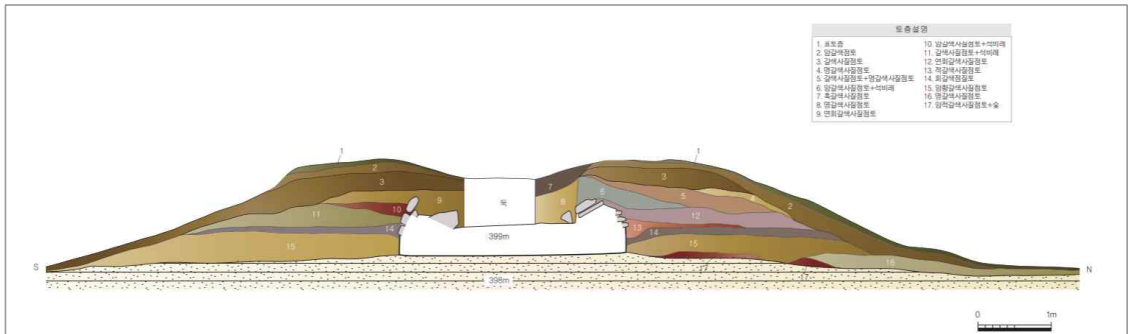
그림 1. 장수 백화산 고분군 봉토 규모

봉토의 축조는 구릉의 정상부를 깎아내어 기저부가 주위보다 높게 묘역을 조성하였다. 묘역 조성 시 기저부는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여 평탄하게 만든 후 2~4개의 층으로 1차성토를 하였다. 봉토 조성 시 경사면에 따라 다른 성토방법이 나타난다. 매장시설인 석곽은 반지하식이 대부분이며, 1차성토층과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후 축조하였으며, 묘광과 벽석 사이는 점토로 켜켜히 채워가며 충전하였다. 석곽의 상부는 구축토(갈색사질점토)와 동시에 쌓아올렸다. 2차 성토는 개석을 석재로 덮은 후 밀봉하고 봉토의 상부를 고대하게 조성하였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특징적인 봉토 축조방법이다.

삼봉리 26호분은 매장시설이 지상식이다. 봉토의 축조방법은 자연 경사면을 수평에 가깝게 정지하고 석곽을 축조하기 위해 생토면을 약간 굴광하여 최하단인 1단을 쌓고 2단 부터는 석곽의 축조와 동시에 봉분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남원 월산리 M4.5.6분¹⁹⁾의 양상과 유사하다.



도면 5. 장수 동촌리 1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도면 6. 장수 삼봉리 26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3. 매장시설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매장시설은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이다. 삼봉리 8호분의 주석곽 주변에서 토광묘 2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최근 조사된 삼봉리 5-1호분 주변에서 횡혈식석실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 중 삼고리고분군에서 목곽묘가 처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석곽묘와 시기차를 가지고 토광묘가 조성된 양상이 확인되었다²⁰⁾. 동일 고분군 내에서 백제 관련 매장시설[횡구식, 횡혈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지를 달리한 일

19)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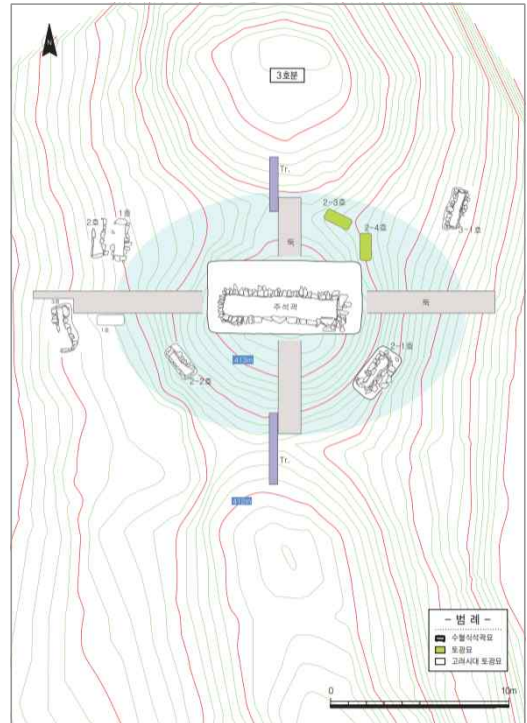
2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고리고분군B 2차 추가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정 범위의 남쪽 사면부에서 백제 고분이 밀집 분포한다.

매장시설의 배치양상은 주곽을 중심으로 주변에 석곽이나 토광묘·옹관묘가 배치된 다곽식이 대부분이며, 봉토와 주변에 일부 배장이 확인된다. 운봉고원의 경우 봉토 내 매장시설의 배치는 단곽식이 대부분이며,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2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곽식이다. 32호분은 주석곽과 부곽이 ‘11’자 형태이나 부곽은 매장용이 아닌 부장품 매납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²¹⁾.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의 매장시설 위치는 대부분 반지하식이며, 지하식은 운봉고원의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석곽 바닥면에 목주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석곽 축조 시 붕괴를 방지하고 벽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주를 사용한 구조는 장수 삼봉리 8·9호분, 남원 두락리 32호분에서 확인되며 인접한 함양 백천리 1-3호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매장시설인 석곽묘의 평면형태는 장수·장계분지에 비해 운봉고원이 세장한 형태이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성과 함께 지역간·집단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²²⁾. 석곽의 규모를 통해 피장자 위상 또는 국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수군 일원에서 조사된 가야고분 중 면적 5㎡이상의 대형 석곽은 장수 삼봉리와 동촌리 고분군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가야의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想)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사후세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주체부의 크기는 가야세력의 국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²³⁾.



도면 7. 삼봉리 8호분 조사현황

21) 전상학, 2020, 「무덤을 통해 본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 호남고고학회.

22) 전상학, 2005,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호남고고학보』25, 호남고고학회.

4. 출토유물

일제강점기부터 극심한 도굴 피해를 입은 백화산 고분군은 봉토와 매장시설에 비해 출토유물이 빈약하다. 삼봉리고분군에서 출토된 마구류와 금제고리, 꺾쇠 등을 통해 금강 상류지역 가야세력의 위상을 일부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 삼봉리고분군 5-1호분 동쪽에서 조사된 7호 석곽묘에서는 뱀모양장식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주로 지배층 무덤에 부장된 토기로 알려져 있다.

장계리 8호분에서는 망치와 모루, 집게로 구성된 단야구 세트가 출토되어 장수군 일원에 철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공정을 주도했던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입증해 주었다²⁴⁾. 다라국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진 옥전M3호분서 단야구가 출토되었는데, 철기생산을 장악한 국가 최고 지배자였기에 단야구를 상징물로 부장한 것이라고 한다²⁵⁾. 단야구는 농경사회 수장층 분묘에 부장된 살포에 대응하는 상징물이었다²⁶⁾.

			
<p>장수 삼봉리고분군 7호 석곽묘</p>	<p>토우장식장경호 [국보 제195호] 경주 계림로 30호 무덤</p>	<p>통형기대 고령 본관동 36호분</p>	<p>기대편 고령 대가야 왕궁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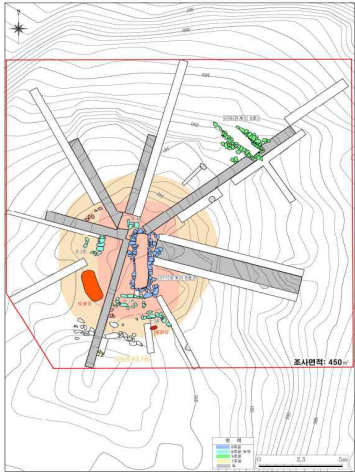
사진 6. 뱀모양장식 토기편[비교자료]

23) 광장근, 2018, 「백제 웅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지배』제1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

24) 전북문화재연구원, 주 4)의 보고서.

25)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라국』, 해안.

26) 이도학, 2020,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 호남고고학회.



도면 8. 장계리 8·9호분



사진 7. 장계리 8호분 출토

V. 맺음말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유적은 문헌에 기록된 지명의 위치, 백제의 영역화, 가야의 발전 등에 나타난 물질적 증거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백두대간 동쪽에 자리한 가야 지배층 무덤군 중 최대 규모이며, 삼국시대 장계분지를 중심으로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세력의 지배층이 묻힌 무덤군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를 비롯한 여러 세력과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 최근 장계리 고분군에서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에서 처음으로 철을 제작하는 도구인 집게와 망치가 출토되어 장수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했던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분군은 대가야를 비롯한 여러 가야 중 유일하게 한반도의 패자인 백제와 국경을 맞대고 발전한 세력인 장수 가야가 남긴 문화유산이다.

현재 우리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을 통해 장수지역에서 대형 고총을 조성하였던 고대 정치세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가야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고고학에서는 정치체[國, 國家]의 형성 지표로 크게 중심지와 성, 고총고분, 토기 양식, 위세품으로 보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07). 금강 상류지역에 백화산 고분군은 규모와 분포, 출토유물[위세품] 등을 통해 중심고분군으로서 정치체의 존재를 보여

주고 있으나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조사되고 있는 관방유적에 대한 검토와 토기 양식을 비롯한 생산과 분배체계의 접근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_____, 2018, 「백제 웅진기 영토 개척과 지방지배2」『백제 웅진기 영역과 지방지배』제13회 정점백제사 학술회의, 한성백제박물관.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0, 『장수 동촌리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28 · 25 -1호분-』.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장수 삼봉리산성(봉화) 3차 발굴조사 자문회의자료」.
-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 지배」『한국상고사학보』78, 한국상고사학회.
- 백제학회, 2021, 『백제와 가야의 경계와 접점』 제41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요지문, 한성백제박물관.
- 안성현, 2020, 『慶南地域 古代 城郭의 考古學的 研究』,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8~373쪽.
- 이도학, 2020,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 호남고고학보 특집호, 호남고고학회.
- 전상학, 2005,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호남고고학보』25,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호남고고학보』43,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호남고고학보』59,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8, 「장수 삼고리 · 삼봉리고분군 발굴조사 성과」『2018 가야문화유산 최신 조사성과』,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9,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학술심포지엄, 국립가야·나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9, 「호남 동부지역 가야고분의 유형」『마한·백제 그리고 가야』제 27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0, 「무덤을 통해 본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 가야』호남고고학보 특집호,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1,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장수 삼고리고분군 성격과 가치』도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전라북도·장수군·후백제학회.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0,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약보고서」.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 고분군』.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 고분군 -1·24·25호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봉리 고분군 -16·19호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호덕리 고분군B』.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삼고리 고분군 1~3호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1, 「장수 삼봉리고분군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장수 삼봉리고분군[7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조명일, 2022, 「장수 삼봉리산성(봉화) 조사성과」, 『남원시·장수군 주요 유적 조사성과』 학술세미나 발표요지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 조영제, 2007, 『옥전고분군과 다락국』, 해안.
- 한국고고학회, 2007, 『국가형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제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조사성과와 가치」에 대한 토론문

김낙중(전북대학교)

발표자는 전북지역 가야계 고분을 직접 발굴조사하며 얻은 인식을 바탕으로 연구에 매진하여 크게 성과를 얻고 있는 연구자이므로 이 분야에 대해 알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토론자가 발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시할 점은 별로 없다. 다만 주로 백제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의 시각에서 몇 가지 의아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의 의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백화산 고분군을 ‘금강 상류지역 가야세력의 지배층 묘역’이라고 평가하였는데, 백화산 자락의 삼봉리, 장계리 및 호덕리 일대에 120여 기에 달하는 많은 수의 고분이 분포하는 데 비해 조영 기간이 5세기 중엽~6세기 전엽으로 그다지 길지 않으며 규모가 고령이나 남원 운봉고원 일대의 고총에 비해 작은 중소형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지배층’의 묘역으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중소형 고분의 급격한 유행 및 소멸이라는 측면에 주의하여 장수지역에서의 고분 조영의 배경과 역사적인 의미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가야권역 내에서 고령에서 가장 먼 곳이라는 점, 고분을 조영할 수 있는 집단의 하향화, 즉 군집분조영 경향 등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는 백화산 고분군의 조영주체를 가야세력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인접한 침곡리 일대에서는 4주식 주거지, 이중구연호가 부장된 토광묘 등 4세기대로 추정되는 마한과 관련된 문화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이런 자료로 볼 때 장계 일대의 기저문화는 마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야계 고분이 조성되던 시기에도 백제 등 외부 세력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야 일변도의 정치체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은 고분 축조 방식에도 보인다. 가야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쳤지만 ‘장계’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이 지역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장수만의 독자성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장수 일대의 고분을 ‘고총’으로 표현하였는데, 당시 주변 가야세력의 고분 규모와

비교하여 동등하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규모면에서 대가야권 여러 지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는지 봉분과 매장시설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상대적인 위치를 설명해주면 좋겠다.

-장수지역 고분의 축조 방식 중 매장시설이 반지하나 지상에 위치하며, 1차 성토 후 묘광을 파고 매장시설의 상부를 쌓으며 봉분 성토를 함께 한 점을 특징으로 들었다. 이러한 특징은 대가야권의 일반적인 고분 조성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 배경과 의미에 대해 보완 설명을 부탁한다.

-장수지역에서 가야계 고분 다음의 양상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발표 내용 중에 삼고리 고분군 주변에 백제 고분이 밀집 분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장수 지역에서 확인되는 백제 고분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좀 더 말씀해 주면 좋겠다.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철의 생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제철과 철기생산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철기류의 가치와 의미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목 차 -

- I. 머리말
 - II. 철기유물의 출토 현황
 - III. 철기유물의 검토
 - 1.마구 2.무기 3.단야구
 - IV. 백화산 고분 철기유물의 의미 : 맺음말을 대신하여
-

I. 머리말

백화산(850.9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주변 구릉에 장수 삼봉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이 분포한다. 이는 장계분지의 중심 가야 고분군으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경 500m 내에 131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이들 고분군의 구조적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장계 분지에 존재했던 동일한 가야 세력이 조성한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수 삼봉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을 ‘장수 백화산 고분군’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정치·군사력을 상징하는 무장(武裝)²⁸⁾과 생산·경제력을 나타내는 농·공구류가 주로 출토된다. 이러한 유물의 분석을 통해 해당 집단의 정치 및 군

27) 전상학, 2021, 「장수군 가야고분의 현황과 가치」,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65쪽;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2, 『장수 장계리 고분군 -8·9호분』, 13쪽.

28) 본고에서 의미하는 무장이란 마구·무기·무구 등 전투에 필요한 장비 전체를 일컫는다.

사체계를 비롯하여 주변 지역과 교류 관계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도 이러한 철기유물이 출토되었으나 극심한 도굴로 인해 출토 수량이 매우 적고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 심도 있는 내용을 밝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 중 마구·무기·단야구 등을 검토하여 이 지역 가야 세력의 전술 및 교류·의미 등을 거시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II. 철기유물의 출토현황

철기유물의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마구·무기·단야구가 출토된 고분의 연대를 토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참고하여 철기유물의 편년 및 전개 양상을 설정하는데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검토가 가능한 토기의 기종으로는 유개장경호·개·배·기대·단경호 등이 있으며, 이를 비교 자료와 함께 유구 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장수 삼봉리 1-1호 석곽(2005)²⁹⁾·장수 장계리 8-2호 석곽에서 출토된 유개장경호는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출토품과 구연부의 형태 및 동체부의 형태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장계리 8-1·4호 석곽에서 출토된 무개장경호(광구장경호)는 전체적인 형태는 작으나 구연부의 형태와 경부·동체부의 비율, 동체부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또한 삼봉리 2호 석곽(2000)에서 출토된 개는 심도가 깊어 함양 상백리 1호분·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품과 동일하다. 이상의 1단계 토기들은 고령 지산동 44호분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장수 삼봉리 2호분 주석곽(2015)·장수 삼봉리 19-4호 석곽·장수 호덕리 A-1 9호 석곽(2000) 출토 유개장경호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전 시기보다 전체적인 기형과 동체부의 비율이 줄었음을 고려하면, 고령 지산동 45호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장수 삼봉리 3호분 주석곽에서 출토된 저평통형기대의 경우 전체 높이가 낮고 수부는 사선으로 벌어졌으며, 삼각형 투창이 뚫린 점 등으로 보아 고령 지산동 44·45호분 출토품과 동일하다. 장계리 9호분에서 출토된 2점의 단경호는 문양과 재질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기형을 고려하면 고령 지산동 B-5호 석곽(대동문화재연구원 2020년 조사)·고령 지산동 45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장수 삼봉리 3호 석곽에서 출토된 3점의 개 중 1점은 구연단 등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기형을 고려해볼

29) 괄호 안의 숫자는 보고서 발간 연도를 의미한다.

때 고령 지산동 45호분에서 출토된 연질 개와 비교할 수 있다. 공반된 1점의 배는 이전 시기의 것보다 심도가 얇아 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 토기들은 전반적으로 고령 지산동 45호분과 동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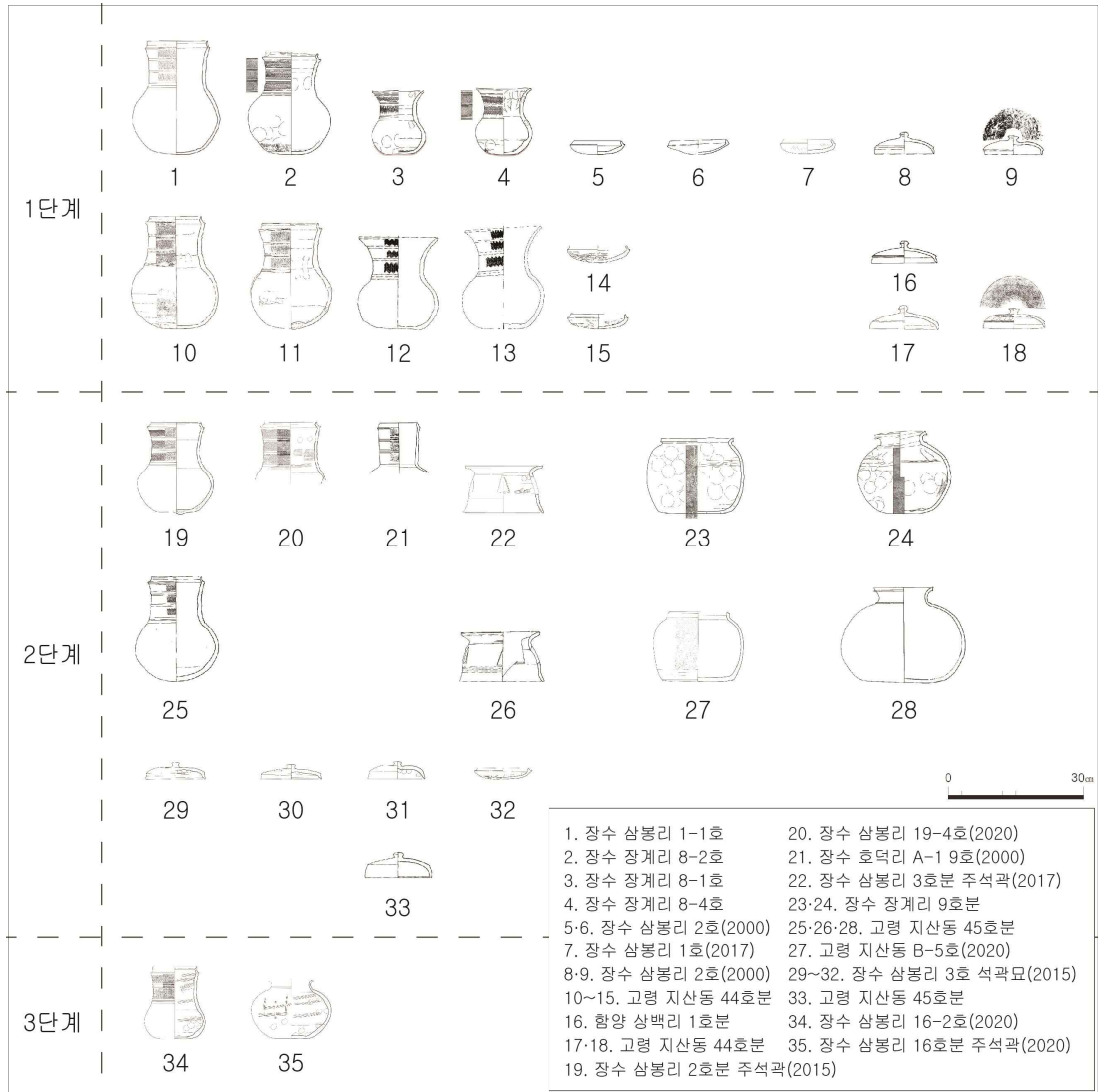


그림 1.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토기의 비교 검토

장수 삼봉리 16-2호 석곽 유개장경호의 경우 전체적인 크기와 동체부의 비율도 현저히 줄어 앞선 단계보다 한 단계 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천수의 편년안³⁰⁾을 따라 지산동 44호분과 동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1단계는

5세기 말, 지산동 45호분과 동일 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 2단계는 6세기 전반, 3단계는 6세기 전반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장수·남원 운봉고원에서 철기유물이 출토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는 길이와 폭에 따라 크게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뉜다. 대형은 길이 5m 이상·폭 1.0m 이상, 중형은 길이 3.3m 이상~5m 미만·폭 0.5m 이상~1.3m 미만, 소형은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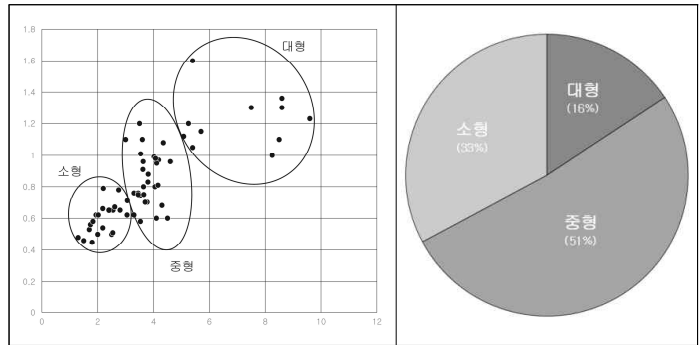


그림 2. 남원 운봉·장수 가야 석곽묘 산점도 및 비율

3.3m 미만·폭 0.8m 미만이다³¹⁾. 비율로 나타내면 대형 16%·중형 52%·소형 32%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들은 도굴되어 수량이 적으나 마구·무기·단야구·농구·공구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대와 석곽묘의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백화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백화산 고분군 철기유물의 출토 현황

유적명	유구명	석곽		규모	마구				무기				단야구			농구				공구			연대		
		길이	폭		비	동자	안장	운주	활두 대도	대도	철검	철모 검모	철준	철촉	철시 구	망치	집게	모루	삽포	철검	파비	철서		단조 철부	주조 철부
삼봉리 (2000)	1호	3.81	0.88	중형									3												
	2호	2.61	0.67	소형									12										1	1	5C 말
삼봉리 (2005)	1-1호	4.62	0.96	중형					1			1	3					1						1	5C 말
	1-2호	2.02	0.62	소형									5											2	5C 말
삼봉리 (2015)	2호분 주	5.08	1.12	대형	1	1쌍	1	2			1	1	20					1			1		2		6C 전
	3호	2.54	0.51	소형									3												6C 전
삼봉리 (2017)	3호분 주	5.25	1.20	대형																					6C 전
	3-1호	3.65	0.75	중형									8					1						1	6C 전
	3-2호	1.83	0.58	소형									1												6C 전
삼봉리 (2020)	16호분 주	3.70	0.70	중형									7												6C 전 이후
	16-2호	1.80	0.45	소형																				1	6C 전 이후
	19-4호	3.05	0.62	소형									6					1							6C 전
호터리 (2000)	A-1 6호	3.50	1.20	중형									5										1	1	6C 전
	A-1 9호	(4.00)	1.50	중형(?)									1	1				1			2		2		6C 전
호터리B (2020)	4호분 주	3.70	0.70	중형								1						1						1	6C 전(?)
장계리 (2022)	8호분 주	3.60	0.81	중형					1						1	1	1		1						5C 말
	9호분 주	(3.70)	0.80	중형									9					1			1				6C 전
총계					1	1쌍	1	2	2	1	0	3	2	83	0	1	1	1	0	7	0	0	3	2	12

30) 박천수,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147쪽.

31) 장수를 포함한 진안고원에서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규모는 면적에 따라 대형(4.0㎡ 이상)·중형(2.0㎡ 이상~4.0㎡ 미만)·소형(2.0㎡ 미만)으로 구분된다(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성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 57권, 호남고고학회, 31쪽.). 이는 필자의 석곽묘 분류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철기의 부장에 있어 위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위세품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마구의 경우 석곽의 규모가 대형인 삼봉리 2호분(2015)에서만 출토되었으며, 철도와 철모는 대형·중형 석곽에서 출토된다. 또한 석곽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소형 석곽에서 철촉과 철검·철부·철도자 등의 농·공구류가 출토되어 가장 일반적으로 부장되었던 철기로 판단된다. 고분의 규모와 내부에서 출토된 철기 유물(마구 및 대도 등)의 종류로 보아 백화산 고분 중 고분의 위계가 가장 높았던 고분군은 삼봉리 고분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Ⅲ. 철기유물의 검토

1. 마구

마구는 고분의 규모가 큰 삼봉리 2호분에서만 출토되었다. 비(轡, 재갈)와 등자(鐙子)·안장(鞍裝) 부속구·운주 등이 세트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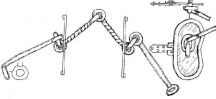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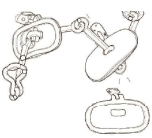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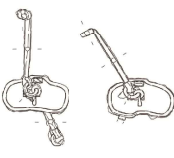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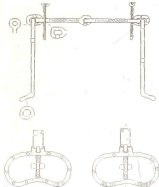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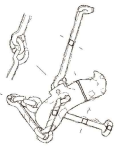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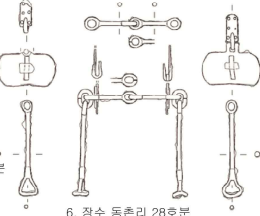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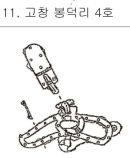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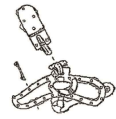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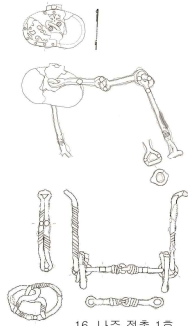
구분 시 기	남원 운봉고원·장수	비교자료
5C 전반 ~ 5C 중반	  1. 남원 청계리 1호 2. 남원 월산리 M1-A호	 9. 공주 수촌리 II-3호
5C 후반 ~ 5C 말	  3. 남원 월산리 M5호분 4. 장수 삼고리 2-2호	  10. 함천 반계제 가A호분 12. 고령 지산동 44호분
6C 초반	    5. 장수 동촌리 30호분 6. 장수 동촌리 28호분 7. 장수 삼봉리 2호분 8. 남원 두락리 1호분	     11. 고창 봉덕리 4호 12. 고령 지산동 44호분 13. 부산 동래 복천동 23호분 14. 고성 송학동 1A-1호 15. 고령 지산동 45호분 16. 나주 정촌 1호

그림 3. 장수·남원 운봉고원 비(재갈)의 전개

비는 타원형 외환 중앙에 곡(曲) 'X'자형 함유금구가 부착된 환판비(環板轡)이다. 함은 온전히 남아있으나, 인수는 (인수)내환만 극히 일부 남아있다. 함과 인수는 모두 방형의 철봉으로 제작되었으며, 유환 없이 직접 연결되었다. 국내에서 곡 'X'자형 환판비가 출토된 사례로는 장수 삼봉리 2호분 출토품을 제외하고 고령 지산동 45호 출토품이 유일하다. 이러한 곡 'X'자형 환판비는 가야(삼국시대) 'X'자형 환판비의 마지막 형태로 알려져 있다³²⁾. 그러나 양자는 전반적인 형태 및 구조가 동일하나 세부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지산동 출토품은 함과 인수가 유환을 통해 연결되었으나 삼봉리 출토품은 유환이 없으며, 곡 'X'자형 함유금구의 형태도 다르다³³⁾.

삼봉리 2호분에서 출토된 환판비는 지산동 45호분(6세기 전반)과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반된 토기의 검토 결과와 일치한다. 삼봉리 2호분에서 출토된 환판비는 고령과의 관계 속에서 제작된 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지산동 45호분 출토품과 더불어 6세기 전반 무렵 가야지역 'X'자형 환판비의 소멸 및 변형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삼봉리 출토품은 지산동 출토품과 함과 인수의 연결방법 및 함유금구의 형태가 달라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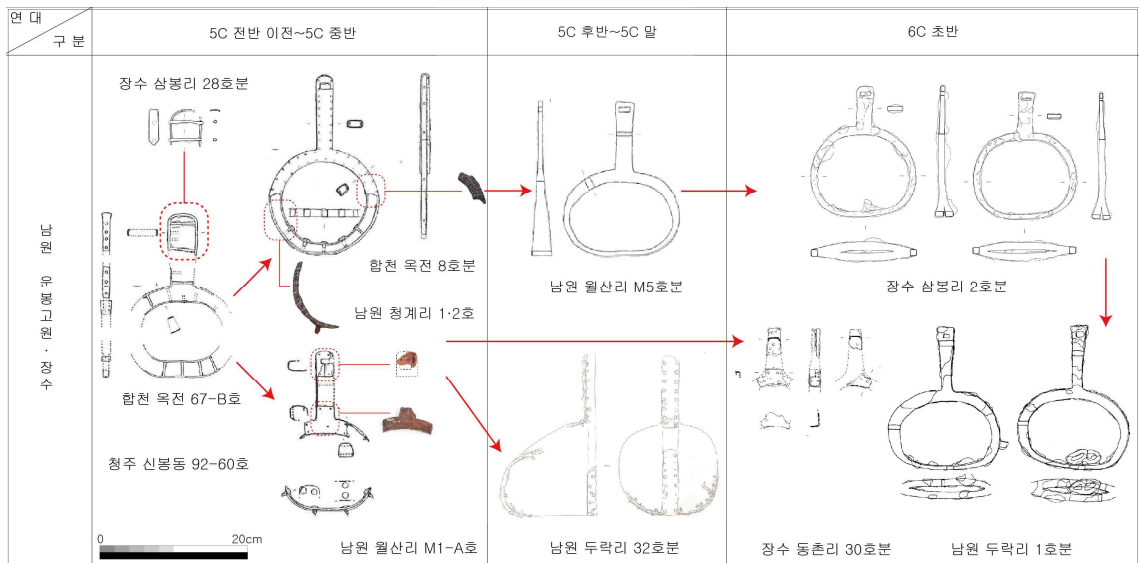


그림 4. 장수·남원 운봉고원 등자의 전개

등자는 전체가 철로 제작된 철제윤등(鐵製輪燈)으로 1쌍이 출토되었다. 병두는 폭의 변화가 없으며, 답수부는 2갈래로 나뉘어져 윤상부에 비해 폭이 현저히 넓다. 답수부

32) 류창환, 2012, 『가야마구의 연구』, 서경문화사, 167쪽.

33) 유명춘, 2016, 「장수 가야 철기 유물의 종류와 특징」,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학술 심포지엄 발표요지문』, 호남고고학회·장수군, 88쪽.

내부(발 딛는 면)에는 돌기 등이 형성되지 않고 평평하게 마무리되었다. 삼국시대 철 제윤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답수부의 형태가 1갈래(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사용)→2갈래(5세기 후반~6세기 중반, 6세기 전반 주로 사용)→3갈래(5세기 후반~6세기 전반)→광폭(6세기 전반~6세기 중반)으로 변화³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이러한 변천은 기수의 안정을 도모하여 다양한 기병 전술을 펼치기 위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삼봉리 출토품은 답수부가 2갈래로 갈라져 있고 공반된 토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6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원 월산리 M5호분(5세기 후반)에서 출토된 철제윤등은 삼봉리 출토품과 유사하나 답수부가 1갈래로 이른 시기의 형태를 띤다. 또한 남원 두락리 1호분(6세기 전반) 출토품은 삼봉리 출토품과 동일한 2갈래의 답수부를 가지나, 내부(발 딛는 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어³⁶⁾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다.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세력도 철제 등자를 최신의 형태로 개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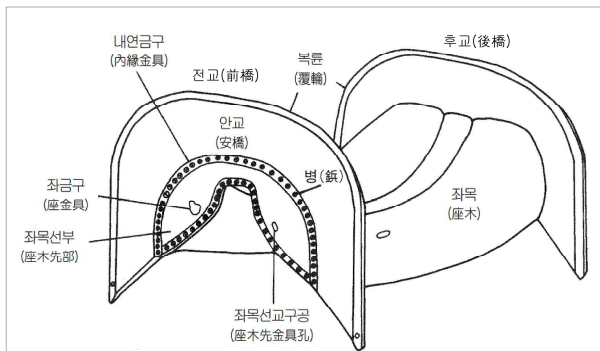


그림 5. 안장의 명칭(김두철 2001 수정 후 인용)

안장은 안교(鞍橋)에 설치되었던 내연금구(內緣金具) 2개와 좌목선교구 1개가 출토되었다. 내연금구는 ‘ㄱ’자상의 철대(鐵帶)로 제작되었으며 측면에서 못을 박아 목제(木製) 안교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전교(前橋)에 다른 하나는 후교(後橋)에 각각 설치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좌목선교구는 단면 방형의 철봉이 ‘ㄴ’자형으로 말려 상부에 고리가

형성되었으며 안교에 끼워졌던 하단부에는 세로 방향의 목질흔이 남아있다.

‘冂’자상의 철대와 못만으로 안교가 장식된 안장은 함안 451-1번지 유적 석곽·고성 내산리 8호·34호·합천 반계제 가-A호·함양 백천리 1호분·남원 두락리 1호분 등 6세기 전반 무렵 서부 경남 제 가야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³⁷⁾, 화성 마하

34) 류창환, 2007, 「삼국시대 철제등자에 대한 일고찰」, 『고고광장』 창간호, 296쪽.

35) 철제윤등의 변천을 보여줄 수 있는 속성으로는 답수부 이외에 병부의 형태(병부의 위와 아래의 폭이 동일한 'I'형에서 병부 위의 폭이 넓은 'T'형으로 변화)도 있으나 답수부보다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36)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비·사행상철기·등자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1집, 호남고고학회, 90쪽.

리 목곽묘·익산 입점리 1호 등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안장이 출토되어 기원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좌목선교구는 고성 내산리 34호분 출토품과 동일하다. 동일 형태 안장의 출현 시기, 공반된 토기와 마구의 연대 등을 고려할 때, 6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함양 백천리 1호분·합천 반계제 가-A호분·고성 내산리 34호분 등 서부 경남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무기

1) 철도

삼봉리 2호분 주석곽(2015)과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목병도와 환두대도가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또한 삼봉리 1-1호 석곽(2005)에서는 도굴로 인해 유물은 남아있지 않았으나, 환두대도의 부장 흔적이 확인되고 환두대도의 것으로 추정되는 봉부편이 1점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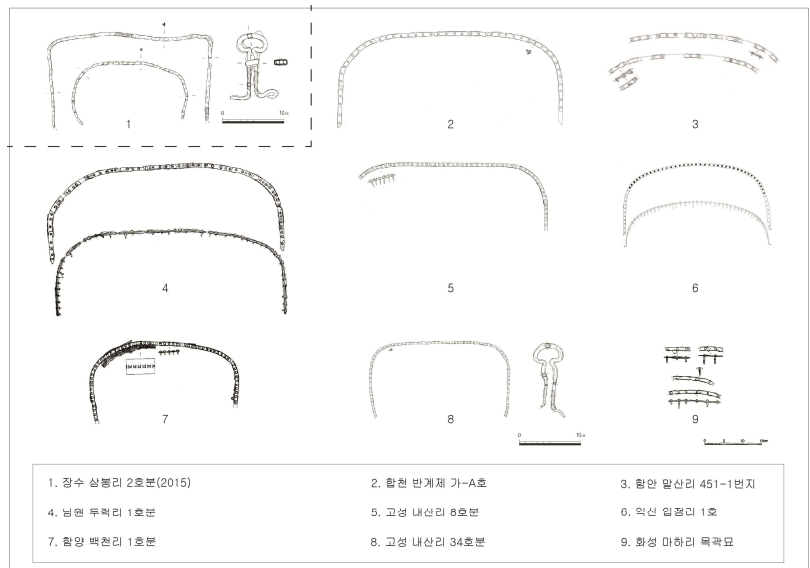


그림 6. 장수 삼봉리 2호분 출토 안장과 비교자료

삼봉리 2호분 출토 목병도는 전체 길이가 61.8cm로 관부는 양관이며, 나무 자루(柄部)를 고정하기 위한 못 1개 뚫려있다. 관부 외면에는 나무 자루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한 병연금구가 둘러졌다. 삼국시대 (목병)도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은 관부(關部)의 형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관(無關)→편관(片關)→양관(兩關)’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편관→양관의 변화 시점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무렵으로, 삼봉리 2호분 출토 목병도는 관부가 양관기 때문에 신식(新式)의 속성을 갖추

37) 이현우, 2012, 「삼국시대 안장의 구조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5쪽.

38) 정정용, 2000, 「중서부지역 3~5세기 철제무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42집, 한국고고학회, 128쪽; 이보람, 2009, 「금강유역 원삼국~삼국시대 환두도 연구」, 『한국고고학보』 71집, 한국고고학회, 78쪽.

표 2. 장수 가야 고분 출토 목병도 속성표

유적명	전체 길이	신부 길이	파부 길이	관부 형태	병연 금구	고정 방법	석곽 규모	연대
장수 노하리 3호	27.2	22.1	5.1	양관	유	못 없음	중형	5C 전
장수 삼봉리 2호분(2015)	61.8	50.8	11.0	양관	유	못 1개	대형	6C 전
장수 동촌리 2호분(2017)	70.6	58.9	11.7	양관	유	못 1개	중형	6C 전
장수 동촌리 30호분(2019)	66.2	56.4	9.8	편관	무	못 1개	중형	6C 전

고 있다. 삼봉리 2호분 출토품처럼 양관의 관부를 갖춘 목병도로는 장수 동촌리 2호분(2017) 출토품이 있으며, 장수 동촌리 30호분(2019) 출토품은 6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관의 관부를 가지고 있어 고식(古式)적 속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목병도는 늦은 시기까지 고식과 신식의 요소가 병존한다³⁹⁾.

한편, 장수지역에서는 장계리 8호분 출토품을 포함하여 삼고리 2-2호 석곽·동촌리 28호분(2020) 주석곽에서 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원형의 환두부와 병두금구만 남아있는 철제 소환두대도로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비교·검토가 불가능하다. 삼고리 2-2호 석곽 출토품은 오각형 환두대도의 분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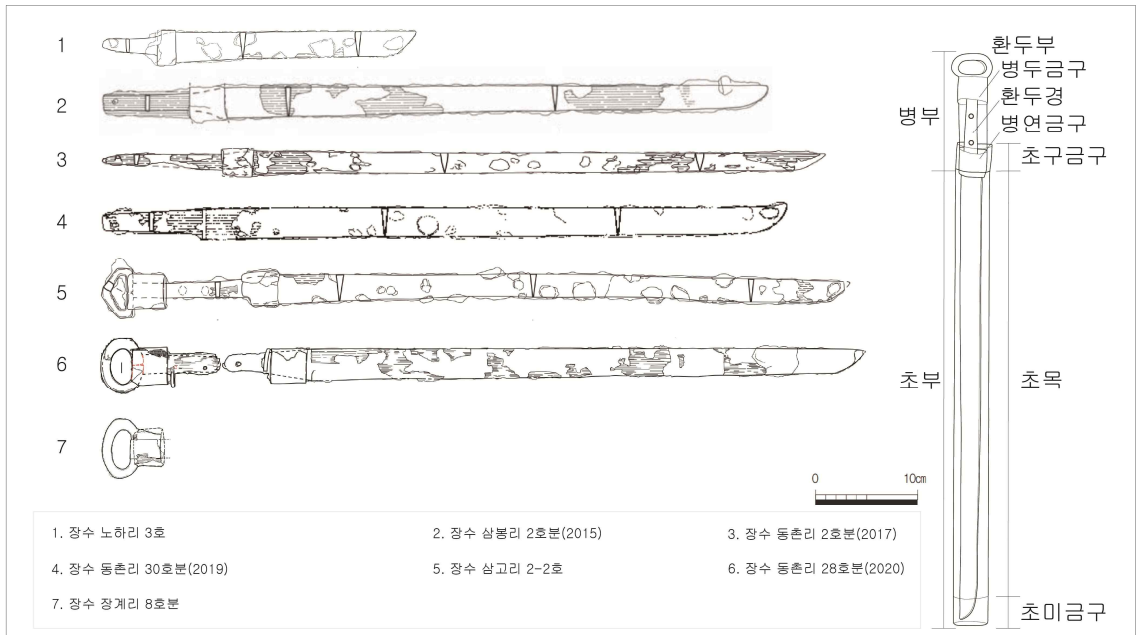


그림 7. 장수 가야 고분 출토 철도

39) 김승신, 2021, 「호남 동부지역 가야 제국(諸國) 무장의 추이」, 『호남고고학보』 70집, 호남고고학회, 133쪽.

등을 고려할 때, 마한·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⁴⁰⁾. 또한 동촌리 28호분 주석곽 출토 환두대도는 병부에 감긴 나선형의 철띠는 나주 북암리 정촌 1호 석실·나주 북암리 3호분·논산 표정리 신고품·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환두대도의 병부 장식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 장수 가야 고분 출토 환두대도의 제작기법

유적명 결합방법	장계리 8호분	삼고리 2-2호	동촌리 28호분 (2020)
환두 결합방법	접합형	접합형	접합형
병부 결합방법	-	결합형	결합형
관부	-	양관	양관
토기 연대	5세기 말	5세기 말	5세기 말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3점의 환두대도 모두 환두경(環頭莖)과 환두(環頭)를 따로 만들어 제작되었으나(접합형), 장계리 8호분 출토품은 환두경 선단을 ‘ㄷ’자상으로 구부려 환두를 감싼 후 접합되었으나 나머지 2점은 감싸지 않고 서로 맞닿은 채 접합되었다. 또한

병부와 도신의 결합방법을 살펴보면 삼고리 2-2호·동촌리 28호분 출토품 모두 따로 제작된 후 2개의 정(丁, 못)으로 결합되었으며(결합형), 관부는 양관이다. 이러한 제작방법은 전북지역에서 5~6세기 대의 환두대도가 제작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⁴¹⁾ 장수와 인접한 금산 등 금강 상류지역에서는 5세기 중반 이후에 유행했다⁴²⁾. 따라서 3점의 환두대도는 제작기법으로 보아 5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반된 토기의 연대가 모두 5세기 말로 설정되므로 5세기 말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병도와는 다르게 환두대도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신식의 제작기법이 모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오각형 환두대도는 논산 표정리 신고품·나주 정촌 1호·연기 송원리 KM-96호·오산 수청동 4-14호·서산 부장리 4호 분구 7호·합천 반계제 가A호·합천 옥전 8호분 등 마한·백제와 가야의 고지(古地)에서 모두 출토되었으나 마한·백제지역의 출토량이 현저히 많다. 고분의 연대를 고려할 때, 5세기 전반~6세기 전반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오산 수청동 4-14호 및 서산 부장리 4-7호 출토품이 5세기 전중반으로 앞서 백제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봉리 2-2호 석곽 출토품은 환두의 재질이 모두 철이고 세로 폭에 비해 가로 폭이 넓은 것으로 볼 때, 연기 송원리 KM-96호·나주 정촌 1호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어 마한·백제 소환두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고리 2-2호 석곽에서 삼족토기 및 단경호가 출토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41) 이영범, 2009, 「6세기 이전에 제작된 소환두대도의 병부 제작기법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쪽.

42) 이보람, 2009, 앞의 논문, 19~29쪽.

2) 철모

삼봉리 1-1호 석곽(2005)·삼봉리 2호분 주석곽(2015)·호덕리B 4호분 주석곽(2020)에서 철모가 각 1점씩의 출토되었다.

가야를 포함한 삼국시대 철모는 ‘전체 길이가 길고 신부의 폭이 넓으며 관부(關部)가 있는 것’에서 5세기 전반 이후부터 ‘길이가 22cm 내외로 짧고 신부의 폭이 좁으며 관부가 없는 형태’, 즉 찌르기 적합한 형태로 변한다⁴³⁾. 삼봉리 1-1호 석곽·호덕리B 4호분 석곽 출토품은 길이 21cm내외이며 관부가 없어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호덕리 출토품은 하단이 일직선(直基形)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삼봉리 출토품은 ‘^’자상(燕尾形)으로 제작되었다. 삼봉리 출토품과 유사한 사례로는 동촌리 1호분(2005)·동촌리 28호분 출토품이 있으며, 호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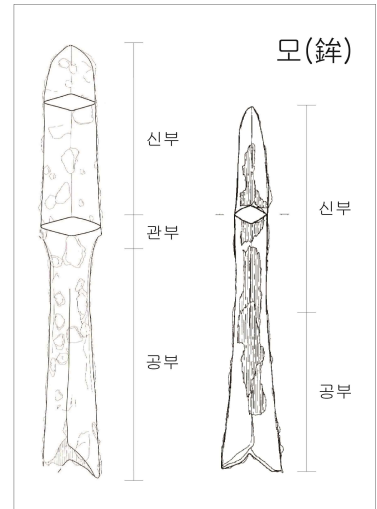


그림 8. 철모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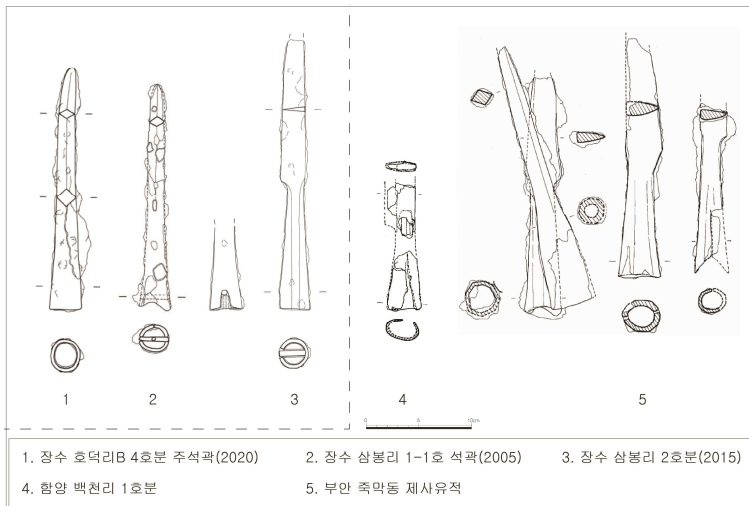


그림 9. 백화산 고분 출토 철모와 비교자료

출토품은 삼고리 13호 석곽(1998)·월산리 M4호분 출토품 등과 유사하다. 현재의 자료로 보아 장수지역에서는 이러한 철모가 5세기 말 무렵부터, 남원 운봉고원에서는 5세기 중반 이른 시기(청계리 2호 석곽)부터 등장⁴⁴⁾하기 시작한다⁴⁵⁾. 철모의 형태적 변화와 공반된 유물로 보아 삼봉리 1-1호 석곽·호덕리B 4호분 주석곽

43)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량 생산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한다(우병철, 2015, 「대가야 철제무기의 특성과 확산」,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66쪽.).

44) 3점 중 2점은 관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관부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양상을 잘 보여준다.

45) 최신의 철모가 장수보다 남원 운봉고원에 대형 석곽을 중심으로 먼저 부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철모뿐만 아니라 다른 무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 장수보다 남원 운봉고원 대형 석곽에 최신의 무장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출토된 2점의 철모는 공반된 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당시 가야 지역에서 유행하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삼봉리 2호분 주석곽(2015)에서 출토된 도형(刀形) 철모는 한쪽 면에 날이 형성되어 있어 찌르기보다 베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이러한 도형 철모는 삼국시대 고분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지 않으며, 고령·합천 등 가야 고분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대가야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3점 출토되었으며, 함양 백천리 1호분 주석곽에서 도형 철모편으로 추정되는 철기가 1점 수습되었다. 고분에서만 출토되었고 일반 철모에 비해 출토 수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아 실용품으로 제작되었을지 의문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수·함양 두 지역에 공통된 철모 제작기술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5세기에 접어들면 고령과 합천의 가야고분에서 전체 길이가 22cm 내외로 짧고 관부가 없으며 공부의 단면 형태가 다각형인 철모가 다수 출토된다. 이견은 있으나⁴⁶⁾ 공부의 단면 형태가 다각형인 점을 주요 특징으로 보고 소위 ‘대가야계 철모’로 인식하기도 한다⁴⁷⁾.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원 운봉고원·장수에서 출토된 철모 중 삼봉리 1-1호분에서 출토된 도형 철모를 제외하고 모두 공부의 단면이 원형을 이루고 있어 전형적인 대가야계 철모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령·합천 등 대가야권에서 제작된 철모가 이 지역으로 이입되었다기보다 5세기 전반 이후의 삼국에서 유행하던 철모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자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하리 2호 석곽과 동촌리 28호분에서 출토된 철모는 전반적인 형태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그것과 전반적인 형태가 달라 현지에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철촉

삼봉리·호덕리·장계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촉은 총 83점이나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분석이 가능한 철촉의 수는 45점에 불과하다. 철촉은 촉두(鏃頭)의 형태에 따라 사두형(蛇頭形)·유엽형(柳葉形)·도자형(刀子形)·광폭역자형(廣幅逆刺形)으로 분류되며, 사두형·유엽형·도자형 철촉은 신부의 길이(촉두~경부(頸部))의 길이에 따라 중신촉(中身鏃)과 단신촉(短身鏃)으로 세분된다. 신부 길이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작성해보면 사두형은 5.7cm를 기준(5.7cm 미만 단신촉, 5.7cm 이상 중신촉)으로, 유엽형과 도자형은

46) 이러한 형태의 철모를 ‘백제계 철모’로 보고 백제에서 기원하여 대가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길식, 1994, 「三國時代 철모의 變遷 : 百濟系 철모의 認識」, 『백제연구』 24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68~71쪽.). 또한 4~5세기 대 마한 분묘유적으로 알려진 완주 상운리 유적에서도 5세기 이후 동일한 형태의 철모가 부장된다.

47) 우병철, 2015,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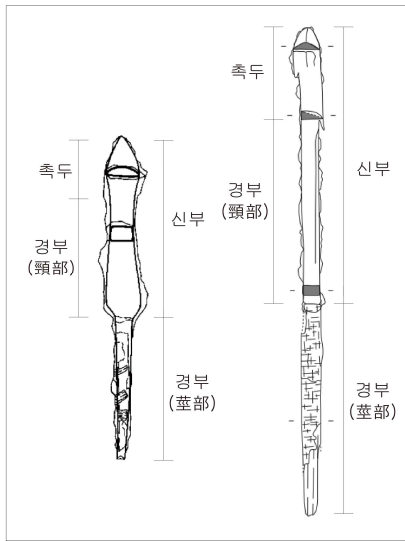


그림 10. 철촉의 명칭

6.3cm를 기준(6.3cm 미만 단신촉, 6.3cm 이상 중신촉)으로 중신촉과 단신촉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⁸⁾. 촉두의 형태와 신부의 길이를 반영한 철촉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유구별 출토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백화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촉 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유엽형 철촉으로, 단신촉에 비해 중신촉의 수량이 많다. 사두형과 도자형은 단신촉의 수량이 월등한데, 중신촉이라 할지라도 단신촉에 가깝다. 대형 석곽묘인 삼봉리 2호분 주석곽에서는 사두형·유엽형·도자형·광폭역자형 철촉이 모두 출토되며, 중형·소형 석곽묘에서는 두 종류 이상의 철촉이 함께 출토되거나 하나의 유형이 단독으로 출토되어 위계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중형인 경우 중신촉과 단신촉이 함께 부장되며, 소형인 경우 단신촉 위주로 부장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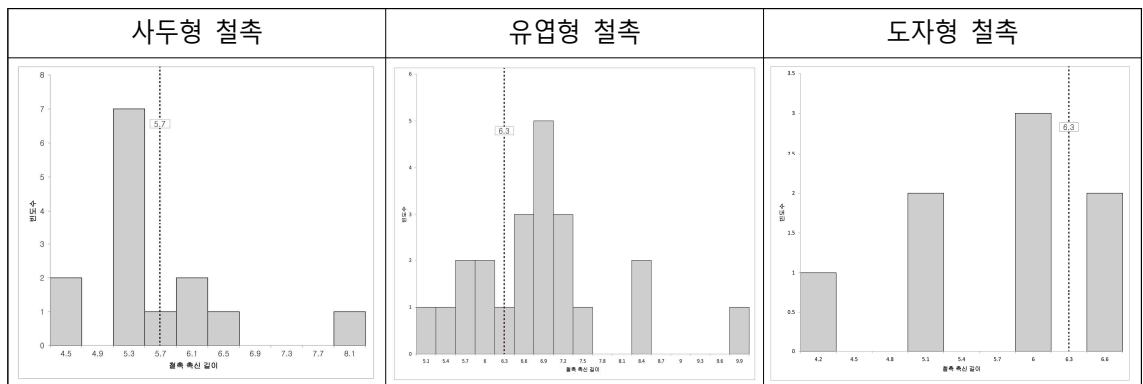


그림 11. 백화산 고분 철촉의 유형별 히스토그램

표 4. 백화산 고분 철촉의 분류

유형	구분	내용
사두	단신	촉두 모서리 있음 · 장단비 2:1 미만, 신부 5.7m 미만
	중신	촉두 모서리 있음 · 장단비 2:1 미만, 신부 5.7m 이상
유엽	단신	촉두 모서리 없음 · 장단비 2:1 이상, 신부 6.3m 미만
	중신	촉두 모서리 없음 · 장단비 2:1 이상, 신부 6.3m 이상

사두형·유엽형 철촉은 대형~소형의 석곽묘에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전반 이후까지 모두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48)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사두형 철촉은 5.5cm·9cm를 기준으로 단·중·장신촉으로 분류되며, 유엽형과 도자형은 신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6.5cm·10cm를 기준으로 나뉜다.

도자	단신		촉두 도(刀) 형태, 신부 6.3m 미만
	중신		촉두 도(刀) 형태, 신부 6.3m 이상
광폭역자형			촉두 도(刀) 형태, 신부 6.3m 이상

백화산 고분군 조영 세력의 주력촉(主力 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두형 철촉

은 철소재를 마름모꼴로 잘라 제작되기 때문에 다른 철촉에 비해 제작이 간편하고 철 소재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⁹⁾. 또한 사두형 철촉에서 촉두의 모를 죽이고 세로로 길게 제작한 것이 유엽형 철촉이므로 사두형과 마찬가지로 제작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작이 용이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두 종류의 철촉이 이 지역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자형 철촉은 5세기 말의 삼봉리 1-2호 부곽(2005)과 2호 석곽(2000)에 부장되기도 하나, 6세기 전반 이후의 소형 석곽에서도 출토된다. 모두 촉두가 짧은 형태를 띠고 있어 6세기 전반 무렵의 도자형 철촉의 말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역자형 철촉은 삼봉리 2호분 주곽에서 1점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규모가 대형인 유구에서만 출토되었고 촉두가 광형(廣形)을 띠고 있어 실전용보다 위신제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⁰⁾.

표 5. 백화산 고분 철촉의 유구별 현황

유구	사두		유엽		도자		역자	수량
	단	중	단	중	단	중		
삼봉리 1-2호 부곽(2005)	1							1
삼봉리 2호분 주곽(2015)	1		3	3			1	8
삼봉리 2호 석곽(2000)	5	2			1			8
삼봉리 16호분 주석곽(2020)	1				2	2		5
삼봉리 19호분 4호 석곽(2020)	2	1						3
삼봉리 3호 석곽(2015)				3				3
삼봉리 3-1호 석곽(2017)		1		5				6
장계리 9호분 주석곽(2022)	1		3	5				9
호덕리 A-1-6호 석곽(2000)					2			2
수량	10	4	6	16	6	2	1	45
	14		22		8		1	

표 6. 백화산 고분 철촉의 시기 및 규모별 현황

시기	유구	사두		유엽		도자		역자	수량	규모
		단	중	단	중	단	중			
5C 말	삼봉리 2호 석곽(2000)	5	2			1			8	소
5C 말	삼봉리 1-2호 부곽(2005)	1							1	소 (부곽)
6C 전	삼봉리 2호분 주곽(2015)	1		3	3			1	8	대
6C 전	장계리 9호분 주석곽(2022)	1		3	5				9	중
6C 전	삼봉리 3-1호 석곽(2017)		1		5				6	중
6C 전	삼봉리 19호분 4호 석곽(2020)	2	1						3	소
6C 전	삼봉리 3호 석곽(2015)				3				3	소
6C 전	호덕리 A-1-6호 석곽(2000)					2			2	소
6C 전 이후	삼봉리 16호분 주석곽(2020)	1				2	2		5	중
수량		10	4	6	16	6	2	1	45	
		14		22		8		1		

장수지역 가야고분에서 출토된 철촉은 촉두의 형태에 따라 사두형·유엽형·도자형·역자형·광검형 철촉으로 분류된다. 이 중 사두형·유엽형 철촉은 5세기 후반 이전부터, 도자형 철촉은 5세기 말 무렵부터 주력촉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화산 고분군처럼 사두형과 유엽형 철촉이 주로 부장되는 모습은 노하리·동촌리 고분군과

49) 김승신, 2021, 앞의 논문, 135쪽.

50) 유명춘, 2017,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7집, 호남고고학회, 55쪽.





















연대	장수											
	도자형				사두형			유엽형			역자형	광검형
	장	중	단	이형	장	중	단	장	중	단		
5C 전반												
5C 중반												
5C 후반												
5C 말												
6C 전반												
출토 유구	①삼고리 3-1호 ②삼고리 13호 ③노하리 2호 ④노하리 2-2호 ⑤노하리 1-1호 ⑥동촌리 28호(2020) ⑦삼고리 2-2호 ⑧삼봉리 2호(2000) ⑨·⑩·⑪·⑫삼고리 2-2호 ⑬삼봉리 16호본 ⑭삼고리 3-6호 ⑮삼고리 3-4호(토광) ⑯·⑰삼봉리 3-1호(2017) ⑱·⑲삼봉리 2호본 주곡(2015) ⑳삼고리 3-6호(토광)											

그림 12. 장수 가야 고분 출토 철촉의 전개

동일하다. 그러나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백화산 고분군에서 찾을 수 없는 역자형·광검형 철촉도 부장되어 차이가 있다. 삼고리 2-2호 석곽 출토 도자형 철촉은 백화산 출토품보다 촉두를 비롯한 촉신의 길이가 중신 이상으로 현저히 길어 살상력이 증대된 형태를 띤다(그림 12의 ⑥번). 동촌리 28호분 1호 석곽에서도 도자형 촉두가 출토되었는데(그림 12의 ⑦번), 비율로 보아 삼고리 2-2호 석곽 출토품처럼 중신 이상의 철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는 석곽의 규모가 중형에, 후자는 대형에 속하며, 고분의 조성 시기는 양자 모두 5세기 말로 편년된다.

후기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철촉은 6세기 전반에 이르면 단신촉으로 알려져 있다⁵¹⁾. 백화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촉의 변화 양상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어 이 지역 가야의 쇠퇴기 철촉의 부장양상을 잘 보여준다.

3. 단야구

장수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망치·집게·모루로 구성된 단야구가 세트로 출토되었다. 북쪽 단벽에 치우쳐 배·방추차·철검 등과 함께 부장되었다. 단야의 핵심 도구인 망치(鎚)는 철 소재를 타격하기 위한 도구이나 단독으로 출토될 경우 공구(工具)로 이해되기도 한다.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망치는 길이 6.4cm·너비 2.1cm·두께 0.6~

51) 장상갑, 2010, 「후기가야의 군사조직에 대한 연구」, 『영남고고학회』 54, 영남고고학회, 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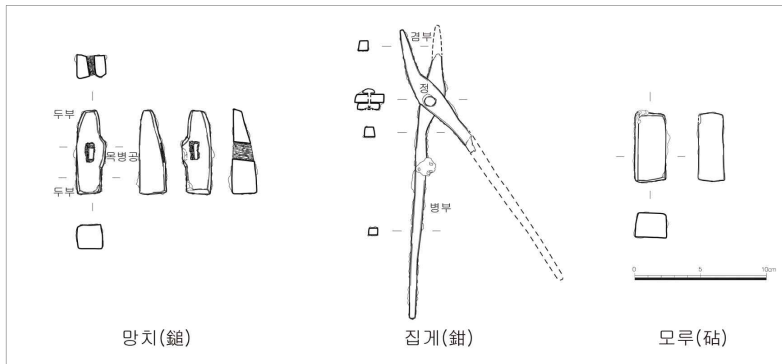


그림 13. 장수 장계리 8호분 단야구

1.8cm로 한쪽 두부는 두꺼우나 다른 한쪽은 선단부로 갈수록 점차 얇아진다. 두부는 충격에 의해 약간 눌렸을 뿐만 아니라 사용흔이 관찰되며⁵²⁾, 중앙에는 장방형의 목병공(木柄孔)이 있다. 집게(鉗)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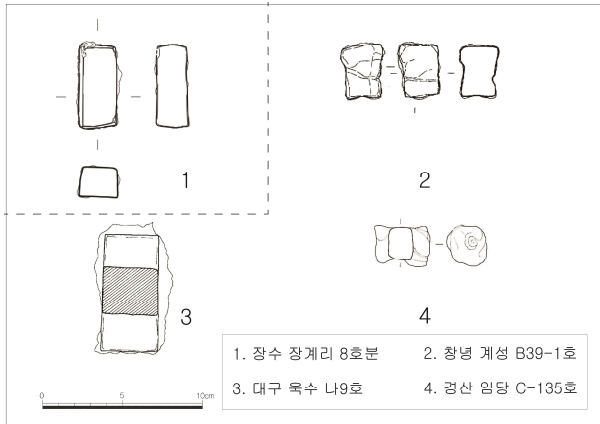


그림 14. 장수 장계리 8호분 모루 및 비교자료

가열된 철기 또는 철소재를 집기 위한 도구로 이를 사용해야 원하는 위치에 타격이 가능하다. 장계리 8호분 출토 집게는 전체 길이가 21.9cm로 견부(鉗部, 집게 부분)와 병부(柄部, 손잡이부)가 일부 결손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나 1/3지점에서 정(釘, 못)으로 연결되었다. 모루(砧)는 가열된 철 소재를 받치기 위한 도

구로 철뿐만 아니라 석재로 제작되기도 한다. 장계리 모루는 길이 6.4cm·너비 2.1cm·두께 0.6~1.8cm로 크기가 매우 작는데, 유사한 사례로 창녕 계성 B39-1호·대구 옥수 나9호·경산 임당 DⅡ-47호·경산 임당 C-135호 출토품 등이 있다. 특히 창녕 계성 B-3호·경산 임당 C-135호 출토품은 장계리 8호분 출토품보다 더 작는데 주름진 사용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실용품일 가능성이 있다. 장계리 출토품에서도 사용흔으로 추정되는 눌린 흔적이 관찰되어 실제 단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계리 8호분 출토 단야구는 크기가 작아 축소모형철제농공구(縮小模型鐵製農工具)처럼 고분 부장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비실용품(非實用品)일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망치와 모루에서 사용흔을 일부 찾을 수 있어 실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5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2, 『長水 長溪里 古墳群 -8·9號墳-』, 80쪽.

단야는 철소재나 반제품을 가열 및 단타하여 단조철기를 제작하는 모든 공정을 일컫는데⁵³⁾, 목적에 따라 정련단야·단련단야·성형단야로 세분된다. 정련단야는 가열을 통해 불순물을 녹여 없애는 정련이 목적이고, 단련단야는 단접·담금질을 통해 불순물을 타출시키고 조직을 단련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성형단야는 정제된 철소재로 형태를 잡고 추가로 가공하여 철기를 완성하는 최종 단계이다⁵⁴⁾. 단야구는 크기에 따라 사용되었던 세부 공정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⁵⁵⁾. 정련단야와 단련단야는 불순물과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의 철소재를 집어 넓은 범위로 타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중형의 망치와 집게⁵⁶⁾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소형의 망치와 집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철물을 좁은 범위로 세밀하게 타격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성형단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7. 삼국시대 단야구 출토 고분의 성격

연구자	연구대상	내용	비고
차순철 ⁵⁷⁾	삼한~통·신 단야구	대형고분+위세품 : 단조작업을 운영·관리하던 사람	
		중·소형고분+단야구 세트 : 단조작업에 종사했던 장인	
김은주 ⁵⁸⁾	영남 삼국시대 단야구	대형고분+위세품 : 한 지역 내 단야집단을 관할했던 수장	
		중·소형고분+단야구 세트 : 단야에 직접 참여했던 야장(冶匠)	
김도현 ⁵⁹⁾	울산 삼국시대 단야구	대형고분 : 단야집단을 관할했던 수장	단야의 사회적 중요성이 상승함에 따라 특정시기 부장
		중·소형고분 : 단야에 직접 참여했던 야장(冶匠)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단야구가 실제 철 생산에 사용되었다면, 모두(망치·집게·모루) 크기가 작고 망치가 세밀한 가공에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⁶⁰⁾ 성

53)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2, 『한반도의 제철유적』, 753쪽.

54) 김권일, 2017, 「고대 큰대장간 노 구조 및 조업방식 복원 시론 -경주 황성동·밀양 임천리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3, 한국고고학회, 85쪽.

55) 망치와 집게는 클수록 단야과정 중 1차 공정에, 작을수록 성형 등 2차 가공 등 정교한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김승욱·이보람, 2011, 「原三國~三國時代 鍛冶具 研究 -完州 上雲里遺蹟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9권, 중앙문화재연구원, 57~60.).

56) 망치는 소형(6.5cm 미만)·중형(10.5cm 이상~13.5cm 미만)·대형(13.5cm 이상)으로 구분되며, 집게는 소형(27.7cm 미만)·중형(27.7cm 이상~40.3cm 미만)·대형(40.3cm 이상)으로 나뉜다(김승욱·이보람, 2011, 앞의 논문.).

57) 차순철, 2003,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 『문화재』 3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58) 김은주, 2006, 앞의 논문.

59) 김도현, 2007, 「울산지역의 고대 단야구 부장양상 검토」, 『고고광장』 창간호, 부산고고학연구회.

60) 장계리 8호분에서 출토된 망치의 한쪽 끝은 두꺼우나 다른 한쪽은 점차 가늘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망치는 섬세한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김승욱·이보람, 2011, 앞의 논문) 오늘날 대장간에서 '다듬망치'로 불린다(김은주, 2006, 「三國時代 鍛冶具 研究 -嶺南地方을 중심으로-」,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52쪽.).

형단야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⁶¹⁾. 아마도 백화산 고분군에서 모든 계층을 통틀어 기본적으로 부장되고 있는 철도자·철부·화살촉 등의 소형의 철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거나 대·중형의 철기의 일부를 세밀하게 가공할 때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단야구를 부장하고 있는 장계리 8호분의 피장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대 단야구에 대한 종래 연구자 간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즉 고분의 규모가 크고 위세품이 출토되며 단야구가 집게 등 개별로 부장되는 경우 단야집단을 관리했던 지역의 수장(首長)으로 해석되며, 고분이 중·소형이고 위세품의 공반 예가 적거나 없으며 단야구가 세트(망치·집게·모루 등)로 부장된 경우에는 철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야장(冶匠)으로 이해한다.

장계리 8호분의 주석곽은 고분의 중앙에 위치하며, 주변에 길이 1.9m 내외의 소형 석곽으로 보이는 유구 4기가 분포한다. 주곽의 규모가 면적 2.7㎡(길이 3.6m×너비 0.7~0.8m) 내외로 장수지역 가야 고분 중 중형에 해당하고 단야구는 세트로 출토되었으며, 비록 도굴되었으나 배·단경호 등의 토기·환두대도·철검·옥 등이 공반되었다. 종래 연구성과에 비추어볼 때, 장계리 8호분의 피장자는 지역의 단야 집단을 관리했던 수장이라기보다 철기 생산(단야)에 직접 종사했던 야장(冶匠)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²⁾. 고대에 철기 생산 기술은 집단의 발전 및 생존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야장(철 생산집단)의 사회적 지위는 후대의 야장에 비해 현저히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⁶³⁾. 장계리 8호분의 구조와 규모·단야구와 공반된 여러 유물들은 야장의 높았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자료로 보아 마한·백제의 단야구는 4세기 중반~5세기 중반 무렵까지 집중적으로 부장되나⁶⁴⁾, 신라·가야의 단야구는 5세기~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장되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⁶⁵⁾. 장계리 8호분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분의 구조 및 출토 유물의 성격을 제외한 단야구의 부장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마한·백제가 아닌 가야 문화권 속에서 이러한 유물이 부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장계리 8호분의 피장자는 출토된 단야구로 보아 실제 철기 생산에 참여했던

61) 소형 단야구에 대해 철을 포함한 금·은·동 등 비철 금속의 가공 도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비철금속의 경우 가공에 집게 등의 사용 가능성이 낮고 백화산 고분군을 포함한 장수지역 가야 고분에서 비철금속 유물의 출토 사례가 적어 철기 제작을 위한 단야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2) 철 생산에 직접 참여했던 장인 중에서 지위가 높았던 인물, 즉 야장의 우두머리로 추정된다.

63) 철 생산 기술이 점차 보편화되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야장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64) 김승옥·이보람, 2011, 앞의 논문, 71쪽.

65) 김은주, 2006, 앞의 논문, 69쪽.

야장의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부장된 단야구가 실제로 사용된 것인지, 고분 부장을 위해 비실용품으로 제작된 것인지⁶⁶⁾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양자 모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철기 생산을 상징한다. 따라서 장수지역의 가야 세력들은 자체적인 철기 생산 기술을 보유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현지에서 철기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백화산 고분 철기유물의 의미 : 맺음말을 대신하여

전장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 백화산 고분군 철기유물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분에 부장된 철기 유물의 종류와 부장양상을 통해 고분의 위계와 전술 등을 거시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다. 백화산 고분군 중에서 마구와 대도가 함께 출토된 삼봉리 고분군이 호덕리·장계리 고분군에 비해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도의 경우 환두대도는 위계가 높은 만큼 신식의 제작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목병도는 6세기 전반까지 고식(편관)의 형태가 제작된다. 또한 도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고분에서 석곽의 규모를 막론하고 철촉이 균일하게 출토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전투 시 다른 무기보다 사병기가 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장수를 비롯한 주변지역이 주로 산지(山地)인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협소한 지형 때문에 기병을 활용한 전술보다 활을 지닌 보병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보병들은 전투에 필요한 활만 소지한 채 활약했던 경장(輕裝)보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또는 중형 석곽에서만 마구와 (환두) 대도·철모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무장들은 수장 또는 지휘관만 한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철기 유물을 통해 인접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삼봉리 2호분에서 출토된 환판비(재갈)로 보아 고령 등 대가야 중심권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고령과 장수 두 지역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재갈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6세기 전반 무렵에 마장(馬裝) 문화에 있어 긴밀한 교류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안장과 도형 철모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보면, 인접한 함양·합천 등 서부 경남지역과의 관련성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백화산 고분군 피장자는 고령뿐만 아니

66) 설령 단야구가 고분 부장을 위한 비실용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행했던 철기생산(단야)을 상징했을 것이다. 따라서 고분군 축조 세력은 철기 생산 기술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함양·합천 등 서부 경남지역과도 교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야를 장수 전 지역으로 넓혀보면 장수지역의 가야가 주변 지역과의 더욱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삼고리 2-2호 석곽에서 출토된 환두대도 등에서 백제와의 관련된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며, 동촌리 1호분(2015)에서 출토된 편자는 가야 권역에서 유일하게 산청 평촌리 224호에서만 찾을 수 있어 장수·산청 간에 공통된 의례 행위가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하리·삼고리·동촌리 고분군 등에서 마한·백제·신라⁶⁷⁾·소가야 토기를 비롯하여 금제이식 및 채색옥 등의 위세품을 통해서도⁶⁸⁾ 이 지역의 가야가 자고개·방아재·육십령 등 주요 길목을 따라 주변과의 다방면으로 교류했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세 번째, 고분에서 출토된 철기유물과 단야구는 장수지역의 가야가 철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음을 보여준다. 앞선 검토에 따르면, 삼봉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비(재갈)의 구조적 차이와 장수지역에서 출토된 공부 단면 원형의 철모 등으로 볼 때, 철기유물들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촌리 1호분(2015)에서 출토된 편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편자에 정(丁, 못)이 박혀있고 말뼉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실제 살아있던 말 발굽에 착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제(裝蹄) 과정에서 편자가 맞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즉시 변형시켜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단야 기술이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철기 유물들의 자체 생산과 관련된 단야구가 장계리 8호분에서 세트로 출토되었다. 고분의 피장자는 철기 생산을 담당했던 야장(冶匠)의 우두머리로, 장계리 8호분이 조성되던 5세기 말 이전에 장수지역에 철기 생산기술(鍛冶)이 분명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단야구의 크기가 작아 이 지역 가야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철촉·철도자 등 소형 철기를 제작(성형단야)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군에는 그동안의 지표조사를 통해 7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⁶⁹⁾. 특히 백화산 고분군 동쪽에 위치한 명덕리 부근에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한다. 현재까지 장수지역 가야에 의해 운영된 제철유적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제철유적은 원료 및 연료 산지를 중심으로 누대로 조성되는 특징이 있어 향후 이 시기의 제철유적이 조사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67) 유수빈, 2021, 「전북 동부지역 신라 진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쪽.

68) 전상학, 2019,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학술심포지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46쪽;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 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98~102쪽.

69) 광장근, 2017,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현황과 그 의미」, 『호남고고학보』 75집, 호남고고학회, 9·10쪽.

「장수 백화산 고분군 출토 철기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상민(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발표자는 호남지역의 철기와 철기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 동부지역의 철기문화를 통해 가야와 관계성을 이해하려는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발표문 역시 장계 분지의 대표적인 가야 고분군인 백화산 고분군에 부장된 철기를 중심으로 그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화산 고분군 내 부장된 토기를 기초로 함께 부장된 철기의 현황과 시간성을 제시하고, 매장시설의 규모에 기초하여 부장 철기의 위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구, 무기, 단야구를 중심으로 기종별 특징과 계통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① 마구를 포함한 무구는 한정된 소유가 이루어졌으며, 매장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철촉이 부장되는 현상을 통해 지형을 고려한 활 중심의 경장보병을 전술이라는 점을 추정하였다. ② 철기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고령뿐만 아니라 합천, 함양 등 서부 경남, 백제와의 관련성도 보이는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다방면의 교류관계를 추정됨을 밝혔다. ③ 철기류의 독자성과 단야구의 부장은 자체적인 철기 생산 기술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논지는 그동안 전북 동부지역 철기문화를 충실히 연구하여 온 발표자의 성과에 기반한 결론으로, 큰 틀에서는 토론자 역시 크게 다른 의견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론자의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발표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서두에서 철기의 시간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박천수, 2018)에 근거하여 백화산 고분군 내 부장된 토기의 선후 관계와 시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론에서도 환판비(재갈) 등 고령 등 대가야 중심권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결국 토기와 위세품 성격의 철기는 대가야와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접근하고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환판비와 등자, 철모, 철촉 등의 실제작, 단야구의 실사용을 언급하며 철기 자체 제작을 염두하고 있다. 결국 주요 무덤 부장품은 대가야의 영향을 받았지만, 철기류는 지역 내 자체적인 생산기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중요한 건 5세기 후반(박천수의 편년안) 대가야의 물질문화가 들어오면서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함께 들어오거나 그 이후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인지, 그 이전부터 철기 제작 기술이 존재하였으며 그 기술에 기초하여 대가야 철기류를 모델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즉, 본 발표문은 장수 백화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작성되면서 여기서 다루지 않은 5세기 후반 이전의 철기문화가 생략되었다. 장계분지 일대 5세기 후반 이전 철기문화는 어떤 특징과 계통이며, 그 속에 자체적인 철기제작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두 번째, 현지 제작과 관련하여 사례로든 삼봉리 2호분의 환판비의 함과 인수의 연결방법, 함유의 형태, 윤등의 돌기 개량, 철모의 전반적인 형태적 차이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환판비의 형태와 연결방법이 고령 지산동 44호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 지, 그 다른 특징이 보이는 유적(계통)의 사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경우 비로소 현지 제작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장계리 8호분 단야구와 모루의 사용흔적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제시한 도면에서는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실견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단야구 망치의 사용 여부는 양쪽 타격면의 눌림 등으로 판단한다. 모루 역시 타격면의 눌림이나 표면에 소결과 철녹 등이 관찰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계리 8호분 피장자의 위계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차순철, 2003)에 근거해 단야구 세트가 부장되는 경우 철생산에 직접 참여한 야장, 집계 등 개별 부장되는 경우 단야집단을 관리하였던 지역 수장이라고 보는 신라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즉 장계리 8호분의 단야구 세트를 부장한 피장자는 직접 종사하던 야장으로 수장급 위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인용한 경주 황성동유적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사례는 기원 1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철기생산기술이 발전되면서 단야구 부장은 이미 국가 단위의 관리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현상이다(김상민, 2021). 전북 동부지역 내 단야구의 희소성을 고려하면, 신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이동관의 지적처럼 공동체적 전업생산집단, 탈통제적·관리적 성격의 생산집단

을 구분(李東冠,2013)하여 살핀다면, 토론자는 전북 동부지역의 철기생산집단은 탈통제적·관리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생산자의 총괄자 역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 역시 각주를 통해 ‘야장의 우두머리’로 표기하고 있는데, 발표자가 생각하는 장계분지 내 장계리 8호분 피장자의 위계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고견을 듣고 싶다.

<표 1> 단야구와 철기생산집단의 상관(李東冠,2013;재정리)

공동체적 전업생산집단	탈통제적·관리적 성격의 생산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통제적 성격 ○ 공동체적 전업집단 ○ 형식의 획일화 ○ 일관성을 갖춘 철기생산 ○ 정형화된 제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통제적 성격에서 탈피 ○ 개별 공방 내 단야기술의 보급 ○ 형식의 다양화 ○ 철기생산의 일괄성 부족 ○ 비규격화된 제품 생산

참고문헌

- 김상민, 2021, 「무안 사창리 일원 부장철기에 대한 일고찰」, 『湖西考古學』50 (호서고고학회).
 박천수, 2018, 『가야문명사』, 진인진.
 李東冠, 2013, 「철제농공구와 단야관련유물로 본 한일교섭」, 『嶺南考古學』66 (嶺南考古學會).
 차순철, 2004,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 『문화재』36 (국립문화재연구소).

토기로 본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 목 차 -

I. 머리말

II. 유적 현황

1.장수 삼봉리 고분군 2.장수 삼봉리 고분군 3.장수 호덕리 고분군

III. 분묘자료로 본 장수 백화산 고분군

1. 입지 2.봉토의 규모 및 축조방법 3. 매장주체부 4.출토유물 검토

IV. 맺음말

I. 머리말

장수지역은 진안고원에 속한 지역으로 지정학적 위치상 고대 교통로의 중심지로 문화적 접이지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⁷⁰⁾. 이곳은 백제와 신라, 대가야의 각축장으로 다양한 문화가 보이는 지역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 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5~6세기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파악되었다⁷¹⁾.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큰 틀에서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고 있어 고분군 개개의 세부적인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70) 광장근, 2011, 「금강 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 상류지역』,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91쪽.

71)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第43輯,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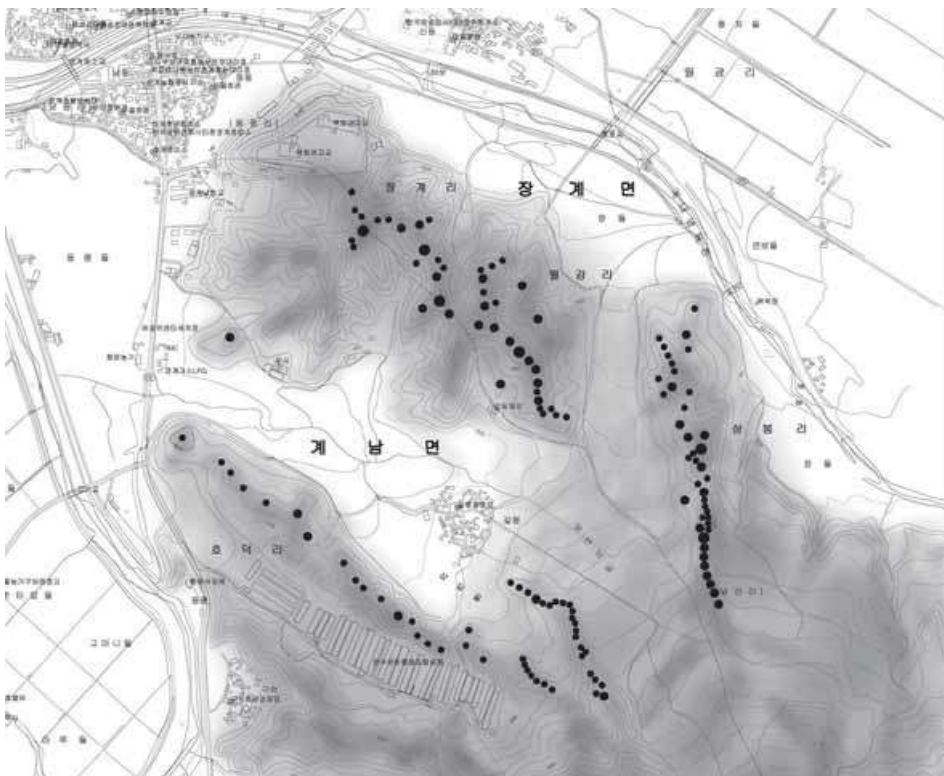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장수 백화산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여, 고총고분의 규모와 축조방법, 매장시설, 출토유물 등을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하여 고분군의 개략적인 지역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적현황

장수 백화산고분군은 장계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장계분지는 장수군 장계면과 계남면에 위치하며, 백제의 백이(해)군의 행정치소가 설치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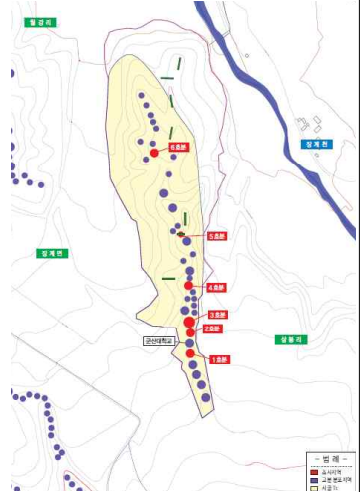


이 지역은 금강 최상류인 장계천이 흐르면서 주변에 넓은 충적지가 발달한 장계분지로, 분지 주변은 구릉이 펼쳐져 있고,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천혜의 요새이다.

고분군은 백화산(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맥에 자리하고 있다. 백화산 일대의 고총 분포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크게 계남면 호덕리고분군, 장계면 삼봉리고분군·장계리고분군⁷²⁾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고총 131기가 분포한다.



도면1. 장수 백화산고분군 위치 현황도(전상학2017)

<표1> 장수 백화산고분군 일원 고총고분 분포현황

연번	지표조사		발굴조사			비고
	유적명	기수	조사현황	고분명	주요유구	
1	삼봉리고분군	34	7	1호(군), 1~3·1619,24·25호 분	수혈식 석곽묘	
2	장계리고분군	63	2	8·9호분	수혈식 석곽묘	월강리고분군B+ 장계리고분군B 통합
3	호덕리고분군	34	1	4호분	수혈식 석곽묘	호덕리고분군B+C+D
계		97	10			
						
						
						
<p>도면2. 삼봉리고분군</p> <p>도면3. 장계리고분군</p> <p>도면4. 호덕리고분군B</p>						

1. 장수 삼봉리고분군73)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뺀어 내린 산줄기의 중간지점에 봉토 직경 20m 내외가 되는 2기의 고분과 그 아래쪽으로 직경 10m 정도의 고분 20여기가 2003년 발굴조사 당시

72) 장계리고분군B와 월강리고분군B는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되나 같은 구릉 내에 자리하고 있어 2017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군의 가야고분』) 이후 장계리고분군으로 통합되었다. 이하 장계리고분군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73)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고분군·동촌리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柳哲 外, 2015, 『長水 三峯里 古墳群』, (財)全州文化遺産研究員.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3호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16·19호분-』.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1·24·25호분-』.

에는 자리를 잡고 있었다.

1호분(군산대)의 봉분 형태는 동-서로 긴 타원형을 띠며, 봉토 가장자리에서 호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동-서 21m, 남-북 13m이다.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순장곽이 2기 배치된 다곽분이다. 또한 순장곽 사이에서 장란형토기로 조성한 합구식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광구장경호·장경호·발형기대 등 토기류와 껍쇠 16점, 교구 6점, 철검, 철도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고, 바닥면에서 환두대도가 부장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2호분은 1호분과 바로 연접된 고분으로, 봉토는 동-서로 긴 타원형이다. 규모는 동-서 길이 19.8m, 남-북 길이 11.0m, 잔존높이 약 3.4m이다. 봉토에서 호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석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3기,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주변에서 수혈식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2호분 주석곽의 양 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柱孔)이 확인된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단경호, 발과 같은 토기류, 교구, 등자, 재갈, 안교 등의 마구류와 철촉, 철모, 철부 등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3호분의 봉분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동-서 길이 26m, 남-북 길이 17m이다. 주석곽을 중심으로 석곽묘와 토광묘가 확인된다. 세장방형의 주석곽 내에서 8개의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단경호, 심발형토기와 마구 및 마구 장식류로 재갈, 안장가리개, 운주 등이 출토되었다.

2. 장수 장계리고분군⁷⁴⁾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 가운데 장계면 소재지까지 뻗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한다. 이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고분이 자리하고 있으며, 직경 20m내외의 대형분과 10~15m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8호분의 봉분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남-북 길이 11m이다. 봉토에서 호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석곽과 소형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배와 집게·망치 등의 단야구, 철검, 방추차, 환두도편, 이식편, 옥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야구가 발견된 점인데, 이를 통해 장수지역에서 철기제작 관련유적의 존재가

7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2, 『장수 장계리고분군 -8·9호분-』.

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장수 호덕리고분군⁷⁵⁾

장수 호덕리고분군(C·B·D)은 낮고 완만한 구릉에 분포하며, 고분은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34기가 배치되어 있다. 고분의 규모는 직경 5~15m 내외이며, 봉분은 개간과 도굴 등으로 인해 유실된 상태이다.

장수 호덕리고분군D⁷⁶⁾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구간에 해당되어 1997년(전북대박물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 11기의 석곽묘가 조사된 바 있다. 석곽묘 가운데 규모가 큰 1호와 9호는 장축길이가 400cm 이상이며, 2호·8호는 200cm 미만, 나머지는 200~300cm 내외이다. 유물은 개배, 단경호, 장경호, 광구장경호, 철도자, 철촉, 철부 등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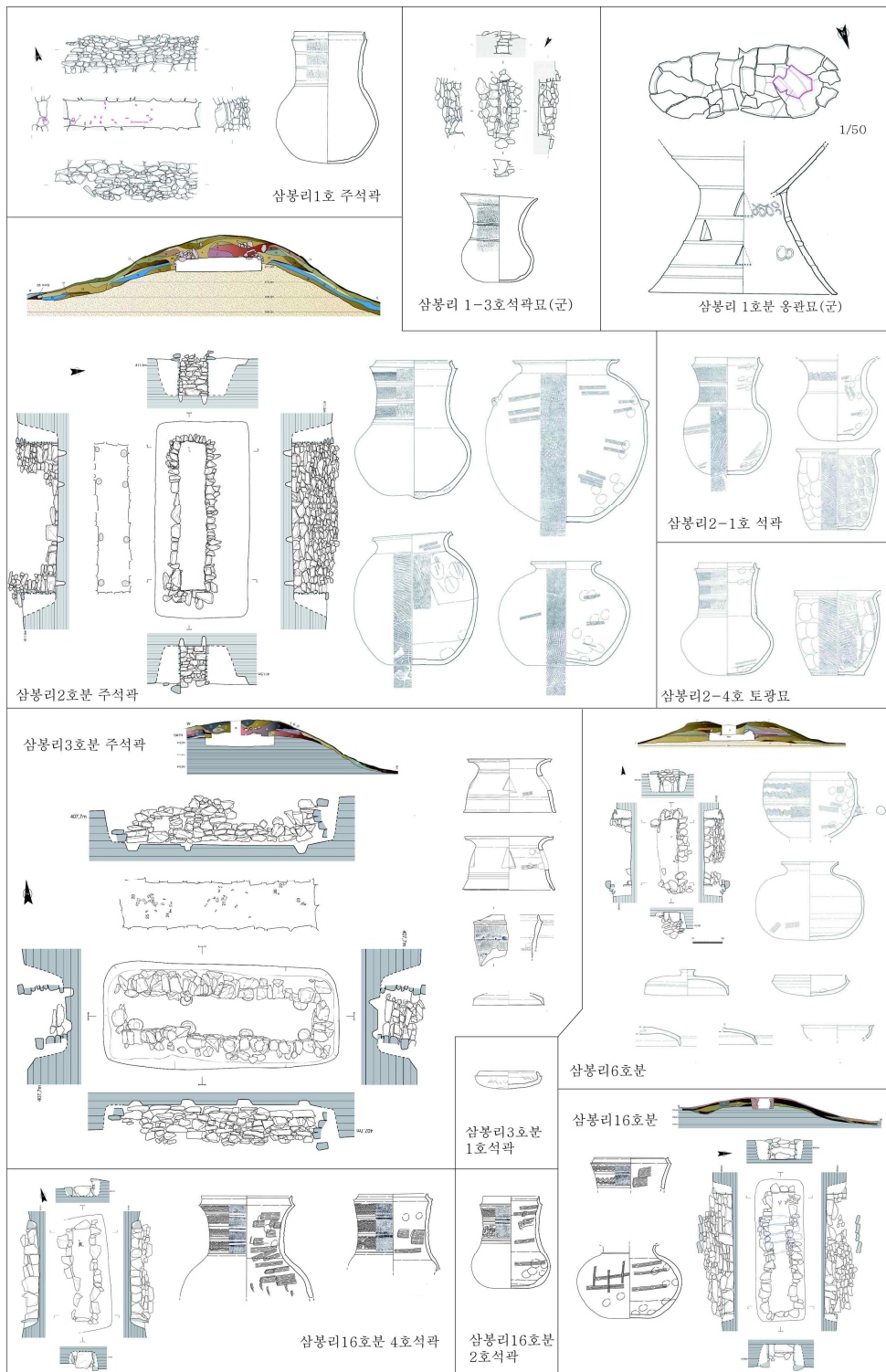
4호분의 봉토 규모는 15m 내외이며,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타원형을 띤다. 주구나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석곽은 반지하식의 수혈식석곽묘으로, 장축방향은 봉토와 같은 동-서방향이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고배, 개, 철모, 철검, 철도자가 출토되었다.

<표2> 장수 백화산고분군 일원 고총고분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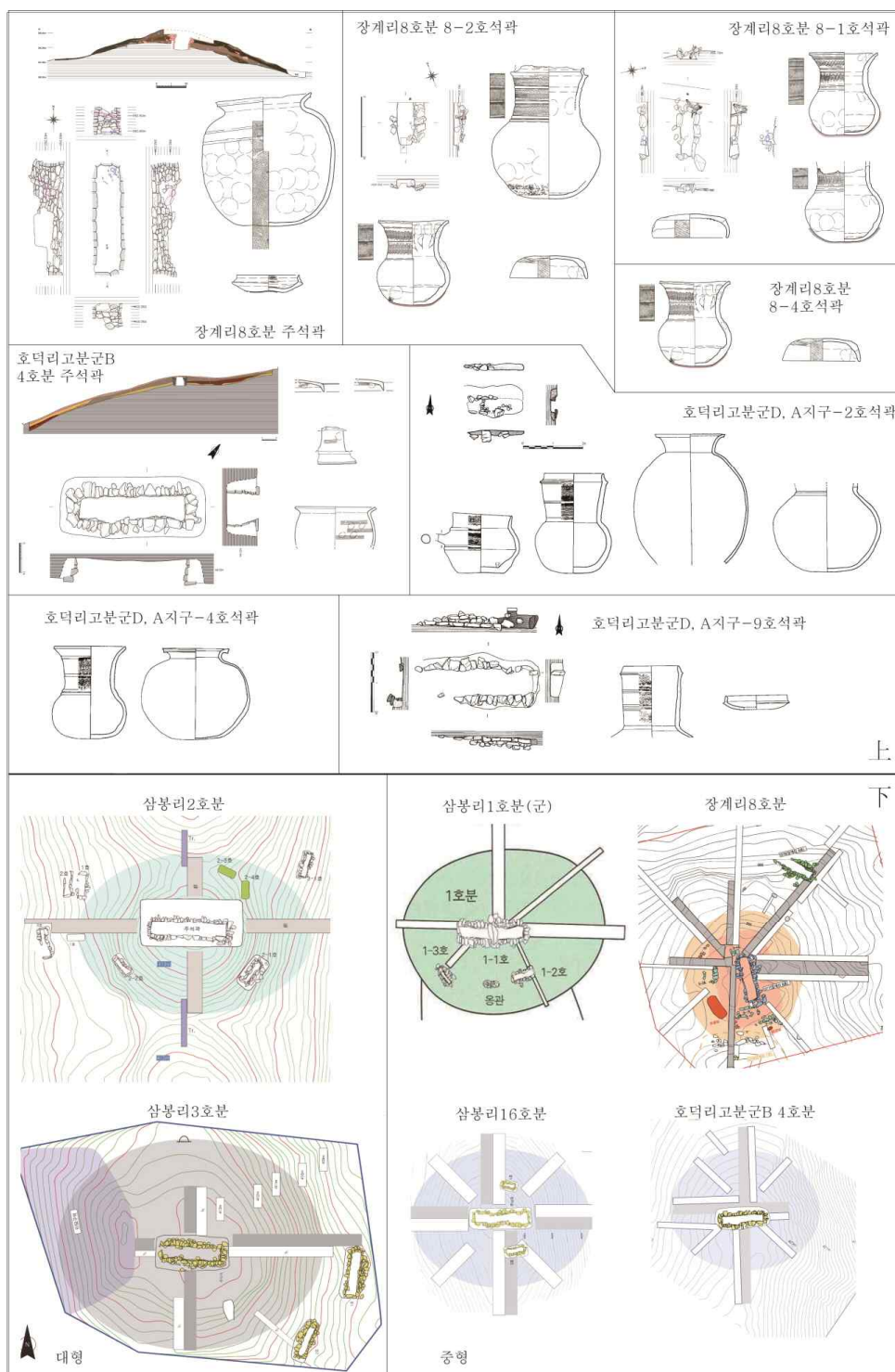
	유적명	규모				평면 형태	출토유물	조사 년도
		봉토	주석곽	면적	장폭비			
1	삼봉리	21m	462x96	4.4㎡	4.81	세장방형	유개장경호, 철모, 교구, 철촉, 철도자, 철검, 환두대도?	군산대 2003
2	삼봉리 2호분	26m	508x112	5.7㎡	4.54	세장방형	장경호, 기대, 재갈, 금제이식, 꺾쇠 등	전주연 2015
3	삼봉리 3호분	20m	525x120	6.3㎡	4.37	세장방형	유개장경호, 단경호, 대호, 발, 고배, 금제이식, 안교, 등자, 재갈, 교구, 운주, 대도 등	전주연 2013
4	삼봉리 6호분	14.8m	294x70	2.06㎡	4.2	세장방형	개, 배, 단경호, 파수대분완, 등	전주연 2015
5	삼봉리 16호분	15.6m	370x70	2.59㎡	5.28	세장방형	호형토기, 유개장경호편 등	전주연 2018
6	장계리 8호분	11m	360x70	2.7㎡	5.14	세장방형	배, 단경호, 옥, 망치, 모루, 집게, 철검, 환두도, 철환, 등	전북연 2020
7	장계리 9호분	-	(360)x70	2.7㎡	5.14	세장방형	단경호3점, 철촉9점, 철부, 철검 등	전북연 2020
8	호덕리 4호분	14m	370x70	2.6㎡	5.29	세장방형	고배편2점, 개편2점, 철모, 철검, 철도자 등	전주연 2018

75)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6)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호덕리 고분군B』, 장수군.



도면5. 장수 삼봉리고분군 유구 및 출토유물 현황(봉토: 1/400, 유구: 1/200, 유물: 1/10)



도면6. 上 장수 장계리 및 호덕리고분군 현황(분구토층:1/400, 유구:1/200, 유물: 1/10)
 下 장수 백화산고분군 주요 고총 현황(축척: 1/500)

Ⅲ. 분묘자료로 본 장수 백화산고분군

고총 및 고분군의 존재 여부는 그 지역에 기반을 형성한 세력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는 고분의 규모와 분포양상이 조영집단의 존속기간, 당시의 사회상, 피장자의 사회적 위상 등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로 확인된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분묘자료를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백화산고분군의 특징 및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지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입지는 장계 분지 내에 장계천을 따라 펼쳐진 구릉과 들판이 내려다보이며, 분지를 감싸고 있는 산지에서 뺀어 내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자리하고 있다.

즉, 하천 주변의 충적지가 발달한 지역에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산줄기의 정상부 또는 주 능선의 등줄기를 따라 입지하고 있다. 이는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⁷⁾.

특히, 고분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 가운데 대형분은 분지의 중심으로 뺀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소형분은 그 사면부 또는 대형분 주위, 그 아래 경사면에는 하위 지배층의 고분들이 산재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된 것으로 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와 함안, 고령을 비롯하여 합천, 산청, 함양 등 가야의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의 입지적 특징이기도 하다.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보여지는 입지양상은 구릉의 정상부에 장수 삼봉리1호·2호·3호분이 들어서고, 이외의 고분들은 중단부나 사면부에서 입지하고 있다.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입지적 특성은 백두대간의 동쪽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의 입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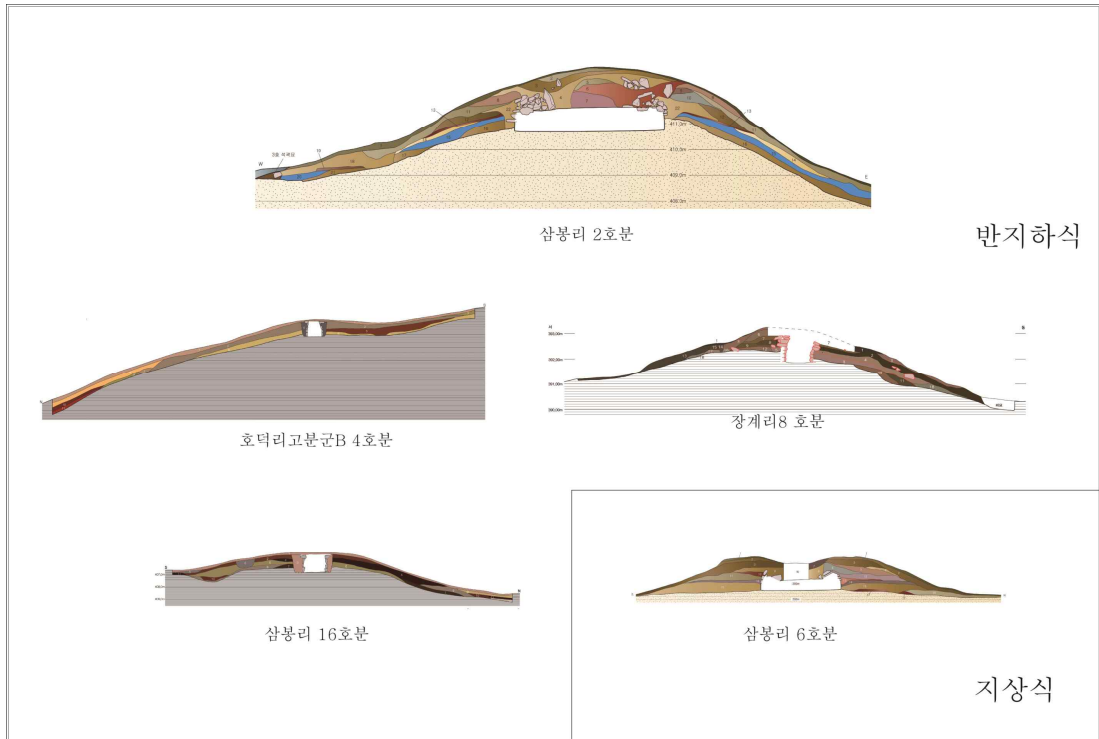
2. 봉토의 규모 및 축조방법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분의 봉토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무덤 가

77)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장자리에서 호석은 시설되지 않고 있다.(도면6-下)

봉토는 구릉 정상부를 삭토하여 기저부가 주위보다 높게 묘역을 조성하였다. 영남 지역에서는 대가야식 묘제의 위계를 봉토의 직경에 따라 대형분(20m이상), 중형분(10~15m), 소형분(10m이하)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⁷⁸⁾.



도면7. 장수 백화산고분군 분구 축조양상(축척부동)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고총(도면7)은 대형분과 중형분만 확인되고 있다. 대형분은 삼봉리 1호·2호·3호분이 해당하며, 중형분은 삼봉리 6호·16호분, 장계리 8호분, 호덕리고분군B 4호분이 해당한다.

축조방법은 크게 매장주체부(수혈식석곽묘)의 위치에 따라 지하식과 반지하식, 지상식으로 구분되며, 백화산고분군에서는 반지하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남지역의 가야고분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반지하식은 장수 삼봉리 2·3·16호분, 장계리 8·9호분, 호덕리고분군B 4호분이 해당한다. 지상식은 유일하게 삼봉리 6호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78)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삼봉리 6호분에서 확인되는 축조방법은 생토면과 구지표를 정지하고 일정부분 성토한 후 묘광을 마련하여 매장주체부를 축조한 양상은 종래 이 지역의 분구묘 축조기법과 유사성이 보여진다.

이러한 고분의 축조양상은 대가야 문화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근의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인 남원 월산리 M4·M5·M6호분과 고성 내산리 34호분 봉토 축조방법과 유사하다. 이는 종래 마한 분구묘 축조기법과 유사성을 띠고 있어 현지에 가야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해 나가는 양상으로 이해된다⁷⁹⁾.

3. 매장주체부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가야계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수혈식석곽묘가 차지하며, 일부 옹관묘와 토광묘가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가야계 고분은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의 변천과정을 거친다⁸⁰⁾. 장수지역 가야고분의 변천과정은 큰 흐름상으로는 가야지역의 것과 비슷하나 늦은 시기에 토광묘(목곽묘)로 회귀하는 지역적 특성이 보여진다⁸¹⁾.

이 글에서는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수혈식석곽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석곽묘의 계량적 속성 연구⁸²⁾를 참고하면 석곽묘의 규모는 대형(4.0㎡이상), 중형(2.0㎡이상~4.0㎡미만), 소형(2.0㎡미만)의 군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군집들은 고분군 내에서의 위계화와 더불어 각 고분들의 위상을 보여준다. 또한, 평면형태는 장방형은 3.0:1미만, 세장방형은 3.0:1이상~5.0:1미만, 초세장방형은 5.0:1이상의 양상이 나타난다.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확인된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대형과 중형으로 확인되며, 중형급이 주류를 이룬다. 평면형태는 모두 세장방형을 띠고 있으나 대형급이 중형급에 비해 너비가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대형은 삼봉리1호·2호·3호 주석곽 등이 해당되며, 중형은 삼봉리6호·16호분, 장계리 8·9호분, 호덕리고분군B 4호분 주석곽 등이다.

봉토와 수혈식석곽묘의 규모는 고분군 내에서의 위계와 더불어 각 고분들의 위상을

79)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80) 백승옥, 2017, 「가야 왕릉급 고분에 대한 역사적 해석」, 『한국고대사연구』88, 한국고대사학회.

81)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토기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84, 호남사학회.

82)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나타내며, 평면형태는 시간성과 함께 지역·정치체 사이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봉토와 수혈식석곽묘가 대형에 속하는 삼봉리1호·2호·3호분의 위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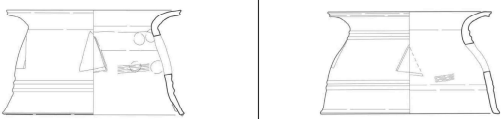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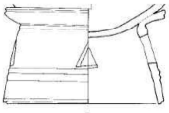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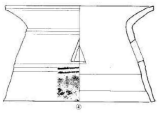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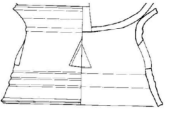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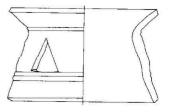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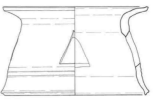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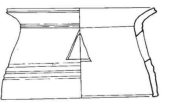
4. 출토유물 검토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대가야계, 소가야계, 백제계, 마한계 등이 혼재되어 부장된 양상이 확인된다. 부장유물 계통이 다양한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대가야계 유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주지하듯이 장수 백화산고분군은 도굴 등으로 인해 봉토나 매장주체부의 훼손이 심하여, 유물 빈약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된 유물을 가운데 완형으로 편년이 가능한 대가야계 토기(저평통형기대, 유개식장경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구별 토기부장의 조합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변천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저평통형기대(도면8)는 삼봉리3호분 주석곽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변화양상은 수부가 외반하는 것에서 수평을 이루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대각의 구성이 3단 이상에서 2단 이하로 구획된다. 대각은 내만하는 형태에서 굴곡진 형태로 다시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투창은 방형에서 삼각형으로 변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삼봉리3호분 주석곽 출토품은 대각부가 2단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각형 투창이 뚫려있다. 대각부의 단면형태가 곧게 뻗은 형태를 보인다. 이는 가장 후행하는

저평통형기대	
장수 백화산고분	1형식
	
비교자료	장수 삼봉리3호분 주석곽
	
	
	
	
	
	

도면8. 백화산고분군 출토 저평통형기대 비교분석표

형식에 해당한다. 삼봉리3호분 주석곽 출토품을 최근 연구성과⁸³⁾와 비교 검토하면

83)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토기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84, 호남사학회.
최은비,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고령 지산동45-2호·44-23호(경북연)·고령 지산동2-68호(영문연)·장수 삼고리6·11호(전주연)·함양 백천리1호분(부산대)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유개장경호(도면9)는 경부가 길고 뚜껑받이 턱이 있어 상부에 개를 엮을 수 있는 형태의 호류이다. 경부는 돌대에 의해 2-5단으로 구획되며 파상문이 주로 시문된다. 경기부에는 1-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유개장경호는 고령지역 내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다량 부장되며, 대가야토기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대표 기종이다⁸⁴⁾.

대가야토기는 대가야계(대가야산, 대가야양식+현지제작)와 현지제작품(현지양식+대가야양식+현지제작)으로 구분되며, 대가야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유개장경호(도면9)는 삼봉리1호·2호·3호·16호분 주석곽, 삼봉리1-3호·2-1호 석곽, 삼봉리16-2호·16-4호 석곽(2점), 장계리8-1·2호 석곽, 호덕리A-2호 석곽, 삼봉리2-4호 토광묘 등에서 14점이 출토되었다. 대가야계는 삼봉리1호·2호·3호 주석곽, 삼봉리16-4호 석곽, 장계리8-1·2호 석곽, 삼봉리2-4호 토광묘 등에서 8점, 현지제작품은 호덕리A-2·9호 석곽 등에서 6점이 출토되었다⁸⁵⁾.

유물의 변화양상은 저부 형태가 원저에서 평저로, 동체부가 경부보다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또한 뚜껑받이 턱의 돌출도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화한다. 동최대경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며 구연부가 내경하다가 '3'자상으로 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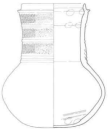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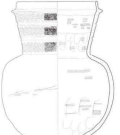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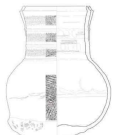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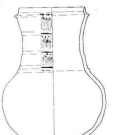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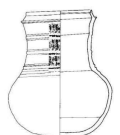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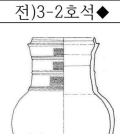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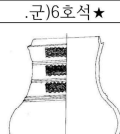
대가야계는 태토·외형·제작기법·소성방식 등이 대가야양식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대형 석곽묘인 삼봉리2호분 주석곽 등에서 주로 출토되며, 늦은시기 삼봉리2-4호 토광묘에도 부장 된다. 고령 지산동44·45호분과 삼고리2-1호 토광묘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현지제작품은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와 차이를 보이는데, 동체의 최대경이 하단에 있거나, 문양대를 구분하는 돌대 대신 침선을 돌리는 예, 뚜껑받이턱 등 전체적으로 대가야 양식에 비해 투박한 형태를 띤다. 외면에 태선문 등의 타날이 잔존하는 예, 태토에는 굵은 석립이 혼입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작기법의 특징은 산청 생초 고분군, 산청 평촌리 유적 등에서도 확인되며, 보고자는 고령의 공인이 제작한 것을 현지의 장인이 모방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

84) 박승규, 「가야토기」, 『가야고분군Ⅱ』(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6).

85)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적어 세부적인 분석은 어렵다. 향후 고고학 자료가 축적되면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유개식 장경호(대가야산★, 대가야+현지제작◆, 현지+대가야양식+현지제작▼)							
구분	1형식	2형식				3형식	
백화산고분	...						
		장계리8-2호석★	삼봉1-1호석◆	삼봉2호주석곽◆	삼봉2-1호석▼	삼봉-2-4호토	
비교자료	삼고리고분						
		전)3-1호석곽◆	전)2-2호석★	군)13호석★	전)3-2호석◆	군)6호석★	군)11호석▼
	영남지역						
		지·경)67호석	함양 백천리1호	지44호주석곽	지45-2호	지44-29호석	지·경)21호석3

도면9. 백화산고분군 출토 유개식 장경호 비교분석표

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⁸⁶⁾. 이러한 유물을 통해 현지 제작집단에 의해 대가야토기의 생산이 현지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⁸⁷⁾.

장수 백화산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유구별 부장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 봉토분+수혈식석곽묘(삼봉리1호·2호·3호 주석곽)은 대가야계 유개장경호가 부장되며, 삼봉리3호 주석곽은 소가야계 개가 삼봉리2호 주석곽은 마한계토기가 함께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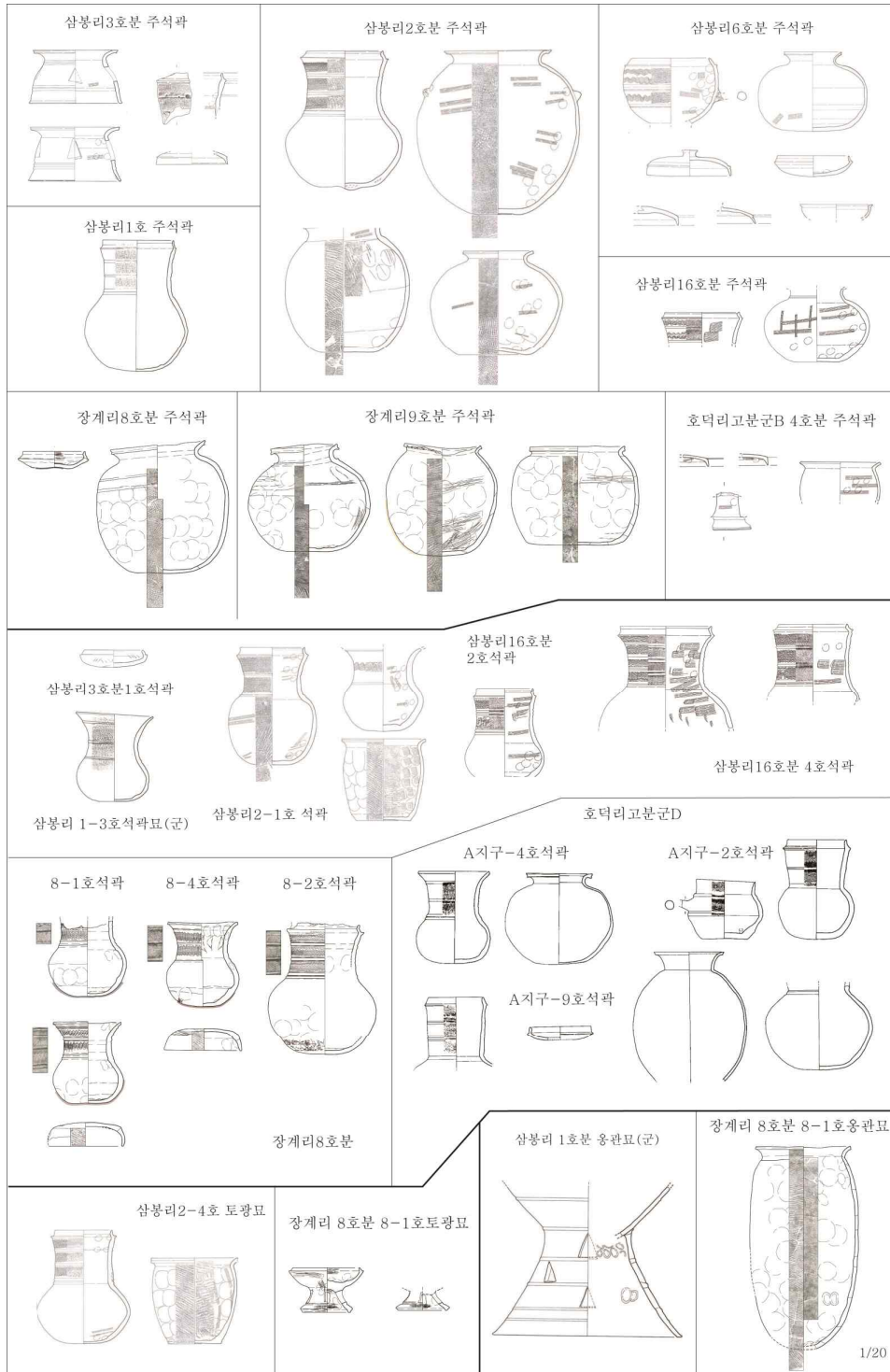
중형 봉토분+수혈식석곽묘(삼봉리1~3호 배장곽, 삼봉리6호·16호 주석곽, 호덕리고분군 등)에서는 대부분, 단경호, 개, 배, 발형토기, 유개장경호, 무개장경호, 연질개, 대호 등이 출토되었다. 대가야계가 우위를 점하며, 마한계 토기도 일부 부장된다.

특히, 대가야계 장경호와 연질개(단사선문)의 조합이 확인되는 장계리8호 배장곽들은 그 양상이 가야지역과 유사하다. 호덕리고분군D의 경우 현지제작품의 비중이 다른 고분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토광묘(삼봉리2-4호, 장계리8-1호)에서는 대가야계 일상용기(단사선문)와 유개장경호가 공반되고, 장계리8-1호 토광묘에서는 현지제작품으로 장방형투창고배 2점이 확인된다. 상대적으로 장계리8-1호 토광묘가 더 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86) 경남발전연구원, 2007, 『산청 평촌리유적 II』.

87)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湖南考古學報』 第57輯, 34쪽.



도면10. 장수 백화산고분군 출토 토기류(축척=1/10)

이상으로 그동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분묘자료를 토대로 장수 백화산고분군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유적은 전반적으로 고령 지산동44·45호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군의 도굴이 심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확인된 분묘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양상은 장수지역 고분군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늦은시기 가야지역과는 다르게 토광묘로 전환되는 양상은 장수지역에서만 보여지는 양상으로 고래부터 문화적 접이지대를 이루고 있는 장수지역의 지역성과 특수성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특징은 대가야토기의 확산을 통해 본 분포유형 가운데 Ⅲ형에 해당된다. 즉, 5세기 중반이후 대가야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지지만 현지의 묘제 또는 현지토기양식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 중심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집단으로서 대가야와 연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⁸⁸⁾.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 가운데 보고서가 간행된 유구를 중심으로 분묘자료를 바탕으로 봉토, 축조방법, 출토유물의 개략적인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봉토분의 입지적 양상과 축조기법, 매장주체부의 변천양상으로 보아 장수 백화산고분군은 지역을 기반으로 둔 세력이 종래의 전통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중대형의 고총군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대가야계가 주류를 이루며, 대가야양식과 현지양식이 결합된 양상이 파악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령지역에서 유입된 대가야토기를 재지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충실히 모방한 토기류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도굴로 인해 그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장수 삼고리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 등의 양상으로 보아 고령지역과 주변 지역과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수 백화산고분군 조영세력이 일반적으로 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분의 발전과정과 달리 6세기 중엽 이후에 전시기 묘제인 토광묘로 회귀하는 독특한 현상을

88) 박승규, 2003, 「대가야토기의 확산과 관계망」, 『한국고고학보』49, 한국고고학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수권인 장수 삼고리고분군·동촌리고분군 등지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장수지역 세력집단이 보다 자주적인 세력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대가야토기의 확산을 통해 본 분포유형 가운데 Ⅲ형에 해당된다. 5세기 중반이후 대가야토기의 확산이 이루어지지만 현지의 묘제 또는 현지토기 양식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 중심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집단으로서 대가야와 연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수 백화산고분군은 전북지역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지역성과 특수성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유적으로 장수지역 고대 사회상을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장수 백화산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장계분지에 분포하고 있는 고총고분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양상이다. 향후 장수 백화산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곽장근, 1999, 『湖南 東部 地域의 石槨墓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 _____,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박성배, 2016, 『호남동부지역 가야토기의 유입과 변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朴升圭,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東義大學校 大學院).
- _____,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關係망」, 『大加耶의 遺蹟과 遺物』, 대가야박물관.
- _____, 2017, 「가야토기」, 『가야고분군Ⅱ』,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朴天秀, 1998, 「大加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39輯,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第43輯,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湖南考古學報』第57輯,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제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김세기, 2003, 『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 학연문화사.
- 전상학, 2017,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호남고고학보』57, 호남고고학회.
- 백승옥, 2017, 「가야 왕릉급고분에 대한 역사적해석」, 『한국고대사연구』88, 한국고대사학회.
-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토기의 변천양상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84, 호남사학회.
- 최은비, 2016,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보고서

-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삼봉리고분군·동촌리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 柳哲 外, 2015, 『長水 三峯里 古墳群-2호분-』, (財)全州文化遺産研究員.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3호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16·19호분-』.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장수 동촌리·삼봉리고분군 -1·24·25호분-』.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22, 『장수 장계리고분군 -8·9호분-』.
-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장수 호덕리 고분군B』, 장수군.
- 啓明大學校博物館, 1981, 『高靈 池山洞古墳群 32~35號墳』.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0, 『대가야 역사관 신축부지내 고령 지산동 고분군』.
- (財)大東文化財研究院, 2012, 『高靈 池山洞 第73~75號墳』.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1998, 『高靈 池山洞古墳群 30號墳』.
- 高靈郡, 1979, 『大伽倻古墳 發掘調査報告書-44·45號墳-』.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高靈 池山洞古墳群Ⅰ』.
- _____, 2006, 『高靈 池山洞古墳群Ⅱ』.
- _____, 2006, 『高靈 池山洞古墳群Ⅲ』.
- _____, 2006, 『高靈 池山洞古墳群Ⅳ』.
- _____, 2006, 『高靈 池山洞古墳群Ⅴ』.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咸陽 白川里 1號墳』.
-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7, 『산청 평촌리유적Ⅱ』.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함천 문림리유적』.

「토기로 본 장수 백화산 고분군」에 대한 토론문

오재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 발표문에서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을 포함한 장수지역 가야고분의 특징으로 호석이 설치되지 않으며, 늦은 시기 매장주체부가 토광묘 즉 목곽묘로 회귀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봉토와 수혈식 석곽묘가 대형에 속하는 삼봉리 1~3호분이 위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수지역 중심 고분군인 동촌리 고분군과의 관계, 얼마전에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는 삼고리 고분군과의 관계, 다른 점과 같은 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야의 중심지역과 장수지역 가야고분과 어떤 점이 다르고 같은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토기를 살피는데 있어 저평통형기대와 장경호를 위주로 발표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 호류 위주의 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백화산고분군의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호류 위주의 부장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야권 내 이러한 양상과 비교되는 자료는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장수 백화산 고분군 내 삼봉리 16호분이나 삼봉리 2호분처럼 하나의 봉토 내에 2기 이상의 매장주체부(수혈식 석곽묘, 목곽묘)가 조성된 다곽식의 묘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야지역의 다곽식 묘형은 크게 고령식(대가야), 고성식(소가야), 삼가식으로 분류되는데 발표자가 생각하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다곽식 묘형은 어느 형식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주석곽과 배묘(배장 또는 순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화산 고분군은 호덕리, 삼봉리, 장계리 고분군의 통합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산고분군 내 호덕리, 삼봉리, 장계리 등 3개 고

분군의 양상에 있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봤는데 발표자가 생각하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가치는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정해민(함안군청)

- 목 차 -

- I. 머리말
 - II.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규정과 절차
 - III.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추진사업 검토
 - IV. 보수정비사업의 과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말이산(末伊山)은 아라가야의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해발 40~70m 나지막한 구릉이다. ‘말이(末伊)’는 ‘머리’의 소리음을 한자를 빌려 표기하여 ‘우두머리’ 또는 ‘왕’을 뜻하며, 말이산은 ‘우두머리의 산’ 또는 ‘왕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불리어왔다. 즉, 말이산 고분군은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도항리·가야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아라가야 대표 고분군이다.

함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말이산 고분군의 대형 봉토분은 현재 총 129기이고, 원래의 봉분이 사라지고, 땅 속에 묻혀있는 것들까지 합하면 1,000여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고분군의 규모는 총 면적 789,619.5㎡이고, 남북길이는 2km가 넘으며, 대형 봉토분은 말이산의 주능선과 여덟 개의 가지능선을 따라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말이산은 아라가야 왕과 주변 상위 계급의 지배층, 주변 친족들까지 총 1,000명이 넘는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이다.

본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규정과 절차를 알아보고, 함안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해왔던 말이산 고분군의 보수정비사업의 성과와 과제가 향후 유적의 보존관리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II.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규정과 절차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관련법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이 있다.

문화재 수리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그 주위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처리, 실측설계, 감리를 포함한다.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시설물, 건축물, 조경 등을 대상으로 정비·보수·복원·보존처리 등을 수행하고, 문화재감리업자가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구조이며, 이 모두는 문화재수리법을 따른다.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위반행위가 있을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그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재수리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문화재가 한 번 훼손되면 원형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의 자격 없이는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측설계부터 수리기술자, 감리원, 감독 공무원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필요하다.

말이산 고분군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예산 신청

2. 설계-설계검토-사업승인
3. 시공-감리-(설계변경)
4. 준공-수리보고서-감리보고서

말이산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수정비, 학술연구,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등 세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와 전문가 자문의견,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예산을 신청한다.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취합하고, 검토과정을 거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두고 문화재청에서는 각 예산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해당하지 않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 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계된 고분군 정비사업은 세부사업지침 상에 국가검토/지방검토에 따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나 보존정책과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보수담당이 주로 승인대상이다. 그 과정은 설계승인요청-설계심사-(보완요청)-(보완 후 재제출)-설계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설계승인된 사업에 대해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 발주 및 계약을 마친 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공과정에서 수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따른 책임감 있는 시공과 감리원은 공사과정에서 시공방법, 재료검수, 검측 등 현장의 지도, 감독 역할을 철저히 이행한다.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리기술자-감리원-발주처가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친다. 설계변경 승인 과정은 앞서 살펴본 설계승인 절차와 같다. 공사과정에서 (일반)감리원은 분기별 감리일지,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 사진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준공된 사업은 수리기술자는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수리보고서의 내용에는 문화재수리의 내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한다.

Ⅲ. 함안 말이산 고분군 추진사업 검토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과 함께 국정과제였던 ‘가야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최근 3년간 말이산 고분군 보수정비사업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말이산 고분군 보수정비사업 현황

연도	예산액(백만원)	사업내용		
		공사	용역	기타
2020	4,000	CCTV 설치, 13,45호분 정비, 소화시설 설치, 잡목제거 및 예초사업	탐방안내시스템 구축	토지 및 지장물 매입
2021	4,370	탐방로 정비, 식생관리, 시굴조사부지 정비공사	75호분 발굴조사, 자연환경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토지 및 지장물 매입
2022	6,197	75호분 봉분복원, 봉분보수(72,74호분), 수목정비사업	시굴조사, 진입로 개선 설계, 종합정비계획수립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계	14,567			

말이산 고분군의 보수정비사업에는 연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고분군 연접 주민과 탐방객들의 편의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들이 있다, 아래의 표 2는 말이산 고분군 보수정비사업 세부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말이산 고분군 보수정비사업 세부내용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및 목적
상시관리	조경	수목정비	매년 3회 이상 예초, 경관 위해목 제거
	방재	CCTV, 소화시설, 방재드론	지정구역 및 고분군 연접 지역 관리
	유지관리	아라가야 사적관리단 운영	탐방로 및 봉분 예초, 유사시 긴급보수, 상시 고분군 예찰 활동
탐방객 편의	시설 관리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
	용역	탐방안내시스템 구축	GPS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설치로 고분군 안내와 정보 제공
주민 편의	시설 관리	배수로 정비	고분군 연접 민가 우수로 인한 피해 방지 배수로 설치
학술연구	조사연구	시, 발굴조사, 학술용역	도굴갱 또는 싱크홀로 인한 무덤 내부 피해 방지를 위한 학술조사
보수정비	유구정비	봉분복원, 유구재현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봉분복원 및 유구재현공사
보호구역 관리	지정구역 관리	지정구역, 보호구역 확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고분군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설 관리	경계울타리 설치	지정구역 경계 인식

1. 수목정비

말이산 고분군의 수목정비사업은 고분군의 경관 유지를 위해 해마다 추진해오는 연차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말이산 고분군 지정구역인 783,619.5㎡로 방대한 면적이다. 사업비는 말이산 고분군 지정구역 확대에 의한 사업범위 확대에 의하여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예초작업은 사업범위를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주탐방로와 봉분 예초작업은 함안군 가야사담당관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인 ‘아라가야 사적관리단’이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기타 사면부는 공사 발주를 통해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기타 공사내용은 경관 위해목 제거, 수목 전정 및 식재, 임목 파쇄 등이다. 특히 경관 위해목 제거는 2020년 실시한 ‘말이산 고분군 식물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말이산 고분군 수목정비사업 작업 광경

2. 방재시설관리(CCTV, 소화시설)

말이산 고분군의 방재시설에는 CCTV와 소화시설이 있다. CCTV는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과 고분군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자 설치

하였다. 말이산 고분군의 CCTV는 총 18개소로, 설치공사시 문화재 참관조사와 병행하였고, 현재 함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였다.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고분군 주변 마을 진입로 보안등 설치와 마을 방송시설 이전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CCTV 폴대가 고분군의 경관에 최대한 저해되지 않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과 폴대 위치가 탐방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였다.



말이산 고분군 CCTV 전경

소화시설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절차가 완료된 필지를 대상으로 고분군과 연결하고 있는 본동, 원동마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다. 당초에는 법적 소방시설인 옥외소화전의 형태로 추진하였으나,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와 함안 소방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수압이 나오지 않아 법적 소방시설로는 보기 어렵지만, 방재시설로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리하여 말이산 고분군 소화시설은 2개소 모두 주민이 거주했던 곳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착안하여 물탱크를 설치하여 상시 물을 저장해놓고, 소화펌프 및 호스를 이용하는 현재의 형태로 설



말이산 고분군 소화시설 전경

치하였다. 말이산 고분군의 북쪽 지역인 본동, 원동마을은 고분군과 연접하고 있고,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본 소화시설은 고분군 또는 민가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시 사용될 예정이다.

3. 아라가야 사적관리단 운영

‘아라가야 사적관리단’은 2021년 3월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말이산 고분군 뿐만 아니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함안 성산산성, 가야리 유적의 경관 유지와 유적보호를 위한 예초, 경관 위해목 제거, 기타 긴급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적관리단은 말이산 고분군 업무 담당부서인 함안군 가야사담당관에서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인원은 2021년 5명에서 2022년은 8명으로

말이산, 우리가 그려갈 새로운 이야기



봄,
아라가야
사적관리단 운영

봄이면 시작되는 잡초와의 전쟁. 말이산 고분군은 전체 면적 783,619.5㎡로, 가야고분군 단일유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방대한 면적의 사적지 관리를 위해 2021년 3월부터 아라가야 사적관리단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말이산 고분군의 경관 조성 and 유적 보호를 위해 제초, 위해수목 제거 작업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말이산 고분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멋진 경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산 고분군 사적관리단 소개글

(『아라가야 언덕에 봄바람 불면』, 2022,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사진전 도록)

증원하였다. 말이산 고분군의 사적관리단 구성원들의 노고 덕분에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경미한 수리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 발주가 아닌 수시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정비사업 예산 절감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적관리단 예산이 함안군 자체예산 100%라는 점이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사적관리단의 노력과 성과가 점차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사적관리단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4. 탐방로 정비

탐방로 정비사업은 말이산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사업내용은 잔디보호매트 설치, 데크 계단 및 안전 난간 설치, 야자매트 철거 및 설치, 보도용 블록 설치 등이다. 본 사업은 예산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간을 확정하고, 설계를 완료 후 설계승인요청-설계승인 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13호분 주변으로는 이전까지 탐방로 조성이 되지 않은 채 자연 암반이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어 지면이 상당히 미끄러웠고, 탐방객들이 서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폭이 좁은 상태였다. 이 점에 유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탐방로 폭을 넓혀 데크 계단 및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지면이 미끄러운 점을 보완하였다. 탐방로 정비사업은 2020년 13호분 발굴조사 완료 이후 13호분 복원공사와 준공 시점을 맞추어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말이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지난 2020년 가을부터 보다 개선된 탐방로를 따라 정비가 완료된 13호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말이산 고분군 탐방로 전경

5. 안내판 설치

말이산 고분군의 안내판은 내용 면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특징적인 유물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각 고분별 발굴조사성과나 자세한 설명은 ‘함안 말이산고분군 탐방안내시스템’에서 담당한다. 개별 안내판의 유물사진은 출토 당시 사진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담아 흠을 씻어낸 말끔한 유물을 선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무덤 내부에서 별자리 덮개돌이 확인된 말이산 13호분에는 특별히 실제 덮개돌의 1/2정도 크기로 복원모형을 제작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별자리 덮개돌은 함



말이산 고분군 86호, 129호분 안내판 전경

안 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그 실물을 볼 수 있지만, 출토된 장소에서 그 내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형물이 부착된 안내판을 기획하였고, 덮개돌이 1/2크기인 점은 실물크기의 조형물이 13호분을 조망하는 데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크기를 줄이게 되었다.



말이산 13호 별자리 덮개돌 안내판 전경

6. 탐방안내시스템 구축

말이산 고분군 탐방안내시스템은 2017년 함안군에서 실시한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2019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안내판 QR코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안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분군 탐방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식명칭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 스마트투어’로 스마트폰의 GPS와 안내판에 부착된 비컨과 QR코드를 이용하여 고분군 음성해설 안내, 사물인터넷 기술기반 답사 안내, 고분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증강현실기술(AR)을 활용한 문화유산체험 등 많은 기능을 담고 있다. 설치방법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아이튠즈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말이산고분군’ 또는 ‘아라가야’를 검색해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정식 오픈은 지난 2021년 3월 앱 다운로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되었다. 함안군은 해마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말이산 고분군 탐방안내시스템 설명 리플릿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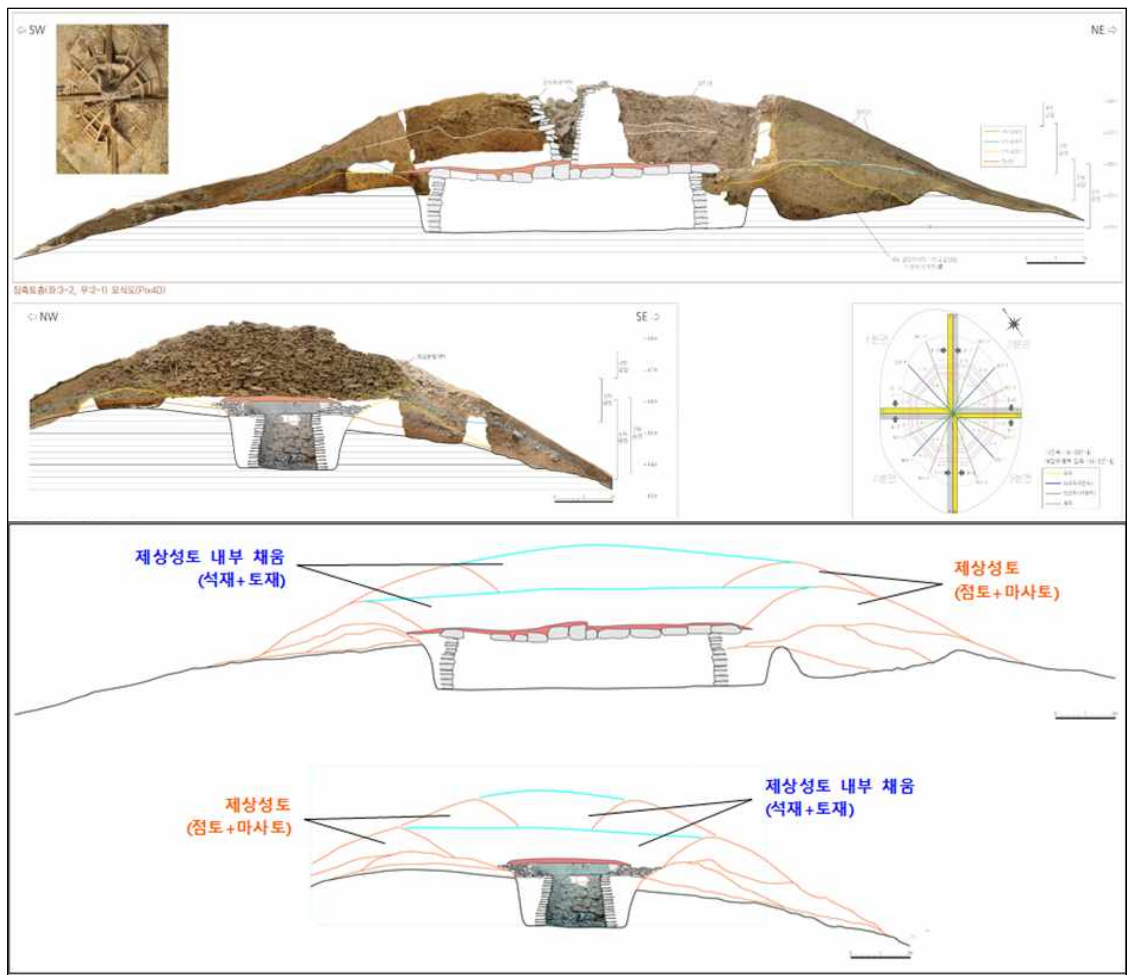
7. 학술조사연구(시·발굴조사)

말이산 고분군에서 시행되는 시·발굴조사는 도굴갱 또는 싱크홀에 의한 침하로 인하여 긴급보수 추진을 위한 복원 근거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혹은 정비공사 추진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구분포확인을 위해서도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의 진입 구간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분포를 반드시 확인한다.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되는 중장비는 매장 유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굴조사 실시기준에 의하여 전체면적의 10%에 한해 부분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조사범위 전체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과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재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말이산 고분군의 여러 정비공사 중 발굴조사성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은 봉분 복원공사이다. 즉, 대형 봉토분 발굴조사의 목적이 축조방식 분석을 비롯하여 출

토유물을 통한 시기구분, 교류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복원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임을 용역 착수시점부터 주지시키고자 한다. 이 부분은 말이산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정비방안 또는 복원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봉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와 조사기관에서는 조사단 의견이 가장 유력한 근거임을 잊지 않고, 조사성과를 충실히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말이산 고분군 13호분 복원정비계획도

최근 발굴조사현장에서는 여러 조사기록 방법 중 유구, 유물 사진 촬영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드론 촬영이 일반적이다. 도면 작성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굴조사비용,

조사기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GPS 측량기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병행한 측량 성과와 유구 당 많은 양의 디지털 사진이 이용된다. 특히 포토스캔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구 도면은 기관의 현장 여건에 따라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 소요 시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에서는 조직 구성에 따라 전담팀 또한 전담인원을 두기도 한다. 직접 조사원이 현장에서 작성한 실측도면을 전산화하여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는 그 과정의 소요시간이 상당히 절약되었다. 그리고 유구 실측도의 오차는 GPS 측량성과로 함께 보정이 가능하므로 실측도의 정확도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문화재청 고시 제2022-55호(2022.5.12.)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약식 보고서의 제출) 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의 현장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유물현황 자료(목록 및 사진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약식 보고서(조사구역도, 트렌치별 유구 및 유물 출토현황 내용을 포함한다)를 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상기된 내용처럼 토층도(토층 설명), 단면도와 함께 추정 봉분 규모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복원계획(안)을 제공받는 시점이 말이산 고분군 봉분발굴조사의 궁극적 목적인 봉분복원근거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 된다.

8. 유구정비(봉분복원, 유구재현)

말이산 고분군 봉분복원공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립해나가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봉분복원은 잔존하는 봉분의 규모보다 고대(高大)하거나 확대(擴大)하지 않는다. 말이산 13호분의 사례를 살펴보면 13호분의 봉분은 조사단에 제출 받은 복원 계획을 기본으로 공사설계단계에서 고고학, 토목공학 전공의 전문가와 발굴조사단장, 보수기술자가 참석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였다. 자문과정에서 암반을 깎아 봉분을 거대하게 보이기 위한 암반대를 유지관리를 위해 피복시켜 잔디 식재하는 부분과 조사성과를 반영한 제상성토와 중심분할석축을 재현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논의했을 뿐 봉분 규모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행정적인 절차인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에 설계승인과정을 거쳐 문화재 전문수리업체(보수단청업)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두 번째는 각 고분마다 제 특성을 살린다. 발굴조사 결과 봉분이 확인된 것은 봉분

복원을 실시하고, 봉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무덤 내부에 모래를 채우고, 덮개돌을 점토로 밀봉(密封)한 후 20~30cm 정도 성토(盛土)를 한다. 그리고나서 무덤의 원래 위치에 여러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HM石1호묘의 사례를 살펴보면 발굴조사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된 상태에서 촬영된 고화질의 사진을 실제 무덤크기대로 이미지타일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정보 전달과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비사례는 그동안 타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말이산 고분군만의 방식으로 말이산을 찾는 탐방객들과 여러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HM石1호묘 유구재현(이미지타일 설치) 전경

이뿐만 아니라 말이산 45호분 주변으로는 1992, 1993년에 조사된 덧널무덤, 돌덧널무덤의 실제 위치에 원래의 크기대로 방부목과 석재를 이용하여 무덤형태를 복원하여 봉분이 없는 무덤의 분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나무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 재현 공사 광경

말이산 고분군의 봉분복원공사는 고고학을 전공한 담당 주무관과 담당 주사가 발굴조사부터 봉분복원공사의 설계, 시공까지 복원을 위한 전 과정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각 과정마다 전문가 자문과 함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토목공법을 적절히 반영하여 당시의 원형(原形)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말이산 13호분 봉분복원과정(2021.4~20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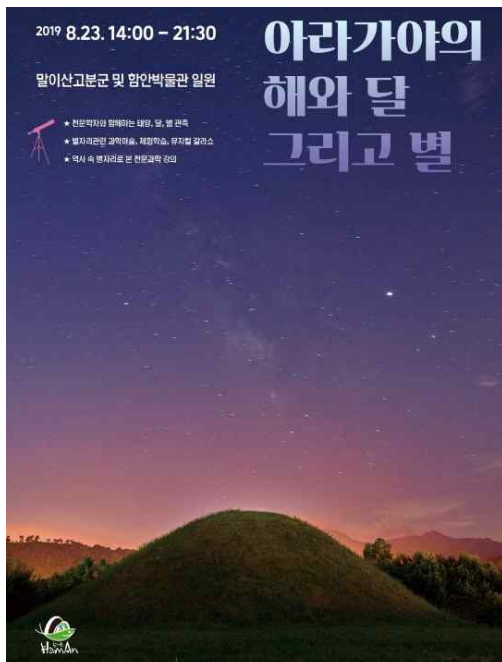
9. 문화재 활용사업

최근 들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국정과제 가야사 복원사업을 기점으로

말이산 고분전시관 개관, 13호분 별자리 덮개돌, 45호분 금동관·상형토기 출토, 75호분 중국제 연꽃무늬 청자그릇 등의 학술조사성과들이 널리 알려지고, KBS 1박2일과 역사스페셜, tvN 드라마 ‘환혼’ 방영 등으로 말이산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말이산 7호분 앞에 위치한 벚나무와 섬잣나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사진 촬영 명소로 점차 알려져 벚꽃이 만개할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말이산 고분군의 활용사업은 2019년부터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말이산 13호분에서 확인된 별자리 덮개돌을 계기로 역사와 천문학이 만난 말이산 고분군에서 천체관측행사를 진행했던 ‘말이산 별축제’가 대표적이다. 덮개돌에 새겨진 여름철 별자리(남두육성=궁수자리, 청룡별자리=전갈자리)를 1,500년 전 아라가야 사람들처럼 말이산 고분군에서 직접 볼 수 있고, 천문학자들의 야외 강연과 뮤지컬, 국악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일 대표 고천문학자와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고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말이산 13호분 별자리 발굴기념 고대 별자리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말이산 별축제 포스터

2021년에는 제1회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공고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촬영된 사진을 각종 신청서와 함께 접수받아 총 24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2022년 5월3일부터 7월 3일까지 말이산 고분 전시관에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진행하였다.

제2회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진 공모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디지털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말이산 고분군의 사계절 다양한 풍경과 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인물을 담은 사진을 주제로 총 14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많은 참가자로부터 말이산 고분군의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 사진 공모전 홍보 SNS 카드뉴스

IV. 보수정비사업의 과제

말이산 고분군 보수정비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시행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을 유지관리해야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발굴조사 완료부지에 대해서 시급히 할 수 있는 조치는 방수천막이나 보온덮개로 정비 시행까지 복토

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조차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비까지 예산편성 및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가 커서 정비공사비까지가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면 설계예산이라도 발굴조사비와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지정문화재 대형 봉토분의 발굴조사 목적은 복원을 위한 근거 마련임을 주지하고, 조사완료 후 복토가 끝이 아니라 정비·복원이 마무리라는 하나의 공정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시행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나 고고학에 관심이 많지 않은 탐방객들에게 고분군은 볼거리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 분들에게 고분군은 오르기 편하거나 힘들거나 잔디가 심겨진 봉긋한 봉분이 몇 개 있는 곳이다. 설치된 안내판은 어려운 말들로 쓰여져 이해하기 힘들고, 흥미가 떨어진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발굴조사 성과와 발굴보고서에 담긴 유물사진, 간단한 일러스트와 함께 최대한 쉽게 그 유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 문구를 작성한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발굴된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였다. 문화재 정비사업이 원형 보존이 원칙이므로 유적의 개성을 드러내기 어렵지만,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탐방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V. 맺음말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누군가에게는 함안의 센트럴파크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신성한 조상의 묘역이며, 업무담당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는 사업대상지이다. 함안군은 말이산을 후대로 잘 이어져야 할 유산임을 알고, 꾸준한 관심과 열정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말이산 고분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점은 일치된 생각이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랜 시간 머무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은 돌아가고, 곧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머지않아 말이산 고분군을 포함한 7개의 가야고분군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이어져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말이산 고분군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무더운 날씨와 매서운 추위에도 발굴 현장에서 조사연구에 매진하시는 야외고고학자 여러분들과 아라가야 사적관리단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신웅주(조선대학교)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도항리고분군과 말산리고분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시대와 성격의 무덤들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고분군으로 인정되어 2011년 7월 28일 사적 제515호로 통합, 재지정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5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봉분복원, 탐방로 정비, 식생관리, 안내판 설치, 방범 및 방재시설 설치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 점은 향후 유적의 보존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1년에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전시관이 개관되어 아라가야의 역사를 비롯하여 유물 유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해민 선생님의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 원고를 접하면서 담당 선생님을 비롯하여 함안군의 노력과 세계유산 추진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보존, 정비, 활용에 관한 계획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가야읍 내에 위치합니다. 말이산 1호분~10호분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이 분포하고 있어서 연간 적지 않은 신축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의 압력이 높습니다. 나머지 고분군 주변은 생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이 분포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500m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인허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슈 중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 건설사가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건설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가야읍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고층건축의 개발행위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혹

시 진행될지도 모르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커다란 난제임은 분명합니다.

함안군에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자체의 보존 정비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인 경관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말이산 고분군과 조화를 이루는 가야읍의 경관 형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성과와 과제

김기홍(고령군청)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현황
 - III.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성과와 과제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분군은 그 특성상 축조당시 사회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특히 발굴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나아가 과거의 문화와 사회를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발굴조사 이후에는 유적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대중들은 정비된 모습의 유적을 접하게 된다. 여기서 행하는 정비는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정비 목적에 맞게,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환희 2021). 반면 이러한 가치가 결여된 무분별한 정비는 공공재인 문화재를 향유할 대상인 대중들에게 오해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최고지배층의 묘역으로 가야권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묘제와 토기, 위세품 등 지산동 고분군 출토품을 기준으로 한 대가야양식의 고분문화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으로 평

가된다.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 배후 산지인 주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을 따라 대형분이 입지하고 그 주변부로 중소형분이 입지하는 가야고분군 특징의 전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주산의 정상부에는 주산성이 입지하고, 그 아래 생활공간이 위치하고 있어 대가야 왕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지산동 고분군은 1963년 사적 제79호로 지정되어 비교적 일찍부터 보존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3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은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고적조이다. 여기에는 ‘현의 서쪽 2리 남짓 되는 곳에 옛 무덤이 있는데, 세간에서는 금림왕릉이라고 일컫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전기의 기록에서 지산동 고분군을 대가야왕릉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 지산동 고분군은 축조된 이래로 계속해서 대가야 고분군으로 여겨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상의 무덤을 신성시하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지산동 고분군은 비교적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대로 아쉬운 결과를 낳기도 하였는데, 왕릉이라는 알려져 다수의 도굴이 자행되었는데, 해방 이후 조사된 봉토분의 경우 대부분 도굴 흔적이 확인되었다.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세키노 타다시와 야쓰이 세이이치가 소형 무덤 2~3기를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만 7차례에 걸쳐 20여기의 고분이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의 조사는 일제의 침략사관에 기초하여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대로 된 발굴조사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조사된 고분들 대부분이 그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방 이후에는 1977년 가야문화권의 유적보존을 위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44·45호분이 발굴조사되어 비로소 학술목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가야문화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향후 가야유적의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듬해 1978년에는 32~35호분이 발굴조사되어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대가야왕릉전시관과 대가야박물관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대형봉토분 뿐만 아니라 소형석곽묘에 대한 내용도 알려졌으며, 대가야멸망 이후에 축조된 석실묘들도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효율적인 관광문화자원화를 위한 기획학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2007~2008년 지산동 고분군 주능선 말단부의 73~7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그것이다. 특히 73호분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목곽으로 확인되어, 석곽묘문화 이전의 목곽묘문화가 실재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2012~2013년에 남쪽 구릉 가운데 위치한 518호분을, 2018년에는 고분군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604호분을 발굴조사하여 북쪽 주능선을 비롯한 남쪽구역의 봉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어졌다.

2018~2019년에는 재난방지 CCTV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탐방로 전구간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조사에서 가야건국신화가 담긴 흙방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21). 그리고 현재 2022년 하반기에 그간 조사되지 않았던 5세기 중후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268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표 1>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고령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현황(대가야박물관 2015)

조사연도	고 분 명	조사기관(조사자)
1910	(舊)갑·을·병호분(주산 동남 산자락)	조선총독부(閔野貞, 谷井濟一)
1915	갑·을·병호분(주산 동편)	조선총독부(黑板勝美)
1917	56·71·131호분(주능선 동남쪽 경사면)	조선총독부(黑板勝美, 今西龍)
1918	408·409호분, (舊)3호분(남쪽 구릉 동사면)	조선총독부(浜田耕作, 梅原末治)
1920	절상천정총	조선총독부(谷井濟一)
1922	(舊)1·2호분	조선총독부(梅原末治)
1939	5호분(傳금림왕릉) 외3기(주능선 정상부)	조선총독부(有光敎一, 齋藤忠)
1977	44, 45호분	경북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1978	32~35호분 등	계명대학교박물관
1994~1995	왕릉전시관부지(30호분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2000	대가야박물관부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소형 고분군	영남대학교박물관
2007~2008	73~75호분	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소형 고분군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2013	518호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604호분	충청문화재연구원
2019	재난방지시설 조성부지	대동문화재연구원
2020	소형 고분군	대동문화재연구원

대부분의 정비는 앞선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성격규명과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그간의 정비현황을 소개하고,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뒤 향후 유적 정비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지산동 고분군 정비 현황

문화유산에서의 ‘정비’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보존’, ‘활용’, ‘관리’의 개념을 포괄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유적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 극대화하기 위해 유적과 유적주변에 행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문화재청 2011). 이러한 개념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정리하고 있으며,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고분유적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분의 성격, 위치와 경관, 물리적 구성과 유적 및 유물 등의 특성이 그것이다. 또, 정비에 있어서 원형유지의 원칙, 공개의 원칙, 관리의 원칙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

고분군이라는 유적의 특성상 정비를 통해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어 유적정비의 주된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오랜 기간 동안 정비를 해오면서 여러 기조에 따라 정비되어 왔다. 이러한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정비의 시작은 1977년 44·45호분의 발굴조사부터이다. 약 45년 정도의 비교적 오랜 기간 정비를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정비가 일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정비 당시의 사회인식이나 정책기조, 예산규모에 따라 정비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표 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획기구분

구 분	내 용
제1기 (1910~1945)	일제강점기 일인학자들에 의한 조사 및 정비
제2기 (1945~1977)	해방 이후 유적정비의 침체기
제3기 (1977~2010)	44·45호분 발굴조사 이후 정비의 시작
제4기 (2010~현재)	종합정비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 정비의 시작

이러한 정비의 주요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는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1. 제1기(1910~1945)

먼저 제1기인 일제강점기에는 7차례에 걸쳐 20여기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조사보고서를 비롯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출토유물 역시 대부분 향방이 모호하다. 이 시기 정비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발굴조사를 위한 고분의 분포조사, 일련번호 부여 정도가 이루어졌음이 몇몇 기록에서 확인된다. 1918년에 드러나 있는 봉토분을 중심으로 34기에 대한 번호표를 세웠고, 지산동 고분군 전체에 100여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1920년에는 200여기로 기술되기도 하였고, 1930년대에는 600여기로 추산되었다. 또 발굴조사 된 고분이 어떤 식으로 정비되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원상복구 차원에서 복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9년에는 지산동 고분군이 고적 제113호로 지정 고시 되었으며, <그림 1>은 당시 지정 관련 서류인데, 여기에는 지정 대상 지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서류의 후미에 ‘고령읍 서방에 있는 주산으로부터 멀리 남남동으로 뻗은 구릉의 봉오리에 연속해서 혹은 동면한 산복 일대에 약 587기의 고분이 줄

朝鮮總督府官報		第三千八百二十五號
●朝鮮總督府告示第八百五十七號		
朝鮮實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第一條ニ依リ左ノ道指定ス		
昭和十四年十月十八日		
第一三號	高靈池山 洞古墳群	慶尙北道高靈郡 高靈面池山洞
池山洞山一八番	林野一町四段	池山洞山一八番
池山洞山一七番	林野一町五段	池山洞山一七番
池山洞山一六番	林野一町一段	池山洞山一六番
池山洞山一五番	林野一町二段	池山洞山一五番
池山洞山一四番	林野一町三段	池山洞山一四番
池山洞山一三番	林野一町四段	池山洞山一三番
池山洞山一二番	林野一町五段	池山洞山一二番
池山洞山一一番	林野一町六段	池山洞山一一番
池山洞山一〇番	林野一町七段	池山洞山一〇番
池山洞山九番	林野一町八段	池山洞山九番
池山洞山八番	林野一町九段	池山洞山八番
池山洞山七番	林野一町十段	池山洞山七番
池山洞山六番	林野一町十一段	池山洞山六番
池山洞山五番	林野一町十二段	池山洞山五番
池山洞山四番	林野一町十三段	池山洞山四番
池山洞山三番	林野一町十四段	池山洞山三番
池山洞山二番	林野一町十五段	池山洞山二番
池山洞山一番	林野一町十六段	池山洞山一番
池山洞山	林野一町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二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三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四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五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六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七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八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一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二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三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四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五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六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七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八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九十九段	池山洞山
池山洞山	林野一町一百段	池山洞山

朝鮮總督 南 次郎

그림 1.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고적 지정사항

지어 군재한다. 주산에 가까운 척릉에 존재하는 5기의 고분이 가장 큰 것이며 대가야 시대의 왕릉이라 불린다.’라는 내용의 지정사유서가 붙어 있다. 또 1941년에 고적표석을 세우면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과 경북도지사 사이에 오간 공문서 남아있는데, 당시 지산동 고분군에 대형 표석 3개를 세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대가야박물관 2015). 그 중 1개는 대가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이후 2004년에 고령군은 일제강점기에 단절⁸⁹⁾되었던 고분군의 남북을 연결하는 ‘지맥잇기 사업’을 통해 고분군의 원형회복, 관람객의 편의 및 동물이동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4>는 ‘지맥잇기 사업’의 모습이다. 2007년에는 관광문화자원화를 위한 기획학술조사의 차원에서 73~75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가 완료된 고분을 정비하는 등 고분군의 정비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림 4. 지맥잇기 사업으로 남-북이 연결된 지산동 고분군

4. 제4기(2010~현재)

제4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비활동이 이루어졌다. 우선 2010년에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봉토분 704기에 대하여 일련번호가 확정되었고,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2015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2016년부터 2025까지 10년간의 단계별 정비계획이 담겨있다. 또 최근

89) 해당 길은 ‘덕곡재’라 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고분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개설되었다.



그림 6. 시멘트 포장 탐방로 현황(좌: 정비 전, 우: 정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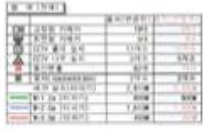


그림 7. 지산동 고분군 재난방지 CCTV 설치 현황

설치하였으며, 관리 담당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야간조명은 야간에도 고분군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특히 조명기마다 위치번호와 담당사무실 전화번호를 함께 부착하여 고분군 내 재해 혹은 안전사고 발생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 당시 석축과 시멘트로 포장된 탐방로 대부분을 철거하고, 친환경 보행매

트로 대체하는 등 유적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하였다. <그림 6>은 시멘트 포장 당시 탐방로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것이고, <그림 7>은 재난 방지 CCTV현황이다.

그간의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⁹⁰⁾. 다만 제1~2기에는 정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별다른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지산동 고분군 정비현황(정동락외 2017 수정)

연 도	사업내용
1977	고분 10기, 관람로 703m
1978	고분 5기, 관람로 90m
1979	고분 1기, 관람로 569m
1980	고분 3기, 관람로 150m
1982	진입로 주변 조경수 식재
1993	고분 2기, 배수로 120m, 벌목
1998	고분 10기, 배수로 292m
2008	고분 16기, 수목 2,847본 벌목
2009	고분 26기, 수목 3,216본 벌목
2010	고분 분포조사, 고분 14기
2012	고분 4기, 벌목 등
2013	고분 20기, 안내판 3개, 표석설치 125개 등
2014	고분 17기, 표석설치, 외래수종 갱신 등
2015	고분 48기, 주변정비(6,527㎡)
2016	고분 41기, 주변정비(1,314㎡), 탐방로정비, 수목정비 등
2017	고분 1기, 잡목제거 등
2018	고분 11기 등
2019	고분 13기, 잡목제거, 재난방지CCTV설치, 야간조명설치 등
2020	고분 11기, 탐방로정비, 잡목제거, 수목식재, 안내판정비 등
2021	고분 4기, 탐방로정비, 수목식재 등
2022	고분 2기, 탐방로정비, 수목정비 등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정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고분군의 정비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특정시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가장 최근인 제4기 중에서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지산동 고분군의 보수정비는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지

90) 긴급보수 혹은 경미한 정비는 제외하였다.

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약 7~10억원을 투입하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정비예산은 <표 4>와 같다.

표 4. 지산동 고분군 최근 5년간 정비예산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예산(천원)	1,000,000	700,000	750,000	683,000	1,150,000	3,248,000

최근 5년간의 주요 정비는 고분정비, 수목정비, CCTV설치, 야간조명 설치, 안내판 정비 등이 있다. 특히 고분정비는 2014년 이후 모든 정비대상 고분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통해 기저부 범위를 확인한 뒤 정비하고 있다. 정비 대상 고분을 발굴조사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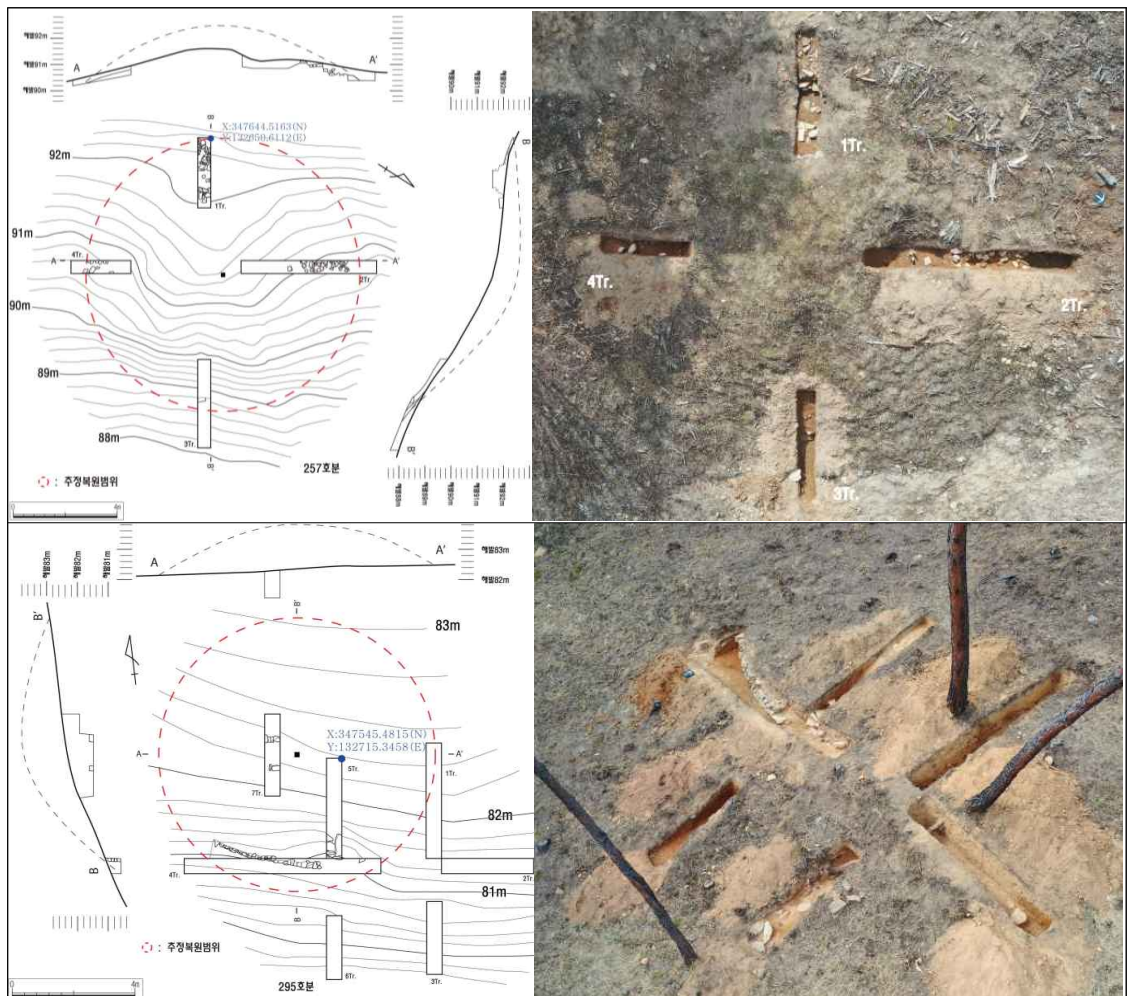


그림 8. 기저부 조사 사례(대동문화재연구원 2022)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산 확보와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저부조 사를 통한 고분 정비가 유적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판단하여서이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기저부조사를 통해 당초에 지표조사로 확인된 고분이 시굴조사 결과 고분이 아닌 경우가 더러 확인되어, 이러한 정비방법이 주효하다 생각된다.

그리고 고분군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경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목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래수종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주능선의 대형분과 탐방로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고분에 위해가되지 않는 몇몇 탐방로를 위주로 국내야생종인 관목을 식재하고, 매년 3회 이상 예초를 진행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유적을 단순정비에서 그치지않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외부 방문객들이 유적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지산동 고분군 내 안내판을 정비하여, 고분군을 찾는 이들에게 유적의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탐방로를 따라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 야간통행시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였다.

현재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는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생각된다. 앞서 말한 ‘유적 정비’ 기조⁹¹⁾를 고려하여, 대규모의 적극적 정비는 계획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향후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될 수목환경에 대한 정비와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정비, 향후 활용적 측면에서의 정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다.

Ⅲ.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성과와 과제

1. 정비의 성과

1) 고분군 정비의 한 모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조사와 그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졌다. 지산동 고분군은 문화재 지정면적이 830,130㎡에 달하는 대규모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목관리, 탐방로개설, 고분정비, 재난방지CCTV 설치 등의 정비가 어느 정

91) 현재의 유적정비는 ‘복원’보다 ‘보존’이 강조된 현상유지를 강조한다.

도 이루어져, 유적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적정비를 위한 기본계획과 조경식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재청의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구릉성 고분군’ 정비의 대표사례, ‘활용형 고분’의 대표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고분군 정비의 한가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산동 고분군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확보를 정비의 중점사항으로 두었고, 그 결과 <그림 9>처럼 고령군 시가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경관을 갖추었다. 또 고분군 전체에 걸쳐 탐방로를 조성하여 고분군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고, 고분군과 인접한 박물관에서 지산동 고분군과 출토유물의 실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그림 9. 금산재에서 바라본 고령 지산동 고분군

2) 사유지매입 및 분묘이장

지산동 고분군의 사적 지정 면적은 830,181㎡이며, 총 70필지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이 지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2022년 7월기준 지산동 고

분군의 토지소유현황은 <표 5> 및 <그림 10>와 같다.

표 5. 지산동 고분군 토지소유현황

소유별		필지수(필지)		면적(m ²)		비율(%)	
국공유지	국유지	46	17	786,923	465,290	94.79	56.05
	군유지		29		321,633		38.74
사유지		24		43,258		5.21	
계		70		830,181		100	

현재 국공유지는 46필지이며 786,923m²로 전체 95%정도이다. 사유지는 24필지 43,258m²로 전체 5%정도이다. 고분군의 일관되고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체를 국공유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행히 지산동 고분군은 95% 달하는 면적이 국공유지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잔여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소유주에게 안내하고 단계적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유지에는 현재 종종의 분묘와 개인분묘가 포함되어 있는데, 종종의 분묘는 조선시대부터 3~400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그 나름의 역사성을 존중하여 고분군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대의 분묘는 대가야고분과 어우러져 고분군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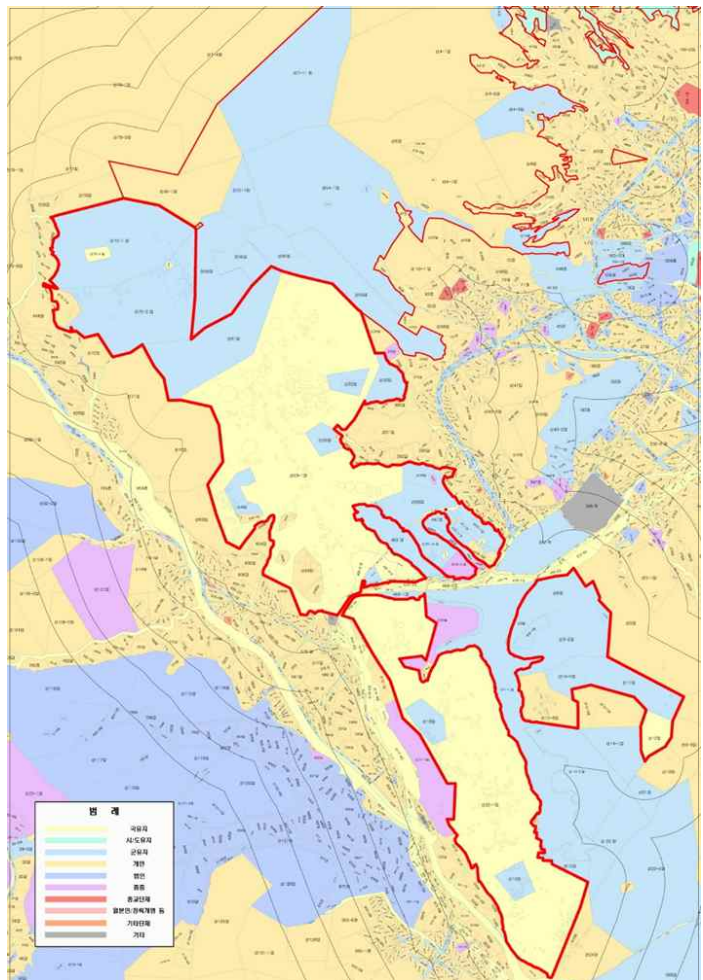


그림 10. 지산동 고분군 토지소유현황(정동락외 2017)

일대의 선산으로 신성한 공간이라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개인분묘의 연고자가 이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장비용을 보상하여 이장을 추진하고 있다.

3)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

고분군 주변으로는 대가야박물관을 비롯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대가야를 주제로 한 문화시설로 고분군과 연계하여 건립된 것이다. 특히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가야왕릉전시관의 경우 지산동 44호분의 내부구조를 재현한 것으로 유적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대가야왕릉전시관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산동 고분군을 찾는 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대표시설이다.

이외에 고분군 동편에 위치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기존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터에 조성한 문화시설로 내부에는 가야를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체험공간,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11>은 관광지 조성 이전 군부대의 모습이며, 군부대로 하여금 유적의 훼손이 우려되어 유적정비의 차원에서 군부대를 이전하였다. 숙박시설은 고분군이 조망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되었다. 고분군 남편에 위치한 대가야생활촌은 일종의 민속촌과 같은 곳이며, 내부에는 최신기술인 VR, AR,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체험시설과 다양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이들 문화시설들은 고분군의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부구간을



그림 11. 과거 지산동 고분군 인접 군부대 전경

제외하고는 고분군과 시설물 사이를 수목으로 하여금 차폐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시설에 과도하게 인원이 집중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인원을 계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4) 관리시스템 구축

지산동 고분군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과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그 면적만 830,181㎡에 달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대응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또 2021년 기준으로 연 3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고분군을 찾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재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하지만 고분군의 지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상시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고령군은 고분군의 재난방지 및 상시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2019년 고분군의 상시관리를 위해 재난방지 CCTV 27대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탐방로부지 전 구간에 대하여 시·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재난방지 CCTV는 담당부서와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고분군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2>는 재난방지 CCTV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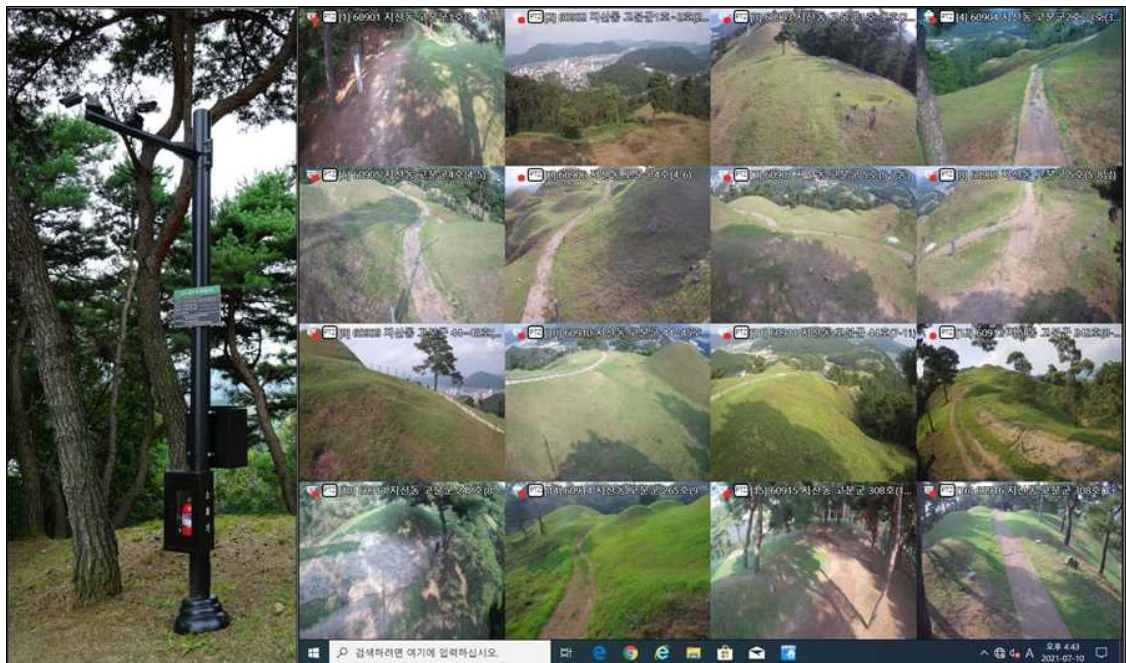


그림 12. 지산동 고분군 내 CCTV 설치현황(좌) 및 모니터링 화면(우)

모습과 담당부서 내 모니터링 화면이다. 또 CCTV 폴대는 최대한 고분의 경관에 어우러지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각 폴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는 202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방재드론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재드론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고분군을 촬영하여 영상데이터를 축적하고, 유사시 상시 비행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예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촬영된 영상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지형변형, 유동인구, 소외지역관찰 등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중이다.

5) 세계유산등재추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2011년부터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였고, 2013년 12월에는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이후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에는 합천 옥전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추가되어 총 7개의 가야고분군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고분군의 정비에 있어서 향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기존에 「문화재보호법」에만 의한 법적기준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세계유산에 대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도입하여 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니,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밖의 지역까지 정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향후에는 연속유산으로서 7개 가야고분군이 공통된 정비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하여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차원에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통합수목관리와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등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유적의 정비는 단순 정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까지 이어져야 한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의 상징적 장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을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 및 각종행사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매년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에게 고분군의 가치를 알리고, 정비된 고분군이 지역민들의 유적공원으로 기능함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 2020년부터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지산동 고분군 탐방로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유산등재를 홍보하고 고분군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고분군 일부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고령군 문화재야행’을 진행하는 등 고령군은 대중들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직접 방문하여 유적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3>은 각종 행사모습이다.



그림 13. 지산동 고분군 각종 행사모습

2. 정비의 과제

1) 고분정비의 오류

지산동 고분군 내 고분 정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2014년 이후에는 기저부조사를 통해 고분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뒤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정비된 고분은 대부분의 고분은 발굴조사와 기저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일부 고분은 그러한 과정 없이 단순 정비된 경우가 있다. 최근 당초 봉토분이라 생각되었던 고분들이 기저부조사 결과 고분이 아니거나, 잔존 봉분과 실제 봉분의 범위가 다른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앞서 정비된 고분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고분번호를 부여하고 표석을 설치하여 정비한 (의심)고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분을 대상으로 기저부조사를 실시한다면 유적 전체에서 볼 때, 이미 정비된 상태의 유적을 조사라는 명분으로 변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근 유적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물리탐사(GPR)를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백제의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시기록은 있으나 위치가 모호한 일부고분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사례가 있어, 지산동 고분군의 사례에도 활용할만하다.

또 과거 발굴조사된 44·45호분의 경우는 발굴조사 이후 정비단계에서 현상유지가 아닌 복원의 개념에서 정비가 이루어져 조사 당시 봉분의 크기보다 크게 정비되었다. 정비 당시 고분이 거쳐 온 세월동안 봉분이 입었을 피해를 고려하여, 봉분을 복원정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는 44호분의 정비 당시 모습이다. 지금의 정비기조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당시의 규모로 재정비하기 보다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를 안내판에 기재하거나 44호분을 모형전시한 왕릉전시관을 통해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분을 재정비한다면 그 정비행위에 의하여 또 차량이동, 주변지형 변형 등 다른 부분에서 변형 및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지산동 44호분 정비 당시 모습

고분 정비시 고분의 외면과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여 마무리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고분복원 시 적층식의 잔디식재를 진행하였다. 적층식 잔디식재방식은 봉분의 성토 시 잔디를 층층이 식재하는 방식으로, 향후에 정비된 잔디의 훼손을 최소화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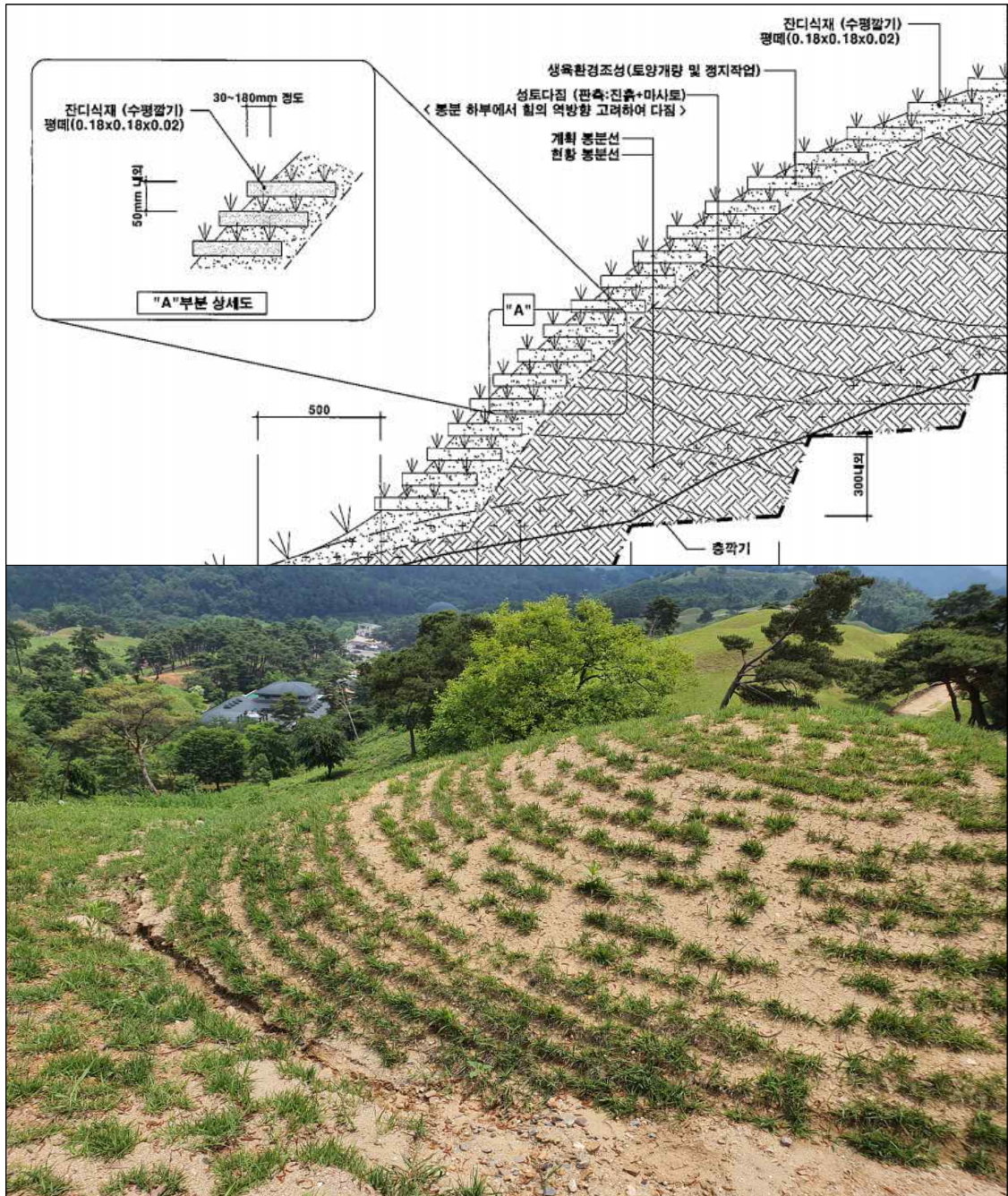


그림 15. 적층식 잔디식재방식 사례

기 위한 방식이다. 하지만 적층식의 잔디식재방식은 <그림 15>에서 볼수 있듯이 잔디의 일부분이 봉분에 덮혀 있고 잔디층 사이에 간격이 발생해 토사유실이 이루어져 잔디가 제대로 활착하기 힘든 방식이다. 반면에 평떼식 잔디식재는 안정적으로 잔디의 활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유적의 여건과 환경 등을 따져 더 적합한 잔디식재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재지정 구역 조정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고적지정 당시 구역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당시 자료가 남아있지만 지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알기는 어렵다.

2010년 정밀지표조사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당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고분의 분포범위가 문화재구역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은 2010년 지표조사결과 도면인데, 예컨대 고분이 분포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문화재구역을 포함하고 있다던가, 남쪽 구릉 일부분은 다수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당시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한 상황이거나 혹은 고분분포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그림 16. 지산동 고분군 고분분포 및 사적범위(정동락외 2017)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현재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는 대부분 문화재구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⁹²⁾. 정비는 고분군의 주능선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는데, 이 부분은 모두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고분의 분포에 따라 정비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문화재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구역 조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시 조정하여 유적을 올바르게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재해관리의 한계

지산동 고분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목관리와 우수피해 관리이다. 고분군은 산지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수목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외래수종⁹³⁾을 중심으로 다량의 잡목제거를 실시하고, 수종을 선별해 남겨두는 등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목들이 고분의 봉분에 자라는 경우가 있어 나무의 뿌리가 주체부를 훼손하거나 수목들이 봉분의 훼손이 우려된다. 일시에 수목정비를 진행할 경우 유적 원형의 훼손, 우수에 의한 산사태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목정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장마기간이 되면 탐방로에 물결이 파이거나 고분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17>은 최근 우천피해로 물결이 파인 탐방로와 붕괴된 고분의 모습이다. 유적정비의 특성상 지하에 배수시설을 매립할 수 없고, 주변에 배수로



그림 17. 우천으로 인해 훼손된 지산동 고분군

92) 물론 정비의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모두 포함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요한 정비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3) 과거 국토 녹화사업을 통해 자생력이 좋은 외래종인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가 다량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를 정비하더라도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우량을 많을 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수에 의한 피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부분적 정비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된다.

4) 보행약자의 접근성 취약

지산동 고분군은 해발 약310m의 주산에서부터 평지까지 뺏어내린 가지능선에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분군 자체의 경사가 심한편이어서, 비교적 완만한 주능선을 따라 탐방로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보행약자가 고분을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탐방로가 대부분 보행매트이거나 목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다.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간마다 벤치를 설치하거나 나무그늘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고분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여군의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등이 있다.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에서는 VR을 통해 부여군의 백제유적을 항공뷰를 통해 둘러볼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유적에 대한 해설과 이미지를 더하여 더욱 풍부하게 유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보행약자들이 간접경험을 통해 유적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취약문제를 극복할 적합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고는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대회의 한 주제로 서술하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1963년 사적이 지정된 이래로 꾸준히 정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매년 7~10억원 가량의 정비예산을 투입하여, 꾸준한 유적정비를 추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

다. 하지만 앞으로 유적을 정비하면서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사례를 들어, 고분군 정비의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유적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유적의 사적지정과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설정은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적지정 등 유적정비를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토지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유적의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성격규명이 필요하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경우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분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향후 고분군의 정비는 고분정비와 수목정비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분정비 시 모든 고분을 발굴조사 후 진행하기에는 정비효율과 재원마련 등에서 부담이 되는데, 이 경우 지산동 고분군의 사례와 같이 정비대상 고분에 대하여 시굴조사 즉, 기저부조사를 통해 고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고분정비에 필요한 정보만 확보한 뒤 진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분군의 정비계획에는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계획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가야고분군은 특히 가지능선 혹은 구릉성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산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지대에는 자생력이 좋은 외래수종이 무분별하게 자라있는데, 백화산 고분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목들을 무조건 제거하기 보다는 고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목을 제거하고, 고분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수목정비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비된 유적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의 문화재부서에서 해당 지자체의 모든 유적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CCTV의 경우 케이블매립이 필수적이기에 부담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적에 산불과 같은 재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소화기나 방재함 등을 설치하는 것도 필수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재난방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고분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령군, 2015,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 _____, 2018, 『지산동고분군 조경식재 기본계획』
- 김환희·이나은, 2021, 「백제 왕릉의 조사와 정비 현황 검토-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백제고분 정비의 어제와 오늘』,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문화재청
- 대가야박물관, 2015,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고령 지산동고분군 정밀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_____, 202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I』
- _____, 202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II』
- _____, 2021,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III』
- _____, 202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대상지(제256호분 주변) 시굴조사 약보고서』
- 문화재청, 2011, 『고분의 보존관리 매뉴얼』
- 정동락·박일찬, 「고령 지산동고분군 보존관리방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학술대회』, 문화재청·경상남도·경상북도·김해시·함안군·고령군
- 정인태, 2021, 「신라 가야지역 고분의 조사와 정비」, 『백제고분 정비의 어제와 오늘』,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문화재청
- 조명일, 2022, 「호남 동부지역 가야유적 보존과 활용방안」,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정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신웅주(조선대학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치소지의 주 고분군으로 피장자는 대가야 최고 지배자를 비롯하여 유력층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일찍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었고, 2013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보수정비사업이 있었는데, 매년 7~10여 억원을 투입하여 고분정비, 수목정비, CCTV설치, 야간조명 설치,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발굴조사와 그에 따른 정비를 이루어냈고, 문화재청의 고분의 보존메뉴얼에 담길 정도로 대표적 사례가 되어 고분군 정비의 모델이 되었던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홍선생님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의 성과와 과제」 원고를 접하면서 고분군의 연혁과 정비성과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리하신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역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목구조물의 결과인 고분군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형태의 변화를 겪게 마련입니다. 고분의 형태, 봉분의 높이, 기저부의 형성 방식은 각기의 양식과 더불어 고유의 특성을 지녔을 텐데 현상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혁조사,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계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분군의 정비과정에서 원형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체크사항이나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측기기를 사용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문화유산은 역사가 만들어낸 인공물이지만 현대사회 개발행위의 결과물은 과거의 인공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안군 가야읍에 위치하는 말이산 고분군에 비한다면, 도심과 이격되어 있어 보존관리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릉성 고분군’의 성격을 띠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의 도시 인공구조물과 함

께 일대의 경관을 형성합니다.

고령군에서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자체의 보존 정비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전통적인 경관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분군과 조화를 이루는 대가야읍의 경관 형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정비와 활용방안

안선희(원광대학교)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분군 현황
 - III. 보존·정비 방안
 - IV. 활용 방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백두대간 서쪽에 있는 가야의 고분군이다. 백화산 고분군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과 계남면 호덕리 고분군 일부를 포함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백화산 고분군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일부 범위만 정한 것은 국가 사적 지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백화산 고분군은 장수군 장계면과 계남면 일대 백화산 자락에 자리한 가야 수장층의 묘역이다. 이곳에는 직경 20~30m 내외의 대형 고분 20여기를 비롯하여 봉토의 직경이 10m 내외에 이르는 30여 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무덤 내부에서는 다양한 가야토기를 비롯하여 철제마구, 꺾쇠, 교구, 환두대도 등 피장자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케 하는 가야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하나의 봉토 안에 주곽과 부곽이 배치된 다곽식의 형태도 파악되었다. 넓은 고분군 중에서 일부

구역만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뿐 많은 구역이 현재까지도 비지정으로 남아 있다. 주변 산자락에는 봉토가 유실된 석곽묘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밭으로 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고분들이 멸실되기도 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상 장계면 장계리에 해당하는 백화산 자락에도 수혈식석곽묘로 추정되는 43기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고분들은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백화산 고분군은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던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타 지역의 가야 소국에 비해 전혀 뒤쳐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도굴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성격이 규명되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다른 지역의 고분군 사례를 바탕으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백화산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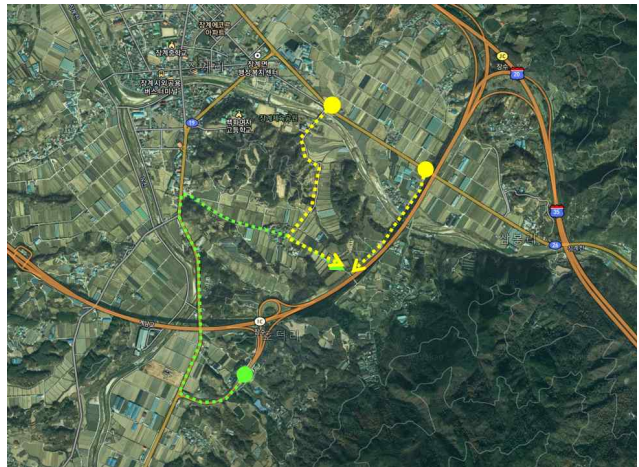
II. 고분군 현황

1. 위치 및 접근성

백화산 고분군은 장계면 소재지의 남쪽 장계면사무소에서 직선상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삼봉리·호덕리·월강리·장계리에 걸쳐 있는 백화산 일대에는 약 120여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북동쪽 240m 지점에는 장계천이 흐르며 제방 너머에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노평마을과 자락정(전라북도 문화재자료)이 있다. 그리고 고분군의 중심부에는 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갈평마을이 있다. 고분군의 서쪽으로는 남북방향으로 유천이 흘러 지나간다.

백화산 고분군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장수톨게이트를 나오면 3.3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백화산 고분군 인근 국도는 장수 변암면에서 계북면으로 지나는 19번 국도와 전주에서 함양으로 연결되는 26번 국도가 있다. 주변 교통이 좋은 편이나 국도에서 고분군까지 연결되는 길은 농로를 사용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에서는 고분군이 보이지만, 국도에서는 고분군이 잘 보이지 않는다.

백화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는 지석묘군을 비롯하여 여러 유물산포지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삼봉리산성에서는 가야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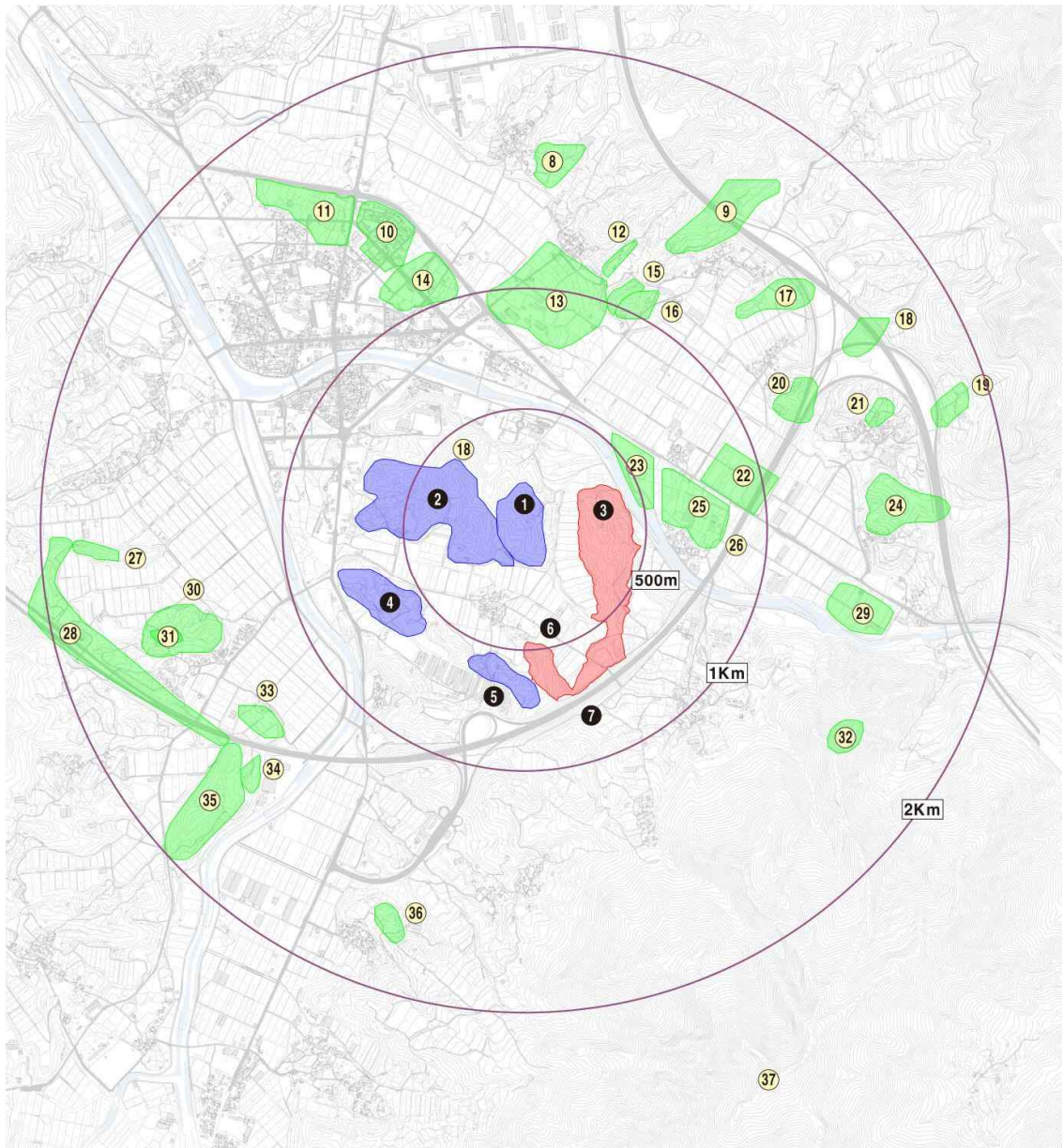


백화산 고분군 접근로



가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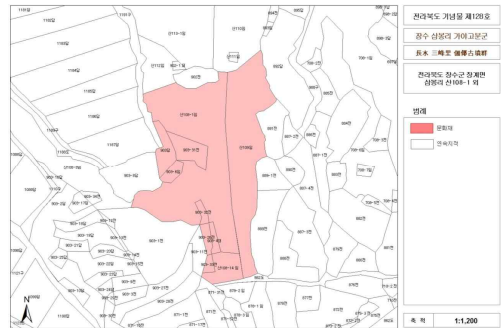
물이 확인되었다. 성돌의 쌓기 방식은 전형적인 가야계 산성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탑이 남아있는 탑동마을은 상당한 높이로 지반을 성토하여 축조하였음이 밝혀져 학계에 관심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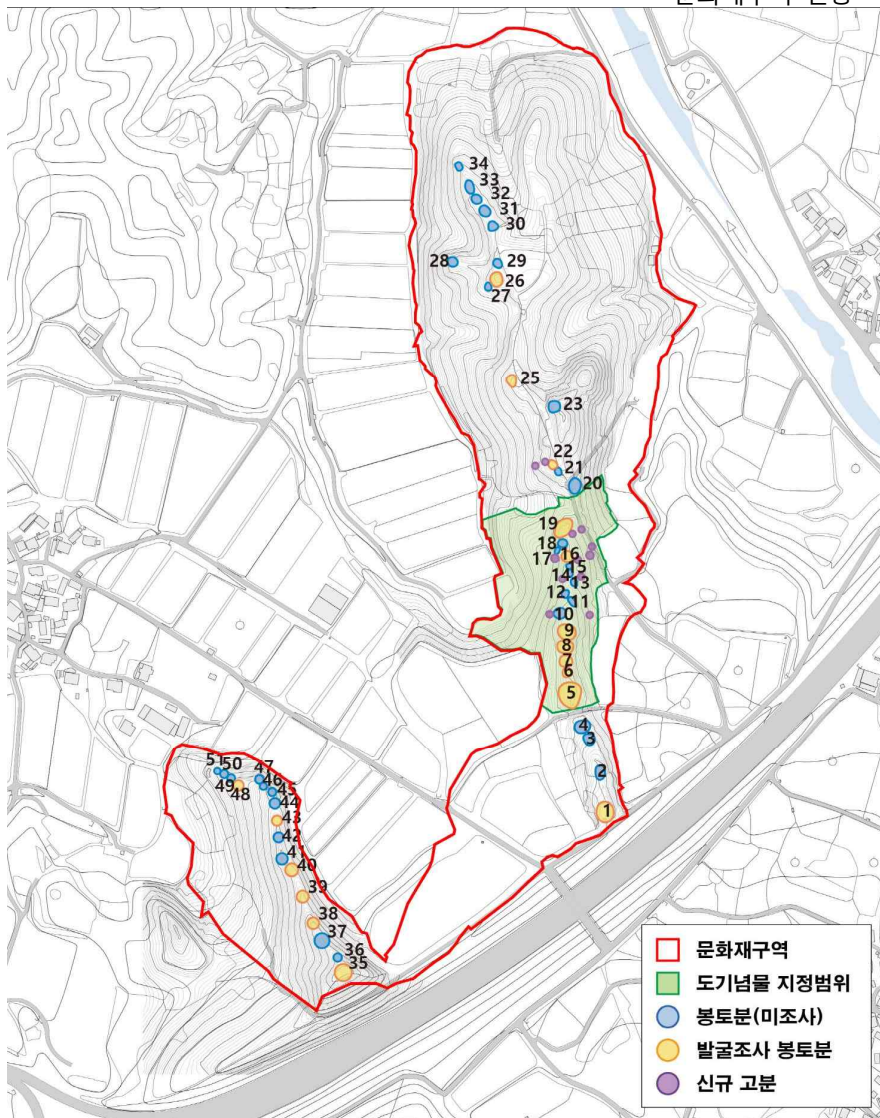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및 주변 유적 현황

2. 문화재 구역 현황

현재 문화재 지정구역은 삼봉리 가야고분군이란 명칭으로 일부 구역만 설정되어 있다. 문화재구역은 주변 구역까지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화산 일대까지 문화재 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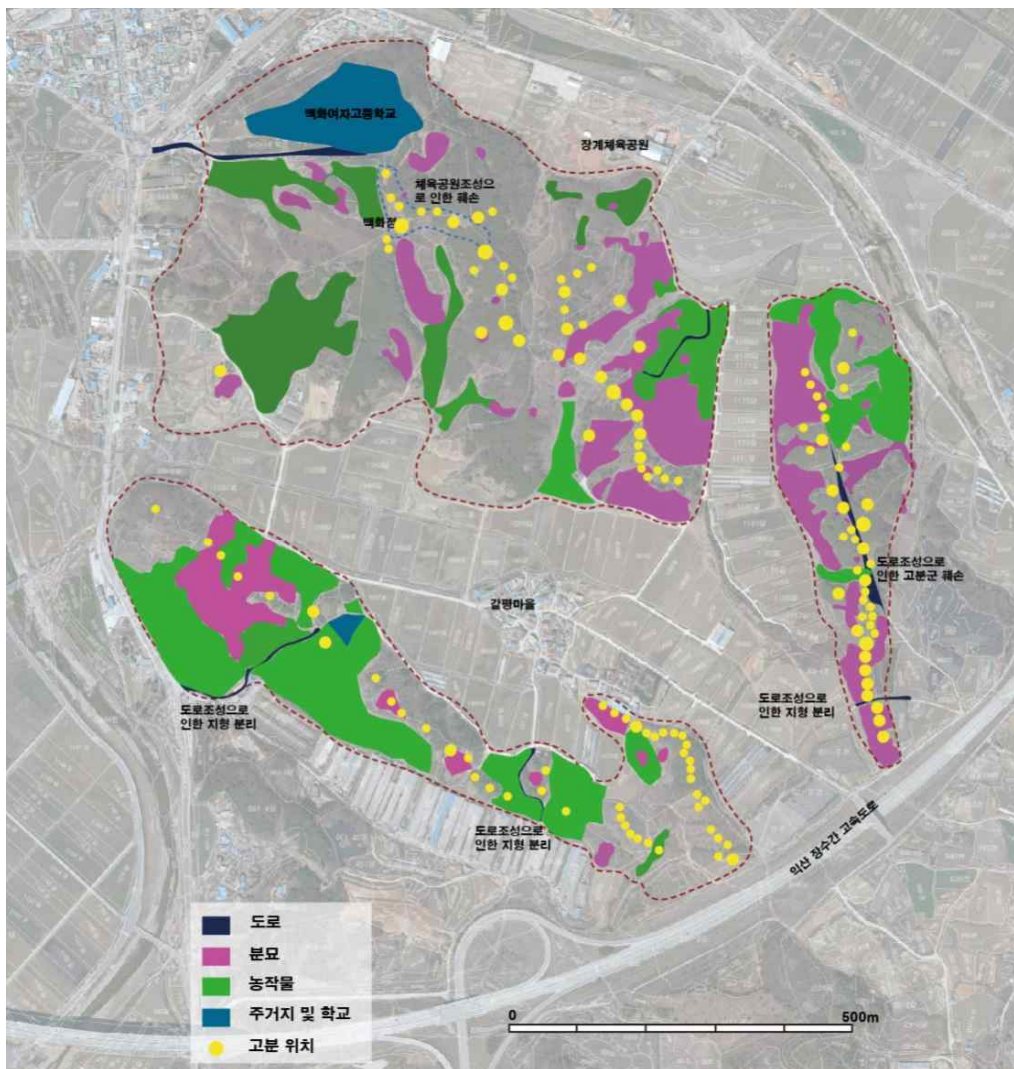
문화재구역 현황



고분 분포 현황도

3. 훼손 현황

백화산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도굴이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돌방이 그대로 노출된 고분도 존재하며, 많은 고분에서 도굴구멍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분군이 주변에는 민묘 및 경작지 조성,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주변 지형과 고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고분군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할 당시 토지 소유주가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고분이 훼손한 사례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분군을 건너지르는 농로를 내면서 고분군이 지형적으로 분리되기도 하였다.



백화산 고분군 훼손 현황



고분 훼손 후 석실에 사용된 부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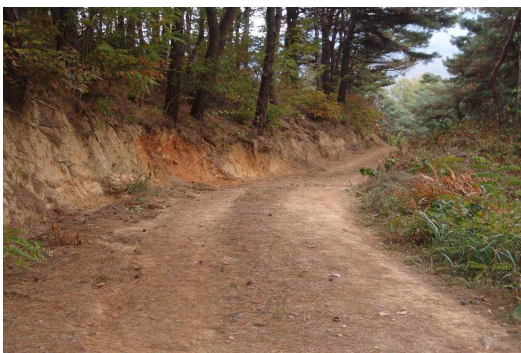
문중 묘지 조성으로 인한 경관 훼손



고분 상부에 민묘 조성



도굴로 인한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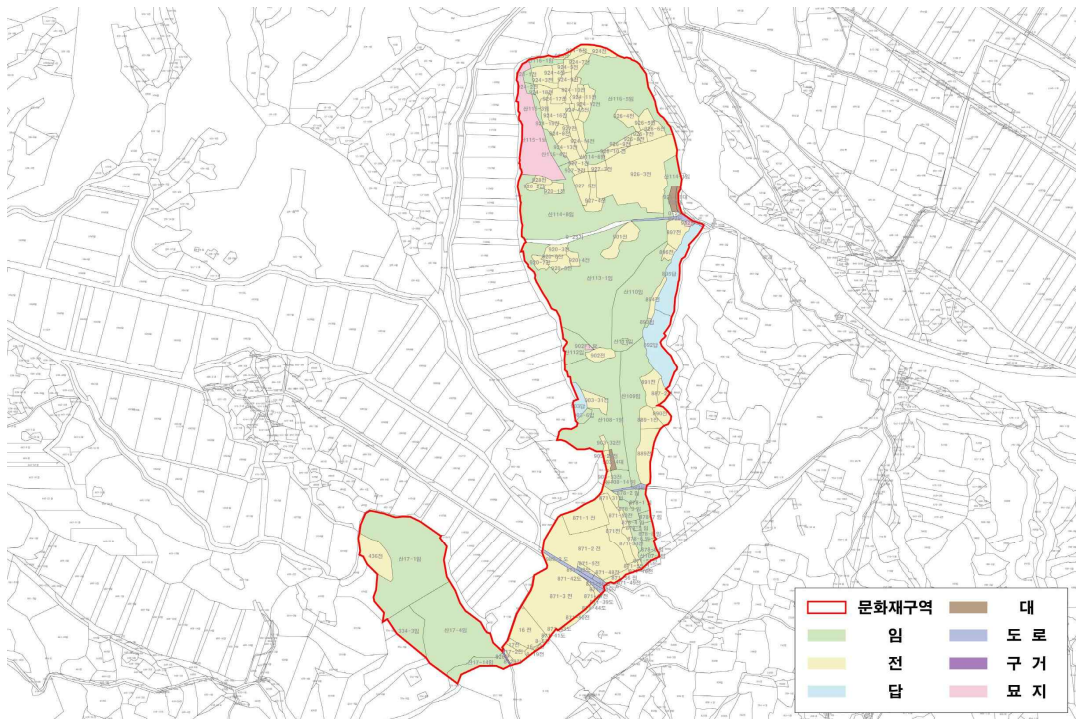
도로 개설로 인한 고분 및 지형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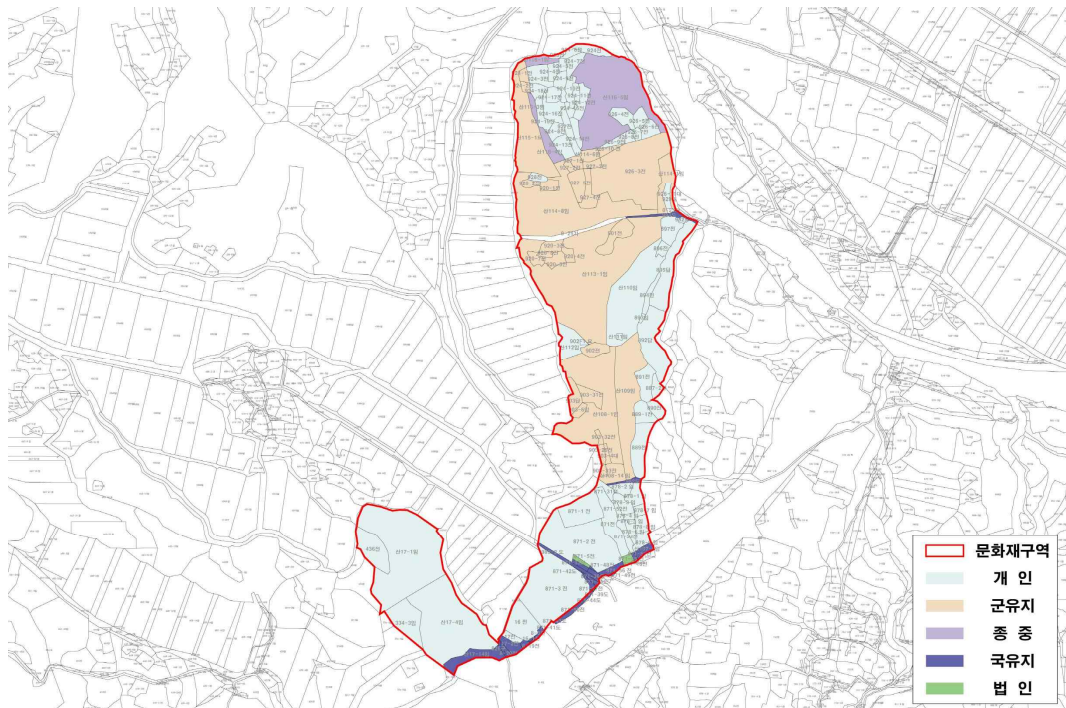
경작지 조성으로 인한 고분 훼손

4. 토지 이용 현황

토지는 대부분 임야와 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반 이상이 문중과 개인 소유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 토지 지목 현황



장수 백화산 고분군 토지 소유 현황

V. 보존 정비 계획

1. 정비계획의 기본 원칙 검토

- 1) 역사 유적의 진정성과 원형 보존 고려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함(문화재보호법 제 3조)
 - 유구 훼손 방지 (사유지 매입 검토)
 - 고분의 경관 회복을 위한 훼손 지형 복구 검토
 - 고분군 보존을 위한 수목 정비
 - 문화재구역 재검토
- 2) 유적의 특성 규명
 - 고분군 특성 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계획
 - 고분군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정비를 위한 실측 조사
 - 식생 환경 조사
- 3)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
 - 탐방객을 고려한 탐방로 정비
 -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계획
 -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 제안
 -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적과 연계된 활용방안 마련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검토
- 4)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 과잉정비 지양
 -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방향 설정
 - 단계별 투자계획
 - 재원확보방안 및 관리운영체계
- 5) 순차별 정비계획
 - 1단계 :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특성 규명
 - 2단계 : 문화재의 원형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한 정비
 - 3단계 : 교육, 전시, 체험 등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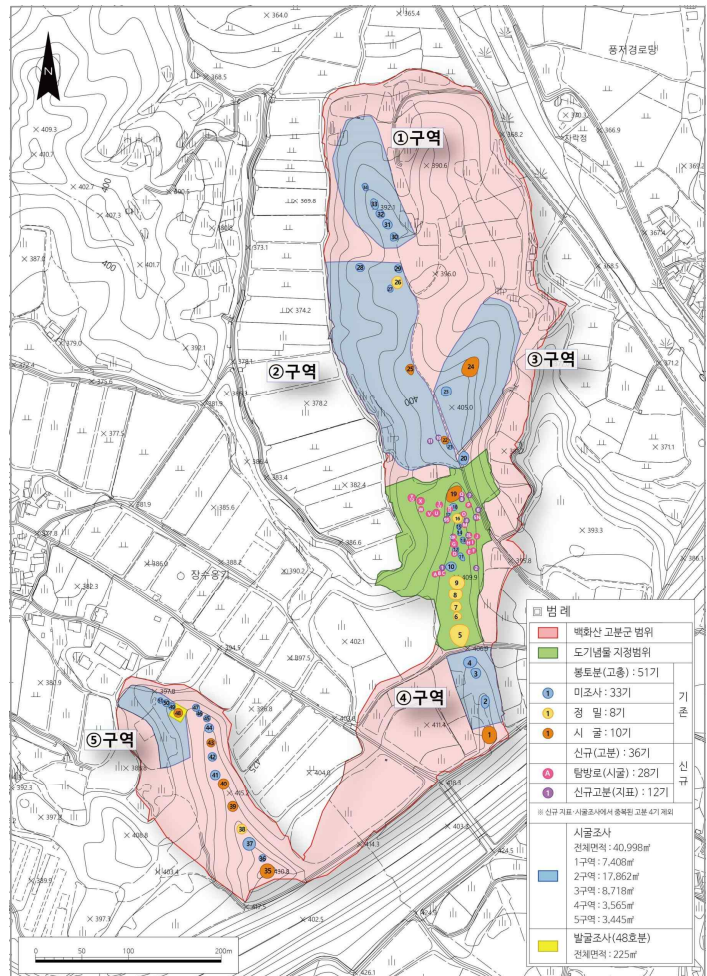
2. 학술조사

백화산 고분군은 대부분 도굴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고분은 석실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동안의 여러 차례 학술조사를 통해 고분의 축조 시기와 축조 세력, 축조 기법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규명되었다.

또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영남지역의 가야 고분과 달리 마한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이 백제, 대가야, 소가야 등과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백화산 고분군의 발굴조사는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고분에 치중되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분군은 백화산 줄기의 주능선에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고분 축조의 선후 과정 및 고분군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하였다. 분포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고분 주변과 고분들 사이에서도 고분을 축조할 때 사용한 석재들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백화산 고분군은 현재 파악된 고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분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며 고분의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발굴조사는 고분군의 주능선 상의 대형고분과 가지능선 상에 위치하는 고분을 능선별로 1~3기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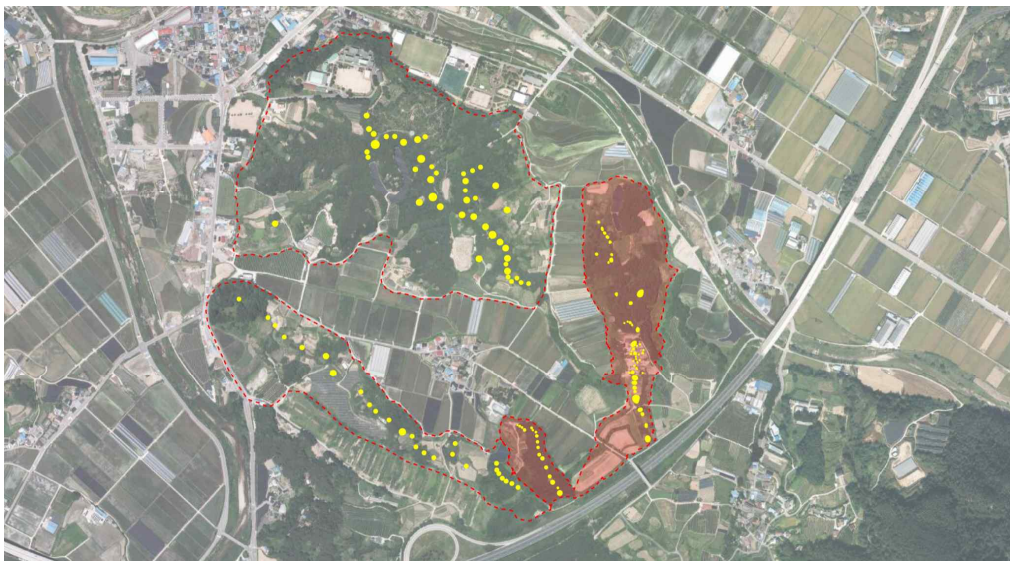
백화산 고분군 조사계획도(전상학 작성)

직하다고 판단된다.

고분의 발굴조사 후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장수군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고분군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연관성 및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후 고분군의 관리번호를 다시 부여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유적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재 지정 범위 확대 및 국가 사적 지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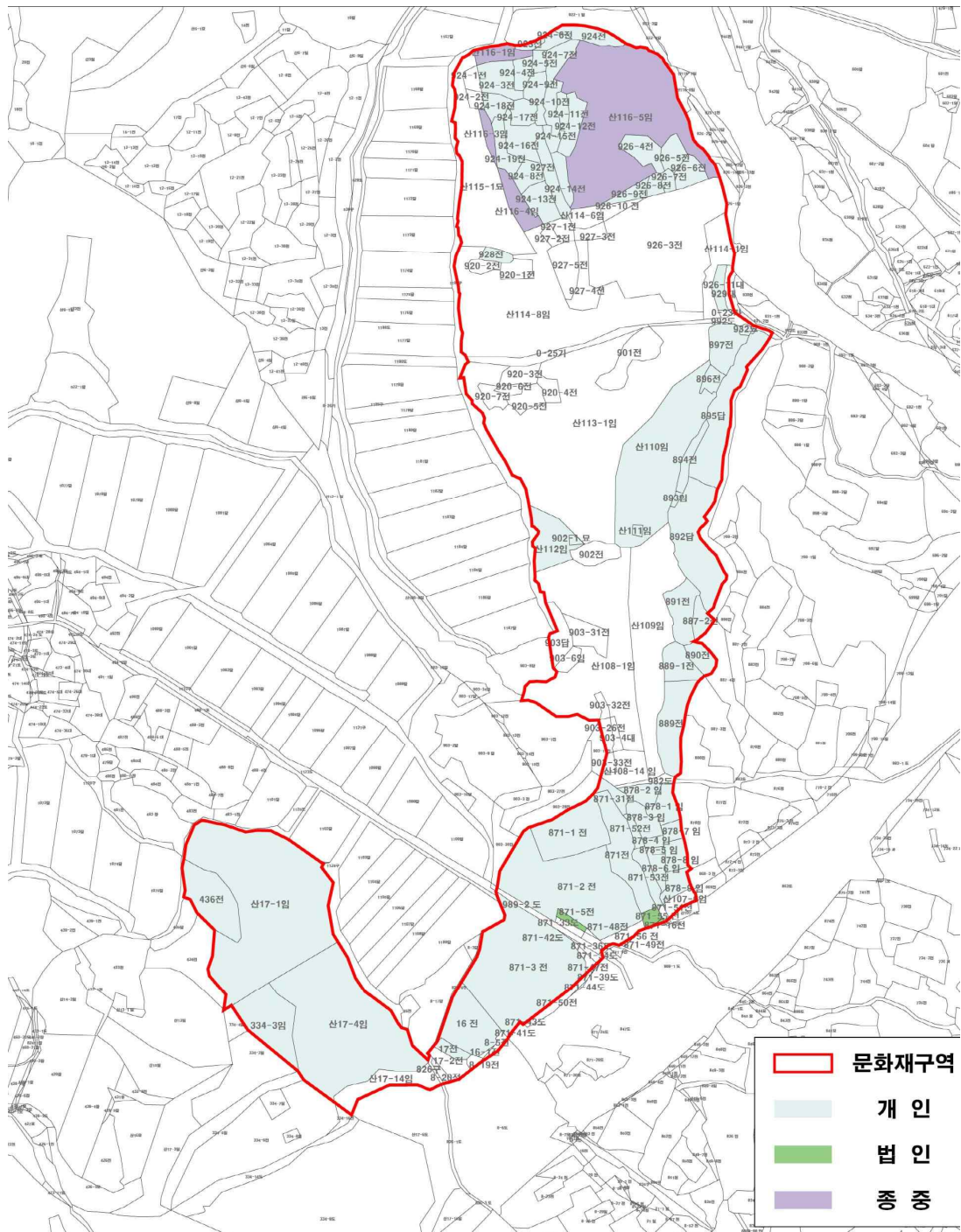
유적지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유적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된다면 문화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 신청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사적 지정 후에는 체계적으로 유적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구역 확장이 필요한 범위

4. 사유지 매입

고분군의 보존과 발굴조사,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종 소유의 민묘와 토지는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매입이 필요한 필지

5. 정비

1) 수목 정비

현재 백화산 고분군은 수목으로 둘러싸여 쉽게 인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고분 상부에 자란 수목은 유적을 훼손하는 요인 중 하나로, 봉분의 구조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토 상부나 주변에 자란 수목은 제거가 필요하다. 고분에서 떨어진 일정 구간은 간벌이 필요하다. 수목이 하부 석실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부 수목을 남겨두어 탐방 시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목의 뿌리가 고분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목 제거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고분 주변의 활엽수는 그늘을 형성하여 잔디 보존에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화산 고분군의 경우 수목을 제거한다면 고분군이 노출되면서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등에서 우수한 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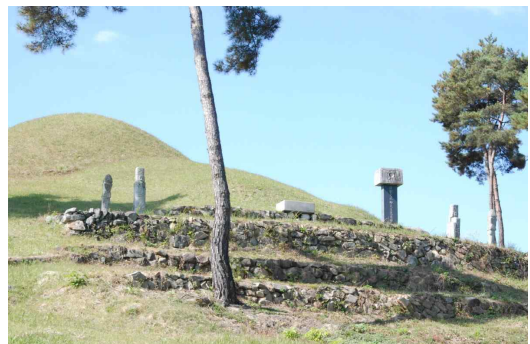
수목을 활용한 휴게공간 조성 사례



수목 정비 사례(고령 지산동 고분군)

2) 민묘 정비

백화산 고분군 주변에는 개인 및 문중의 많은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재구역 주변에만 약 50여 기의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곳곳에서 민묘를 조성하면서 고분이 훼손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지형과 식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민묘는 경관에 부정적인 요소이므로 가능하면 이전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묘 존치 사례 (합천 옥전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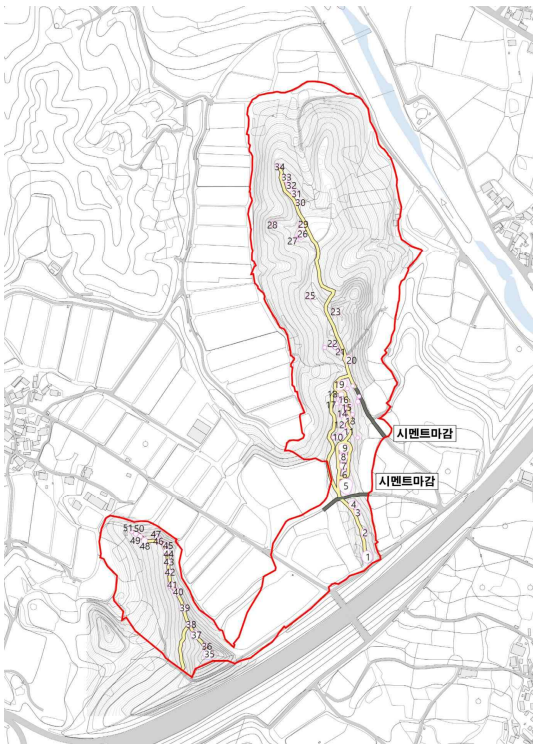
최근에는 고분군 주변에 민묘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민묘 이전 시 발생하는 지형변화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복원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디 또는 야생화 식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 탐방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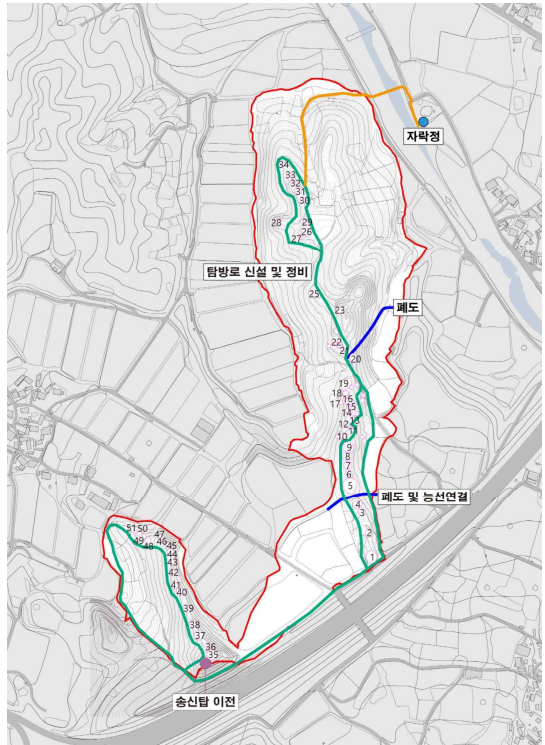
탐방로 정비는 고분의 보존과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탐방로는 일부 고분 상부로 구성되어 있어 탐방로 개설이 필요하다. 탐방로는 가능한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분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된다. 토지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는 시굴조사를 먼저 시행하여 하부에 딸린무덤 등 시설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탐방로는 지형 및 지질의 성격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노약자를 고려한 탐방 동선계획도 요구된다. 탐방로가 조성되지 않고 고분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탐방객들이 봉분 상부로 지나다니면서 유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분군과 탐방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계 구분은 목재 기둥을 매립하여 기둥 사이에 섬유 재질의 밧줄을 연결하는 것이 흔한 방식이다.

탐방로는 고분 근처에 인접시키는 것이 관람 여건에 더 좋지만 자칫하면 고분군이 훼손될 수도 있다. 탐방로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지형의 경사에 따라 계획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고분군의 탐방로는 목재 데크, 경화토 포장, 박석 깔기, 잔디 식재 후 보호판 설치, 보행 매트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보행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행 매트는 유지관리가 쉽지 않으나 친환경적인 재료로서 지형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형의 경사가 큰 곳에는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목재 데크는 미관상 좋으나 유지관리가 쉽지 않고 유적지의 경관을 훼손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박석깔기는 유지관리에 용이하나 보행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경화토 포장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방법이나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구성이 약해 자주 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일부 고분군에서는 쇠석을 깔아 놓은 곳도 있으나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탐방로는 탐방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탐방로 현황



탐방로 정비

4) 고분 정비

백화산 고분군은 많은 고분들이 도굴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분의 정비는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정확한 고증이 어려울 때는 복원하지 않고 현상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원할 경우에는 원형 고증이 정확히 이루어진 때에만 가능하며 봉분을 높게 하는 등 과잉 정비는 지양하여야 한다. 오히려



백화산 고분군 옛 모습 (출처 : 문화재청)



발굴조사 후 정비가 완료된 백화산 고분군

과잉 정비를 할 경우 유적의 진정성과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고분 정비는 유적 보존에서 활용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이므로 유적을 보존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고분의 봉토는 유실 방지를 위하여 상부에 잔디를 식재하고, 이미 유실된 봉토는 부분적으로 보강하여 잔디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 훼손된 봉토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추후 조사 및 정비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봉분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봉분을 복원할 때는 임의로 높이를 산정하지 않고 발굴조사 및 상세한 조사를 통해 봉토의 축조 방법을 판단해 직경과 높이를 결정해야 된다. 석실이 완전히 노출된 유구는 봉분을 쌓지 않고 노출전시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창녕 교동고분군 계성고분 이전 복원관



합천 옥전고분군 노출 전시



합천 옥전고분군 유구 전시



대구 불로동 고분군 노출 전시

봉토가 완전히 유실된 고분은 봉분을 복원하지 않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처럼 그 규모를 알 수 있게 관목을 심거나 함안 말이산 고분군처럼 세라믹타일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고분을 정비하면서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해 문화재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봉토 작업을 진행할 때 중장비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인력으로 다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세라믹 타일



김해 대성동 고분군 관목 식재



중장비로 봉분 정비



봉분을 다질 때 사용하는 장비

5) 편의시설 정비

대부분의 고분군 옆에는 전시관 또는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다. 장계면 소재지에는 호남권 최초로 가야역사관이 곧 개관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백화산 고분군에는 아무런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탐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 백화산 고분군의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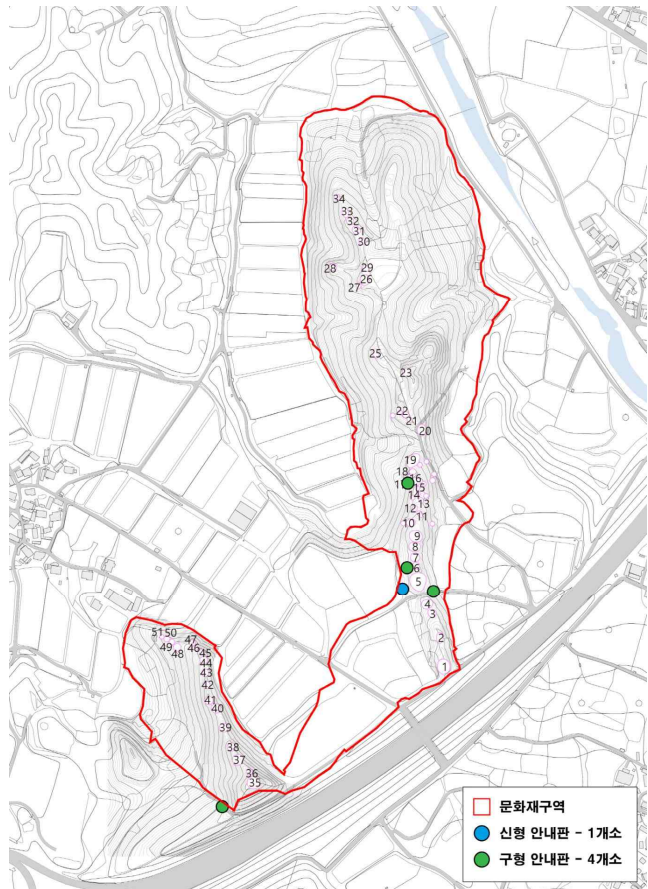
구역의 확장을 고려해야 하며, 주차장과 소형 화장실 설치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6) 기타 시설물 정비

고분군 유적의 훼손 방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탐방로 주변으로 고분군 전체 영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가야역사관 또는 장수군청과 연계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탐방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내판은 문화재청의 안내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사진, 도면 등을 활용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합안내판은 각각의 고분군으로 진입하는 탐방로에 설치하고, 개별안내판은 발굴조사가 완료된 고분을 중심으로 설치하며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별안내판에는 발굴 당시의 사진과 도면 등을 첨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현재 백화산 고분군에는 고분의 위치를 표시하는 플라스틱 말목이 설치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완료 후 고분의 분포현황이 밝혀지면 고분별로 일련번호를 작성한 표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 표석은 화강암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에 수풀이 낮은 경우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성주 성산동 고분군에서는 철제 표지판을 설치하였는데 쉽게 인식된다. 표석의 디자인도 중요하다.



문화재 안내판 현황

IV. 활용방안

백화산 고분군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포함하고 있고 넓은 공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SWAT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분군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함 유적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백두대간 서쪽에 위치한 가야유적으로 지역적 특성 고분군이 밀집 분포하여 활용도가 높음 체계적인 보수정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조사 등 유적지에 대한 특성 조사가 다소 부족함 일제강점기 이후 도굴로 인한 훼손 홍보 부족 주변 숙박시설 부족 토지 소유 현황 (대부분 사유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추진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관광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 지역 특산품에 대한 우수한 평가 (한우, 사과, 오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지자체들의 가야 유적지 개발 지속적인 유적지 파괴 문중묘소, 경작지 등 일부 소유주들의 비협조가 예상됨 유적지 주변 경관 저해 요소 문화재구역의 지정 범위

장수지역에 남아있는 가야의 고분군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며 유적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는 장수군에서 꾸준히 교육 및 학술행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장수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에 대해 존재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유적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백화산 고분군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관을 지니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장수의 가야유적은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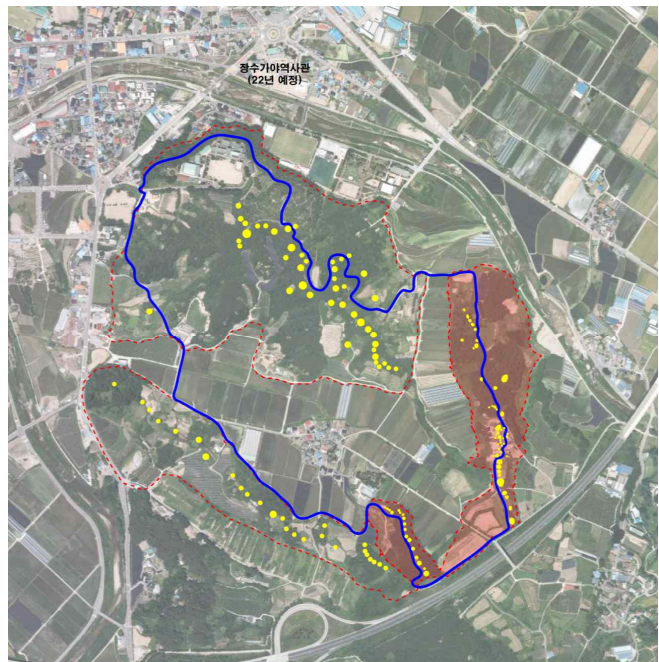


경주 대릉원 야간 조명

고분군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경우 연출되는 경관이 우수하다. 때문에 여러 고분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주 대릉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분군 둘레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입체감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색감 및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도심에 자리한 고분군일수록 활용 가치가 높다.

백화산 고분군은 고속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야간조명을 설치할 경우 홍보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분군 야간조명 시설은 자칫 고분군의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식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경우 조명시설이 커서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백화산 고분군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주변 능선을 따라 도보를 통한 탐방코스를 연결하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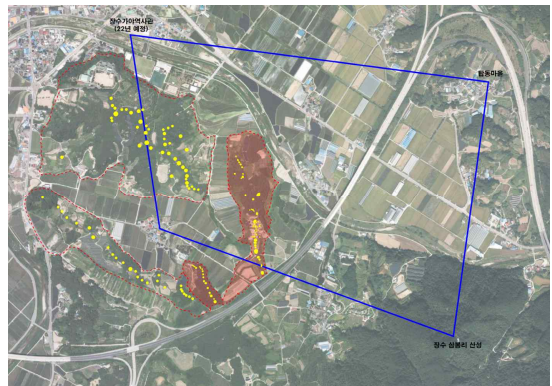
백화산 탐방코스(둘레길)

장수군 주요 축제

이름	축제기간	장소	주최/주관
한우랑사과랑축제	매년 9월 또는 10월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장수읍 두산리 472번지)	장수군,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063-352-2011 / 063-350-2355~7
의암주논개제전	매년 음력 9월3일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393(의암공원 일원)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063-351-6400
변암물빛축제	매년 여름	장수군 변암면 물빛공원(지지로 97-21)	장수군/물빛축제추진위원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축제, 야행, 음악회, 생생문화재 체험 등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광시설, 전시관, 박물관을 혼합하여 다양한 관광 및 체험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아직까지 장수군 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수 지역의 주요 축제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연계가 쉽지 않다. 장수지역에는 고분군, 봉화, 제철유적, 산성 등 다양한 가야의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고분군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들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코스를 연계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백화산 고분군과 주변에 있는 삼봉리산성, 가야역사관(개관 예정), 탑동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장수지역 가야의 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백화산 고분군과 가야 유적의 연계

백화산 고분군과 가야 유적의 연계

고분군이 갖는 특성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요소는 지형을 이용한 경관과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이라고 판단된다. 고분군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화 군락은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여러 지역에서는 고분군 주변에 경관 조경을 하여 탐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관 조경은 수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절초를 식재할 경우 경사지 보호 및 잡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경관 조경은 훼손된 지형을 복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경주 서악마을의 경우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의 고분군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경관 조경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산청군에서는 산청생초고분군 주변에 국제조각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 ‘가야시대로 떠나는 꽃잔디 여행’이라는 테마로 2만 5000m² 규모의 꽃잔디를 식재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매년 봄 꽃잔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경주 대릉원 주변 경관 조경 사례



경주 서악동 축제

(출처: 세계일보 2018년 10월 5일 기사)

백화산 고분군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역사문화 행사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 전문가, 학계, 문화계 인사들로 이루어진 강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교육효과를 노릴 필요도 있다. 특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도 필요하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원론적인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장수 백화산 고분군의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장수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의 정비와 활용의 목적은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여러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성이 밝혀졌

지만 아직도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현재까지 별다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례들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유적지 정비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비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적지 정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장수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진 백화산 고분군이 정비되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유적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장근, 『전북 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2021

장수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가야문화유산종합정비계획』, 2019

장수군·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가야문화권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5

문화재청, 『사적정비편람』, 2011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연구』, 2021

고령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5

함안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3

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남원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보고서』, 2017

문화재청예규 제173호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장수 백화산고분군의 보존·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편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문화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지역개발에 활용함은 물론 이를 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괴되었거나 훼손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헌조사나 발굴조사 등을 통해 실체 확인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장수 백화산 고분군은 백화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흐르는 지류에 자리하는데 지표조사를 통해 삼봉리·호덕리·장계리 등에 120여기 이상의 고총이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삼봉리 고분군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도굴과 이후 대규모의 민묘구역 조성, 농경지 개간과 경작활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총이 이미 유실된 상태였으며 그간 8차례의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장경호·단경호·심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교구·등자·재갈 등의 마구류, 철촉·철부·철모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습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호석을 두르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목관에 사용되었던 껍쇠가 출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장자가 가야세력의 수장층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덕리 고분군은 3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5기를 조사하였는데 직경 15m 이상의 중형급 봉토 내에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제이식, 장신구류, 토기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장계리 고분군은 2020년에 3기의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장타원형의 평면형태와 다곽식, 호석이 없는 점 등은 삼봉리고분군과 유사합니다. 다만, 8호분에서 토기, 방추차, 환두도편, 귀걸이편, 옥과 함께 집게·망치·모루 등 단야구가 출토되었는데 단야구의 출토로 보아 피장자는 장수지역 철기제작을 담당할 수장층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발표자께서는 백화산고분군 정비의 기본원칙으로 원형 보존, 특성 규명, 지역주민과 탐방객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순차적 정비계획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학술조사, 문화재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

사유지 매입을 언급하였고 고분군의 정비는 수목과 민묘, 탐방로, 고분 자체, 편의시설과 주변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활용방안으로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보고 기회와 위협요인을 살펴보는 한편 교육 및 홍보, 경관 조명, 탐방코스 개발, 축제 등 행사와 연계, 관광코스 개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인 저도 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문화유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당해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게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면 곧 바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먼 미래를 위한 보존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문화자원의 성격, 교통 및 관광수요, 주변 문화자원과의 연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해 문화유산의 활용은 “중장기 보존 및 활용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초조사부터 충실히 하여 지정문화재로의 지정 및 승격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추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문화유산이 갖는 내면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쉴거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 관련전문가, 지역주민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백화산고분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화산고분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인데,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와 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관과 민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 바, 백화산고분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삼봉리고분군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6·7·8·9호는 봉분의 복원이 이루어졌는바, 관람객에게 삼봉리고분군의 분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봉리고분군 주변은 축조 당시의 지형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분의 봉토를 복원하는데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셋째, 삼봉리고분군의 탐방로 개설예정지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6-9호는 봉분의 복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시신을 안치 했던 석곽묘도 본디 상태로 노출시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구 노출 전시의 필요성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넷째, 유적의 활용 측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전시관 건립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삼봉리고분군 주변에 가야역사관이 건립되므로 백화산고분군의 전시관 건립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전시관의 건립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야역사관은 장수가야 전반을 소개하는 공간이므로 유적을 성격(테마)별로 구분한 테마 전문 전시관이나 홍보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촌리나 백화산 주변에는 고분전시관, 대적골 주변에는 제철전시관, 봉화봉 주변에 봉화전시관 등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이 어렵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고분은 대부분 임야에 자리하는데 임야의 토지 소유는 개인이나 종중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유로 인해 종중 소유의 토지 매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분군의 합리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이 있거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충 설명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백화산고분군의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과 활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산고분군은 일정 지역내에 120여기 이상의 중대형급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고총이 가장 밀집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는 고분의 성격 규명을 위한 10여 차례 이상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탐방로를 개설하여 역사교육의 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전략(종합정비계획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화산고분군의 활용방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메모 -

- 메모 -

- 메모 -

- 메모 -

- 메모 -